



선배의 정성 모아 靑雲의 뜻을 펴자



1학기 장학금 1백69명에 4억8천7백여만원 전달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2월 23일 모교 관악캠퍼스 연구공원 본관 1층 강당에서 2011년 1학기 장학금 및 특지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해 학부생 1백50명, 석·박사과정 대학원생 19명 등 총 1백69명에게 4억8천7백32만1천5백원을 전달했다.

또 각 단과대학(원)동창회가 모교 재학생 1백46명에게 3억7천4백89만8천원을 수여함으로써 2011년 1학기 장학금은 총 3백15명에게 8억6천2백21만9천5백원이 지급됐다.
(관련기사 3~4면)

서울대총동창회 정기총회

3월 18일 오후 6시 30분 롯데호텔

◆일 시 : 2011년 3월 18일(금) 오후 6시 30분

◆장 소 : 롯데호텔(소공동) 2층 크리스탈볼룸

◆내 용 :

- ① 제13회 서울대총동창회 冠岳大賞 시상
- ② 2010년도 결산 및 2011년 사업계획 보고
- ③ 기타 안건 심의

◆회 비 : 없음.

※ 한정된 좌석(1000석 한정)과 식사 준비 관계로 반드시 사전예약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동창회 155차·관악회 111차 상임이사회는 정기총회 전 오후 5시부터 에메랄드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울대총동창회 회장 林 光 洙

관악춘추

흠여머니와 가난하게 사는 한 학생이 대학을 수석졸업하게 되어 졸업식장에서 답사를 해야했다. 어머니는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 참석치 않으려 했으나 아들의 간곡한 청을 받아들여 식장에 참석했다. 이 학생은 답사를 한 후 어머니를 찾아가서 상으로 받은 금메달을 목에 걸어 드렸다. “어머니 은혜로 이렇게 졸업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인사했다. 감동적인 졸업식이었다. 이 수석졸업 학생은 그 후 이 프린스턴대의 총장을 거쳐 미국 제28대 대통령이 된 민족자결주의를 제창한 우드로우 윌슨이었다.

대학교 졸업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다. 그래서 각 대학은 졸업식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2005년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가 리드대학 1학년 중퇴의 학력에도 불구하고 스탠퍼드대 졸업식에 참석해서 유명한 연설을 한 것도 바로 졸업식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준다. 컴퓨터 황제 빌 게이츠가 2007년 하버드대 졸업식에서 연설을 했고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작년에 미시간대, 빌 클린턴 前대

통령이 웨스트버지니아대 졸업식에 참석하여 젊은이들에게 도전정신을 심어 주는 내용의 연설을 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대통령이 서울대학교 졸업식에 직접 참석해서 축사를 한 전례가 있다. 국가원수가 아니더라도 총장의 축사 내용은 한때 신문 1면을 장식했을 정도로 무게가 있었다. 요즘에는 일부 졸업생들이 식장에 얼굴을 내밀지 않아 졸업식의 의미가 상당히 퇴색된 실정이다.

졸업식장에서 저명인사가 전하는 메시지는 사회로 나가는 젊은 세대에게 중요한 네비게이션의 역할을 한다. 지난 2월

25일에 있었던 서울대학교 학위수여식에서 林光洙총동창회 회장과 吳然天총장이 행한 축사의

졸업식은 통과 의례 아니다

의미도 바로 상아탑을 막 떠나려고 하는 젊은이들에게 마음의 양식이 되는 메시지라고 하겠다. 林회장은 축사에서 “여러분이 성취하고자 희망한 것이 있다면 도전하기를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충고한 것은 졸업생들이 깊이 새겨야 할 경구이다. 이번에 졸업한 학사 2천7백79명, 석사 1천6백25명, 박사 5백62명은 졸업과 동시에 동창회의 가족이 되었다. 동창회는 여러분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개학 연도를 1895년으로 정한 이후 첫 졸업생이며 최초의 동창회 회원이라는 영광을 지니게 된 것을 함께 축하한다.
(李炯均논설위원)

느리나무광장

얼마전 평소 존경하는 선배님과 좋은 저녁자리가 있었다. 최근의 개헌 추진 논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는데, 선배님은 개헌 찬성론자든 반대론자든 관련 정치인들은 뭔가에 맹목적으로 ‘집착’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고 했다.

“不偏不黨, 즉 아주 공평해 어느 쪽으로도 치우침이 없어 야 진정한 토론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계파는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당파성은 정당정치 기본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라고 대응했다. 그랬더니 “代議 민주주의의 대주주인 국회의원은 ‘자신의 나침반’으로 방향 설정을 하고 소신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선배님은 “불편부당한 정치인의 나침반을 종교에 비유하자면, 기독교인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신앙 생활의 기본으로 삼는 것과 같다”며 “하나님이 중심에 있으면 가령 교회 내부 갈등 등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도 했다.

이런 논조를 졸업생들과 모교와의 관계 설정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사실, 집착이란 단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 뭔가 인연이 있는 어떤 대상과의 관계에서 가장 바람직한 게 있다면 아마도 ‘사랑’일 것이다. 사랑은 분명히 집착과 다르다. 또 확실한 사실은 ‘무관심’이라는 단어하고는 양과 질을 달리하며 거의 반대점에 있다는 것이다.

초·중·고교, 대학까지 포함해 젊음을 함께 했던 학창시절의 추억이 진하게 배어 있는 모교에 대해서도 가장 좋은 관계 설정은 ‘사랑’일 것이다. 모교 집착은 어떻게 보면 집

不偏不黨과 모교 사랑

金永燮

연합뉴스 기사심의위원
본보 논설위원



단 이기주의로 비치고, 최근 개헌 논란에서 등장하는 ‘계파 결속’, ‘그들만의 리그’ 등과 같은 단어와 더 잘 어울릴 수도 있다.

여기서 유의할 사실은 집착은 어느 면에서는 ‘도가 지나칠 정도로 넘치는 사랑’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이다. 낳아 주고 길러준 부모님에 대해 자식이 집착한다고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듯이,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준 모교를 지나칠 정도로 집착한다고 코앞에서 직설적으로 잘못됐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모교만을 놓고 볼 때 집착보다 훨씬 안 좋은 관계 설정은 단연코 ‘무관심’이다. 모교에 대해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사랑’을 보이고 표현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다. 모교 사랑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우선 저마다 졸업생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본다. 역할의 구체적 내용은 백지로 남겨두고 싶다. 최근 서울대 ‘개학 연도’의 설정은 모교 사랑의 대표적인 예에 분명하다.

대학마다 새내기들 맞은 3월, 서울대 졸업생들은 모교와의 관계 설정에서 ‘사랑, 집착, 무관심’ 세 단어 중에서 무엇을 제일 먼저 떠올리는지, 자신의 무게 중심은 어디에 있는지 곱씹어볼 수도 있는 시점이 아닐까 한다.

관악시단

행복

方珉昊(국문84-89)
모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시인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 때
웃 없는 짐승들처럼 골목 깊은 곳에 단들이 살 때
우리는 가난했지만 슬픔을 몰랐다
가을이 오면 양철 지붕 위로 감나무 주홍 낙엽이 쌓이고
겨울이 와서 비가 내리면 나 당신 위해 파뿌리를 삶았다
그때 당신은 내 세상에 하나뿐인 이슬 진주
하지만 행복은 석양처럼 짧았다
내가 흐느적거리는 도시 불빛에 익숙해지자
당신은 폐에 독한 병이 들어 내 가슴 속에 누웠다
지금 나는 거울에 비친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시간이 물살처럼 흐르는 사이
당신을 잃어버린 내게 남은 건
상한 간과 후회뿐
그때 우리 얼마나 젊고 아름다웠나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 때
백열등 하나가 우리 캄캄한 밤을 지켜주던 나날

동문칼럼

경영전략은 기업이 성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찾는 학문분야이다. 여기에는 크게 네 가지 패러다임이 있다.

첫 번째 패러다임은 주체기반관점 (Subject-Based View)이다. 오늘 전 세계에서 제일 인기 있는 회사는 단연 애플사(Apple Inc.)이다. 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스티브 잡스(Steve Jobs)라는 창업경영자이다. 애플이 개발하는 신제품은 모두 잡스 회장의 머리 속에서 나온다고 한다. 최근 병색이 완연한 잡스 회장 사진이 신문에 게재되는 날, 애플사의 주가는 7% 떨어졌다. 이렇듯 최고경영자는 회사의 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 패러다임은 환경기반관점 (Environment-Based View)이다. 기업 기획실에서 자사 제품이 출시하고 있는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지 침체하고 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조사하고 연구한다. 그래서 시장이 침체하면 이 시장에서 빠져 나와 새롭게 떠오르는 시장

chanism-Based View)이다. 아름다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꽃을 키우는 주인, 흙, 물과 햇볕, 그리고 구근 중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기업도 주체, 환경, 자원 중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론으로서도 주체기반관점, 환경기반관점, 자원기반관점 중 하나만 가지고는 전체를 설명할 수 없다. 메커니즘기반관점은 이 세 가지 논리를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메커니즘기반관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주체, 환경, 자원을 단순히 통합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조합하고 순열을 찾아내고 실행시점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요소라도 그 내용, 순열, 시간에 따라 그 효과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메커니즘연구는 메커니즘기반관점에 입각해서 원하는 메커니즘을 만들어내고, 만들어낸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활용 결과를 평가해서 다음 시점의 계획에 반영하는 메커니즘 경영에 대한 이론을 개발하는 행위이다.

대부분의 전략경영 학자들은 쉽게 눈에 보이는 주체, 환경, 자원 중 하나를 자신의 패러다임으로 선택한다. 그 다음 경



趙東成
(경영67-71)
모교 경영학과 교수
국제경쟁력연구 이사장

경영전략의 네 가지 패러다임

으로 옮겨간다. 이러한 결정은 기업성과가 시장환경, 즉 제품이 출시하는 시장의 성장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세 번째 패러다임은 자원기반관점 (Resource-Based View)이다. 아무리 사업기회가 좋아도 이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자금, 기술, 인력 등 경쟁자와 싸워 사업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자원이야말로 기업이 성과를 내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네 번째 패러다임은 메커니즘기반관점 (Mechanism-Based View)이다.

영성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찾아내서 이에 대한 가설검정을 통해 실증적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이론을 개발한다.

반면 메커니즘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으며 측정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경영자에게 있어 메커니즘은 주체, 환경, 자원보다 더 중요한 이슈이다. 왜냐하면 경영자는 주체로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경영을 해야 하는데 바로 그 경영활동의 틀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메커니즘이기 때문이다.

서울大同窓會報 참여·협력·영광

발행인 林光洙
편집인 孫一根
인쇄인 朴薦壽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8-2
(임시주소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연구공원 219호)
• 전화 (02)702-2233 팩스 (02)886-2218
• e-메일 snua@paran.com

논설위원 金哲洙, 林炯斗, 金鎮銅, 李炯均, 宋丙洛, 安炳燦, 丘月煥, 宋鎮赫, 金好俊, 洪性萬, 李五峰, 安國正, 李成俊, 朴明珍, 李慶衡, 李元馥, 金鍾勳, 文昌克,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李元燮, 姜天錫, 嚴基永, 裴仁俊, 朴時龍, 辛京珉, 尹在錫, 鄭世溶, 李東植, 朴聖姬, 曹炳喆, 朴勝俊, 許英燮, 金玄浩, 鄭興寶, 金亨珉, 李東官, 李啓聖, 金鎮國, 崔英勳, 吳在錫, 李容式, 李先敏, 李相起, 蔡耕玉, 許文明, 金永燮
편집장 安興燮 편집부 기자 金南柱, 邊榮顯, 玄智愛 광고부장 金千鶴



본회 林光洙회장이 “국가 발전을 견인할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장학금을 수여했다.



모교 吳然天총장이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며 격려했다.

“모교서 배운 지혜를 사회 위해 써달라”

본회·단과대동창회서 3백15명에 장학금 8억6천여만원 수여

2011년 1학기 장학금 및 특지장학금 수여식에서 본회 林光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랑스러운 후배 재학생들과 함께 1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갖게 돼 큰 기쁨과 보람으로 생각한다”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따뜻한 정성을 베풀어주시는 특지장학회 선후배 동문 여러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장학금에는 우리 후배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책임감 있는 사회의 리더로서 국가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선배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며 “선배들의 이런 마음을 잘 헤아렸다가 나보다는 남을 먼저 돌아보고, 모교와 후배 사랑을 실천하는 동문이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孔子가 論語에서 ‘君子는 喻於義하고 小人은 喻於利한다(군자는 도의에 밝고, 소인은 이익만을 표준으로 삼는다는 뜻)’고 밝힌 것을 인용하며 “점단산업의 발전이 세계를 하나로 묶으며 무한경쟁의 시대를 만들었지만 글로벌 시대에도 여전히 경쟁력은 사람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울러 “모교에서 배우는 지혜와 경험들이 자신만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 쓰이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일에 쓰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모교 吳然天총장은 격려사에서 “여러 동창회 임원들이 모두 노력을 하셨지만 林光洙회장이 동문들을 섬책해 장학기금을 모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많은 분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올해도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국가와 사회로부터 사랑 받는 진정한 인재를 만들어내는 것이 서울대인의 또 다른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장학금을 받게 된 학생이야말로 서울대의 희망이고, 우리 사회의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에게 “학업에 헌신하고 자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사랑하고 국가와 사회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며 “지금은 하나의 밑알이지만 앞으로의 노력 여하에 따라 5년, 10년 후에는 풍요로운 밑밭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 나를 가장 사랑하는 주체는 나 자신이 라는 믿음을 실천하고, 모교를 넘어 아시아



본회 孫一攄상임부회장 장학금 전달



洪性大특지장학금 수여



金鍾燮특지장학금 수여



朴浩田특지장학금 수여



鄭啓泳특지장학금 수여



金讚淑특지장학금 수여



鄭潤煥특지장학금 수여



鄭忠始특지장학금 수여



李鍾基특지장학금 수여



禹仁性특지장학금 수여

와 세계의 주역이 되는 용기와 자부심으로 힘찬 전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수혜장학생을 대표해 黃盛熙(의학08입)군은 “이번에 받은 장학금은 선배들께서 많은 인내와 노력으로 일구신 소중한 결실의 일부를 후배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나눠 주신 것임을 잘 알고 있다”며 “소중한 장학금에 담긴 참 뜻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장학생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모교의 모습은 자랑스러운 선배님들이 이루신 업적이고, 이는 단순히 학창시절에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었다기보다 명석한 두뇌, 강인한 체력, 그리고 모범적인 윤리관을 바탕으로 올바른 판단력과 성실함을 발휘한 선배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타의 모범이 되고 세계적인 성과를 이뤄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한다”며 “선배님으로부터 선택 받은 우리들은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최선을 다하며, 후배들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딸이 장학금을 받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행사에 참석했다는 특지장학생 宋承娟(경제10입)양의 어머니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장학금을 받는 딸을 보니 정말 대견스럽고 기쁘다”고 한 뒤, “장학금을 받기 전까지 동창회에서 장학금을 준다는 사실조차 몰랐는데 이렇게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돼 놀랍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축하에서 林東赫(성악01-09)·明晟旻(성악07-11)동문이 諸葛所望(기악02-06)동문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듀엣으로 ‘perhaps love’를 불러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攄상임부회장, 洪性大부회장 겸 관악회 상임이사, 金讚淑·鄭潤煥·禹仁性·姜寅求·朴浩田·金鍾燮·李鍾基·鄭忠始·鄭八道부회장, 재단법인 관악회 趙弼濟·鄭啓泳이사가 참석했다.

또 모교 吳然天총장, 李元雨학생부처장, 발전기금 李明哲부이사장·金炯畝상임이사를 비롯해 미술대학동창회 金鳳九회장, (4면에 계속)

(3면에 이어)
보건대학원동창회 金旻永회장,
수리과학부동창회 李尙錫회장,
신양문화재단 鄭哲圭이사장, 학
교법인 양지학원 金鍾祺이사장 등
이 자리를 함께 했다. (智)

본회 일반장학생 명단 (괄호안 전공·학년)

▲인문대 李貞闇(종교학 석사과
정)·鄭鉉道(노어노문학4)·卓多美
(국사학3)·鄭世理(불어불문학2)
▲사회대 姜秉勳(경제학 석사과
정)·李起勳(정치학4)·林秀煥(심
리학4)·許敎範(사회학4) ▲자연대
金挺斌(통계학4)·吳重錫(수리과
학4) ▲간호대 李姓洹(간호학4)
▲경영대 表喜善(경영학4) ▲공대
權亨喆(전기공학 석사과정)·高鳳
璟(컴퓨터공학4)·韓允譔(컴퓨터
공학4)·許丙濤(전기공학4)·梁湖
敏(원자핵공학3)·李起樹(기계항
공3)·朴大賢(기계항공2) ▲농생대
孫圭台(식물생산과학3)·陳省實
(농경제사회학3) ▲미대 金鳳卿
(동양화 석사과정)·柳熙苑(조소3)
▲법대 朴穩勳(법학 박사과정)·安
智仁(법학4) ▲사대 金礪玄(체육
교육4)·龍安娜(영어교육4)·鄭陣
奕(수학교육4)·洪藝利(체육교육
3)·丁眞美(지리교육2) ▲생활대
金殷正(의류학4)·金 온(식품영양
학3) ▲수의대 楊知永(수의학3)
▲약대 安姬玟(제약학4) ▲음대
鄭한결(작곡2) ▲의대 黃盛熙(의
학4)·李東旻(의학3) ▲자유전공학
부 金娜希(자유전공2) ▲국제대학
원 鄭珠永(국제학 석사과정) ▲행
정대학원 裴고운(정책학 박사과
정)·鄭珉鎬(정책학 석사과정)

각 단과대학동창회 장학금 1백46명에 3억7천4백89만8천원

▲간호대동창회(회장 洪京子)
= 11명：7백80만원 ▲농생대동창
회(회장 鄭潤煥)= 23명：5천만원
▲법대동창회(회장 金慶漢)= 19
명：7천1백95만8천원 ▲사대동창
회(회장 卞柱仙)= 15명：4천1백
44만원 ▲상대동창회(회장 成耆
鶴)= 40명：1억2천4백70만원 ▲
생활대동창회(회장 禹敬子)= 2명
：2백만원 ▲수의대동창회(회장
李角模)= 2명：1천만원 ▲약대동
창회(회장 鄭之碩)= 5명：5백만
원 ▲음대동창회(회장 徐桂淑)= 5
명：5백만원 ▲의대동창회(회장
朴容炫)= 3명：1천5백만원 ▲치
대·치의학대학원동창회(회장 金
秉燦)= 4명：1천2백만원 ▲대학
원동창회(회장 李文漢)= 2명：8
백만원 ▲한대원동창회(회장 李萬
儀)= 5명：5백만원 ▲SGS동창회
(회장 曹白一)= 5명：6백만원 ▲
SPARC동창회(회장 河相哲)= 5
명：1천1백만원

2011년 1학기 특지장학금 수여 현황			
(장학기금 출연순)			
장 학 회	설 립 자	수 혜 자	장 학 금
洪性大특지	洪性大(수학57 - 63) 학교법인 상산학원 이사장 재단법인 관악회 상임이사	裴하은(국어국문석사)	3,000,000
		趙康勳(수리과학4년)	3,000,000
		丁蕙仁(농생명공학3년)	3,000,000
		金正桓(정치학3년)	3,000,000
		黃 琮(농경제사회2년)	3,000,000
		權志衍(재료공학2년)	3,000,000
		李成仁(인문계열1년)	3,000,000
		全孝彬(사회과학계열1년)	3,000,000
金柱津특지	金柱津(법학54입) 엠크테크놀로지코리아 회장	金世英(언론정보학4년)	1,468,500
		金賢錫(재료공학3년)	1,802,500
		崔鍾允(서양사학3년)	2,811,000
		許眞佑(지구환경과학3년)	1,789,500
		趙容翊(지구환경과학1년)	1,874,000
李吉女특지	李吉女(의학51 - 57) 경원대 총장	金河珍(건설환경공학4년)	2,801,000
		金昭淵(바이오조경학1년)	3,414,000
吳東英· 金譔淑특지	吳東英(조선항공54입) 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 부인 金譔淑(치의학56 - 60) 청아치과병원 이사장	金南佑(치의대학원4년)	3,000,000
		朴成煥(치의대학원3년)	3,000,000
		朴允姬(치의대학원2년)	3,000,000
		李承澔(치의대학원1년)	3,000,000
		曹煥爔(심리학4년)	2,863,000
鄭八道· 李慈倬특지	鄭八道(AIP 1기) 코리아랜드캄파니 회장 부인 李慈倬여사	文紀允(언어학4년)	2,611,000
		朴智允(소비자학3년)	2,241,000
李金玉· 黃海根특지	黃海根(토목공학54 - 60) 동일기술공사 회장 부인 故 李金玉여사	金東權(법학4년)	2,611,000
李道卿· 李燦振특지	李道卿(농학56 - 63) 부평문화재단 이사장 장남 李燦振(기계공학84 - 89) 드림위즈 사장	崔準赫(조선해양공학3년)	1,000,000
		朴淸洙(에너지자원공학3년)	1,000,000
李鍾基특지	李鍾基(경영69 - 73) 상영무역 회장	鄭寧勳(경영학4년)	2,611,000
		權賢修(간호학2년)	2,500,000
鄭哲圭특지	鄭哲圭(화학공학48 - 52) 신양문화재단 이사장	朴佳炫(건설환경박사)	2,000,000
		姜錫賢(전기공학석사)	2,000,000
		李鎭江(건축학석사)	2,000,000
		鄭潤載(화학4년)	3,087,000
化學科특지	화학과동창회		
金秉順· 李志鎬특지	金秉順(AMP 4기) 한국아노 이사 장남 李志鎬(의학77 - 83) 모교 의대 정형외과 교수	姜 昊(의학4년)	1,000,000
		李尙勳(법학4년)	1,000,000
鄭大永· 閔婉基특지	故 鄭大永(경제51 - 55) 前한주통상 고문 부인 閔婉基여사	金相潤(정치외교학2년)	2,241,000
金鍾祺특지	金鍾祺(생물교육51 - 55) 학교법인 양지학원 이사장	姜東佑(응용생물학2년)	3,000,000
孫致武특지	故 孫致武(대학원70졸) 前모교 지질학과 명예교수	李東根(지구환경과학석사)	2,500,000
		鄭正教(지구환경과학석사)	2,500,000
林光특지	林光朱(기계공학48 - 52) 임광토건 회장	李相賢(사회학4년)	1,500,000
		延濟玟(기계항공3년)	2,000,000
安聖哲· 孫潤淑특지	安聖哲(행정58 - 63) 유니온테크 회장 부인 孫潤淑여사	金眞映(인문계열1년)	3,348,000
鄭忠始특지	鄭忠始(화학공학72 - 76) 세진에이엠 회장	金志畝(화학생물학4년)	2,801,000
		李平康(화학생물학3년)	1,500,000
郭永驍특지	郭永驍(토목공학56 - 60) 도화종합기술공사 회장	沈揆大(건축학4년)	3,113,000
		李河永(화학교육4년)	3,179,000
		鄭賢禹(의학4년)	5,384,000
		金渡英(경영학3년)	3,179,000
		李侑晉(경영학2년)	3,179,000
牧村5父子특지	故 金道昶(법학43 - 47) 前법제처장·변호사 3남1녀	李哲煥(법학4년)	2,611,000
張學淳특지	張學淳(토목공학46 - 50) 삼양ENR 회장	曺少鈺(건설환경석사)	2,000,000
		李솔비(건설환경석사)	2,000,000
		차기쁨(건설환경석사)	2,000,000
李元珪특지	李元珪(농생물학58 - 63) 前산림청 입업연구원	李敏知(수의학1년)	2,000,000
郭東憲특지	郭東憲(법학61 - 65) 변호사	鄭圭漢(산림과학4년)	3,179,000
李相範· 高姪錫특지	李相範(행정53 - 57) 변호사 부인 高姪錫여사	黃圭祥(경영학1년)	2,780,000
保健大學院특지	보건대학원동창회	權하얀(보건학석사)	2,000,000
數學科특지	수리과학부동창회	裴錫仁(수리과학4년)	1,000,000
		康起源(수리과학4년)	1,000,000
		李眞鎬(수리과학4년)	1,000,000
禹仁性특지	禹仁性(기계공학58 - 62) 인터비즈니스시스템 회장	朴仁善(의학1년)	5,384,000

장 학 회	설 립 자	수 혜 자	장 학 금
金潤澤특지	金潤澤(경대원68 - 70) 양천장학회 이사장	嚴智瑗(지구환경과학석사)	2,000,000
		張素瑛(심리학4년)	1,500,000
姜信浩특지	姜信浩(의학46 - 52) 동아제약 회장	姜潤求(사회과학계열2년)	2,611,000
吳應鉉· 秋景玉특지	故 吳應鉉(섬유공학67 - 71) 前반월나염시법단지 대표 부인 秋景玉여사	趙仁濟(재료공학4년)	3,205,000
崔喜藏특지	崔喜藏(섬유공학58 - 64) 대성사 대표	朴柱炫(성악2년)	2,295,000
그린특지	농대 그린장학회	申享媛(작물생명과학4년)	1,000,000
李鍾憲특지	李鍾憲(경제59 - 65) 덕인양행 사장	安庸鎭(사회교육3년)	1,000,000
松山·貞璟특지	金炯珠(토목공학46 - 50) 삼안전력 회장	李佳垠(수의학석사)	4,964,000
金相度특지	金相度(정치45 - 49) 삼양사 회장	文宣埈(산림과학석사)	3,861,000
		羅英仁(철학2년)	2,611,000
		任世喜(산림과학2년)	3,179,000
		崔秀堧(조선해양학1년)	3,374,000
金鍾燮특지	金鍾燮(사회사업66 - 70) 스페코·삼익악기 회장	金泳赫(바이오시스템4년)	3,179,000
		金在善(역사교육4년)	2,611,000
		金熙元(전기공학4년)	3,205,000
		朴晟佑(심리학4년)	3,000,000
		延秀賢(건축학4년)	3,205,000
		尹보라(정치학4년)	3,000,000
		尹泰林(국악4년)	4,185,000
		李柁信(조정지역시스템4년)	3,179,000
		李載雅(체육교육4년)	2,801,000
		鄭仁敎(지구환경과학4년)	3,000,000
		鄭會煜(체육교육4년)	3,179,000
		金東珍(사회복지학3년)	1,500,000
		金英雄(체육교육3년)	2,801,000
		金燦熙(체육교육3년)	2,801,000
		金亨基(체육교육3년)	3,179,000
		都榮勳(체육교육3년)	2,801,000
		朴修垠(체육교육3년)	2,801,000
		李在昊(고고미술사학3년)	2,611,000
		林文炯(작곡3년)	4,185,000
		林珍虎(조선해양공학3년)	3,205,000
		鄭碩桓(원자핵공학3년)	3,205,000
		河成奉(경제학3년)	3,000,000
		洪泰和(전기공학3년)	3,205,000
		吳駿赫(사회과학계열2년)	1,500,000
金殷宗특지	金殷宗(경제59 - 63) 뉴프라이드그룹 회장	李一善(북경칭화대2년)	3,400,000
		Alana Jagow(美)주사사(파대2년)	3,400,000
池昌壽특지	池昌壽(상학55 - 59) 한국알콜산업 회장	趙娟穎(보건학석사)	3,861,000
嚴秉潤특지	嚴秉潤(외교60 - 64) 유라IF&D 회장	朴泳冠(화학1년)	3,348,000
李金器특지	李金器(악학55 - 59) 일동제약 회장	韓素旻(악학2년)	1,913,000
朴冠鎬· 申明珪특지	故 朴冠鎬(화학교육47 - 51) 前동국대 명예교수 부인 申明珪(생물교육48 - 54) 관악회 이사	吳하늘(화학교육4년)	3,179,000
		韓載勳(생물교육4년)	3,179,000
		宋承娟(경제학2년)	2,611,000
		鄭한결(불어교육2년)	2,611,000
美術大學특지	미술대학동창회	權潤澈(역사교육1년)	2,780,000
瑞岩특지	崔尙衡(행정51 - 55) 서암복지장학재단 이사장	禹京利(디자인학2년)	3,905,000
鄭潤煥특지	鄭潤煥(임학56 - 62) 일성화학 사장	姜旻求(산림환경학3년)	2,000,000
		安병규(산림환경학1년)	2,500,000
南正鉉특지	南正鉉(건축57 - 61) 대우테크 고문	姜美珠(건축학석사)	3,887,000
		河璉慧(건축학석사)	3,887,000
원일특지	鄭啓泳(상학61 - 66) 원일전선판매 회장	金周賢(농생명공학석사)	3,861,000
		金泰憲(건설환경석사)	4,056,000
		許榮岐(전기공학석사)	3,887,000
		宋在薰(경영학4년)	2,611,000
		宋在賢(농경제사회3년)	2,611,000
一默특지	徐廷和(법학51 - 55) 한나리당 상임고문	李哲和(행정학석사)	3,156,000
池源哲특지	池源哲(축산73 - 77) 이지바이오시스템 회장	루무웅원(농생명공학박사)	4,030,000
南湖특지	趙弼濟(조선항공46 - 50) 세양주택 회장	李引煥(국어국문4년)	1,491,000
		金勝爔(농경제학2년)	3,179,000
朴浩田특지	朴浩田(경영62 - 66) 삼덕 회장	姜信允(경제학4년)	2,611,000
		朴洙俊(건축학4년)	3,205,000
		朴智弘(정치학4년)	2,611,000
		李동녕(재료공학4년)	3,205,000
		李榮桓(경제학4년)	2,611,000
		朴允宣(농경제사회3년)	2,611,000
		李民浩(식품통물생명3년)	3,179,000



梁承穆·李炯均·孫一根·安秉勳·吳然天동문, 金仁圭동문 부부, 林光洙·朴明珍·文昌克·洪性大동문

‘서울대 언론인 대상’에 KBS 金仁圭사장

관악언론인회 제6대 회장에 裴仁俊동문 선출

관악언론인회(회장 文昌克)는 지난 2월 23일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전·현직 동문 언론인 1백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정기총회 및 제8회 ‘서울대 언론인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SBS 보도제작국장인 金亨珉(외교76-80)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文昌克회장은 “모교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해 보자는 목표에서 시작된 관악회가 林光洙회장님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지금까지 10여 년을 이어오고 있다”며 “여러 선배님들도 뒤에서 많이 격려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모교 법인화와 관련해 “법인화를 위해 언론인 동문들이 뒤에서 음과 양으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난해말 법이 통과돼서 다행”이라며 “이로써 우리 모교가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뉴미디어가 번창하다보니 전통 언론매체들은 힘겹게 싸우고 있는데, 과거 모교 출신들이 언론계에서 많은 역할을 한 것에 비해 최근에는 언론인 동문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현역에 남아있는 후배들 역시 어렵게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임기 동안 서울대 동문 여기자모임을 새로 조직하고, 매년 새로 언론계에 들어오는 신입 동문들을 위한 환영회를 개최하는 등 관악회가 동문들을 모아서 격려하고 같이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에서 “서울대 언론인 대상을 수상하시는 KBS 金仁圭사장은 대한민국 언론인의 귀감일 뿐만 아니라 관악회 창립 주비위원회의 간사장으로서 크게 공헌하셨고, 동창회보 논설위원으로 오랜 기간 많은 활동을 해오신 분”이라며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 관악회가 모교 출신 언론인들을 하나로 규합하는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해 서울대인으로서의 책임과 위상을 지키며 모교 발전에 앞장설 수 있는 모임



文昌克회장(右)이 金仁圭동문에게 상패 수여



신임 裴仁俊회장

으로 더욱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축사 요지 참조〉

모교 吳然天총장은 축사에서 “현실의 비판보다는 비난이, 이해보다는 공격이, 대안의 제시보다는 일방적인 반대가 우리나라의 매체를 장식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대화와 토론이 필요하다”며 “지적 강자인 여러분들이 더 많이 듣고, 이해하고, 양보해 국가 발전 및 사회 통합과 구성원들의 보다 나은 복지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제8회 ‘서울대 언론인 대상’은 KBS 金仁圭(정치69-73)사장이 수상했으며 상패와 함께 상금 1천만원을 받았다. 金동문은 상금 전액을 장학비 및 건립기금으로 희사했다.

‘서울대 언론인 대상’ 심사위원장을 맡은 모교 언론정보학과 梁承穆(신문74-79)교수는 “심사위원회는 만장일치로 金仁圭동문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히며 “KBS에서 정치부장, 워싱턴특파원, 보도국장, 정책기획국장, 특임본부장, 뉴미디어본부장, KBS 이사를 거쳐 사장에 이르는 金동문은 언론인으로서 방송을 통해 우리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또 “KBS 사장에 취임한 이후에는 시청자 중심의 진정한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그 덕분에 KBS가 매체의 영향력과 신뢰도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으로 위상을 굳혔다”고 덧붙였다.

金仁圭동문은 수상소감에서 “어느 때보다 기쁘고 감격스러운 심정으로 이 상을 받는다”며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동문 여러분께서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KBS의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시청자가 주인이 되는 확실한 공영방송’을 만들자고 다짐하는데, 이렇게 가는 길이야말로 ‘진리는 나의 빛’이라는 모교의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수상소감 요지 참조〉

이어 가진 총회에서 앞으로 2년간 관악회를 이끌어갈 제6대 회장에 동아일보 裴仁俊(철학70-74 본보 논설위원)주필을 선출했다. 부회장, 간사장, 이사, 감사 등의 임원 선임은 신임 회장에게 위임했다.

李炯均명예회장의 건배제의에 이어 열린 축하 공연에서 모교 음대 재학생들로 구성된 비바 남성 중창단이 멋진 화음으로 ‘기쁜 날’, ‘향수’, ‘Oh, happy day’, ‘Funiculi Funicula’ 등을 불렀다.

한편 참석자들은 본회에서 준비한 수건세트와 金仁圭동문이 협찬한 ‘감동 KBS OST 컬렉션’ CD를 받았다. 〈智〉

본회 林光洙회장 축사 〈요지〉

KBS 金仁圭사장께서 제8회 ‘서울대 언론인 대상’을 수상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金仁圭동문은 대한민국 언론인의 귀감일 뿐만 아니라 오늘의 관악언론인회 창립 전부터 창립 주비위원회의 간사장으로서 크게 공헌하셨고, 동창회보 논설위원으로도 오랜 기간 많은 활동을 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악언론인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난 2년간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文昌克회장님과 임원 여러분에게 격려와 감사의 큰 박수를 보내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관악언론인회가 모교 출신 언론인들을 하나로 규합하는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해 서울대인으로서의 책임과 위상을 지키며, 모교 발전에 앞장설 수 있는 모임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창의적인 새로움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이 시대에 우리의 모교 또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학운영의 자율권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재정 확충이 가능한 국립서울대학교의 법인화는 모교가 세계 10위권의 명문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입니다.

33만 동문 모두가 힘을 합쳐 이뤄내야 할 역사적 과업인 만큼 성공적인 법인 전환으로 모교가 세계 유수의 명문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언론인 동문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裴仁俊회장 취임 인사 〈요지〉

많이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지, 감사하면서도 부담스럽습니다. 관악언론인회를 구성하는 서울대 출신 저널리스트 3천명의 역할은 작을 수도, 가벼울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자유인이지만 지식인이요 언론인으로서 국가사회, 나아가 세계를 위한 소명과 책무가 없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결코 남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사회의 많은 배려와 지원 속에서 이 나라 최고대학을 졸업하고 기자의 길을 택했던 우리들이야말로 언론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언론인들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비롯한 인류 보편의 가치, 선진국 문명사회를 이루기 위한 여러 조건들, 안전하고 풍요롭고 지속 가능한 국가를 유지하는 정책 등을 창출하고 지키는데서 해야 할 몫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악회는 언론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고 확산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작지만 의미 있는 광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오히려 자유를 넘은 방종과 무질서를 걱정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화 시대, 세계적 무한경쟁시대의 격랑을 헤쳐야 할 미래에도 서울대와 서울대 동창회가 담당할 몫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관악회가 모교, 그리고 동창회와 호흡을 맞추며 미래를 함께 바라봐야 할 이유입니다. 저는 그 한 모퉁이에서 심부름을 하겠습니다. 서로 손잡고 도우며 앞으로 나아갑시다.

金仁圭동문 수상소감 〈요지〉

제가 KBS에 몸담은 지도 38년이 됐습니다. 흑백TV 시절에는 사건 기자로 물불 가리지 않고 현장을 뛰었고 컬러방송이 시작된 80년부터는 정치부 기자로서 선거 때만 되면 늘 되풀이되던 편파방송 시비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저는 요즘 디지털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저널리즘’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성찰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펼쳐질 디지털시대에 ‘디지털 저널리즘’에 대한 개념부터 하나로 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소모적 경쟁이 아닌 상생과 화합의 경쟁으로 한국 언론이 앞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KBS는 한 가지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한 해 동안 방송된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감동을 주었던 인물에게 대상을 주는 ‘감동대상’을 신설했습니다. 심사결과 아프리카 수단에서 송고한 인술을 펴다 선종하신 故 李泰錫신부가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미디어 빅뱅시대 수백 개 채널 속에서 온 가족이 마음놓고 즐길 수 있는 공익 채널이 하나 정도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기도 합니다.

KBS의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시청자가 주인이 되는 확실한 공영방송’을 만들자는 다짐을 합니다. 이렇게 가는 길이야말로 ‘진리는 나의 빛’이라는 모교의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나의 빛’이라는 모교의 정신은 언제나 제 삶을 비추보는 거울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대 출신 언론인으로서 동문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자세를 견지하려 합니다.

장학빌딩 건립기금 10억원 쾌척

朴容晟·朴容眩·朴容晩동문



朴容晟회장



朴容眩회장



朴容晩회장

본회 초대 회장을 지낸 朴斗秉(경성고상32졸)회장의 자제인 朴容晟(경제59-65 대한체육회장)·朴容眩(의학62-68 두산그룹 회장)·朴容晩(경영73-78(주)두산 회장)동문이 공동명의로 지난 2월 28일 장학빌딩 건립 기금으로 10억원 쾌척했다.

본회는 ‘개산특지장학회’를 운용해 삼형제의 뜻에 맞춰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학빌딩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새겨 그 뜻을 영구히 보존할 계획이다.

朴容晟회장은 본회 부회장, 상과대학동창회장, 대한유도협회장, 동양백주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두산중공업 회장, 두산그룹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

재 두산중공업 이사회 의장, 중앙대 이사장, 대한올림픽위원장, 통일부 통일교문을 맡고 있다.

朴容眩회장은 모교 의대 외과 학교실 교수, 모교 의학도서관장, 모교 병원장, 대한소화기학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연강재단 이사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의과대학동창회장, 본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朴容晩회장은 두산그룹 기획조정실장, 두산 사장, 한·스페인 경제협력위원회장, 두산중공업 부회장, 두산인프라코어 회장 등을 거쳤으며,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미국 보스턴대 한국동문회장을 겸하고 있다.



상대 최우수 졸업생과 洪龍潔 前회장(中)

상대동창회

장학금 1억2천만원 지원

상과대학동창회(회장 成耆鶴)는 지난 2월 28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서 1학기 장학금 전달식 및 최우수 졸업생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모교 재학생 40명(경영학과 20명, 경제학부 20명)에게 장학금 1억4백7만원을 전달했으며 학술연구비로 경영대 및 경제학부에 각각 1천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1억2천4백7만원을 지원했다.

또 경제학부 강효석·김강한 군과 경영학과 양태용·이병훈 군에게 최우수 졸업상을 시상했다.

의대동창회

해외연수비·장학금 전달

의과대학동창회(회장 朴容眩)는 지난 2월 18일 모교 연경캠퍼스 합춘회관에서 2011년 상반기 해외연수 지원금 전달식 및 후배사랑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분당모교병원 내과 林 秀

(의학90-96)교수, 한국원자력의학원 소화기내과 朴修哲(의학91-97)교수, 관동대 명지병원 정형외과 朴宰亨(의학91-97)교수, 서울시립보라매병원 신경과 洪允鎬(의학93-98)교수에게 3천달러씩 총 1만2천달러를 전달했다.

또 유혜림(의대원1년)·황현택(의대2년)·채제병(의대2년) 학생에게 각 5백만원씩 1천5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한편 동창회는 지난 2월 13일 합춘회관에서 姜信浩교문 등 30여명의 동문이 참가한 가운데 바둑대회를 열고 친목을 도모했다. 경기 결과는 다음과 같다.

▲A조 : 우승 李光熱(의학01-07)동문, 준우승 金炳華(의학50-56)동문, 3위 金潞經(의학58-64)동문, 행운상 李容吉(의학60-66)동문 ▲B조 : 우승 李夏吉(의학51-57)동문, 준우승 魏在勳(의학52-58)동문, 3위 李裁興(의학57-61)동문, 행운상 金淳會(의학50-56)동문 ▲C조 : 우승 李枝馥(의학52-58)동문, 준우승 李峻漢(의학52-58)동문, 3위 李甲淳(의학55-61)동문, 행운상 沈英輔(의학55-61)동문

약대동창회

회관 마련 기금 5억여원 모아

약학대학동창회(회장 鄭之碩)는 지난 2월 18일 서울 태평로 프라자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鄭之碩회장은 회관 마련 기금 모금 사업을 설명하면서 “5회부터 44회까지 3백50여 명의 동문이 참여해 당초 목표를 초과한 5억5천8백만원을 모금했으며 이번 사업이 동창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되살리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동창회는 올해 안에 지하철 2호선 역세권 등 동문들이 이용하기 좋은 곳에 30평 내외 규모의 사무실을 확보할 계획이다.

鄭회장은 이어 “1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분기별 회보 발간, 해외동문 회보 발송, 명부 발간 등의 사업과 조직 강화를 위해 각 위원회에 활동비를 지급할 계획이며, 약국을 개업하는 동문들에게 동창회 로고가 새겨진 벽시계를 선물하겠

다”고 밝혔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에서 “많은 약대 동문들께서 국내외 제약회사와 정부기관 및 연구소에서 최고의 약학 전문가로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에 동문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움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국내 의약품 산업과 모교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총회에 앞서 진행된 공로패 수여식에서 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영일제약 金隆吉(약학64졸)사장, 하나제약 趙慶一(약학64-68)회장, 코스맥스 李慶秀(약학66-70)회장, 한인제약 李光植(약학66-70)회장, 한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崔圭八(제약70-74)소장에게 총동창회장상을 수여했으며, 동명스틸 李相殷(약학58졸)



최우수 졸업생과 鄭之碩회장(中)

회장, 李英善(약학55-59)동문, 경인약품 李興載(약학58-62)대표, 법원약국 李碩九(약학62졸)대표, 金貞柱(약학59-63)동문, 대학약국 裴榮一(약학60-65)대표 등 12명에게 약대동창회장 표창상을 전달했다.

이어 올해 우수 졸업생인 김충녕(제약07-11)·박지현(약학07-11)동문에게 축하선물을 전달했으며, 모교 徐永鉅학장에게 연구활동비를 지급했다. 또 재학생 5명에게 장학금 5백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대전·충남지부동창회

신입생에 장학금 전달

대전·충남지부동창회(회장 吳應準)는 지난 2월 22일 대전시내 한정식당 만두레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동창회 임원, 출신학교장, 담임교수, 학부모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2011년 모교에 입학한 대전·충남 출신의 신입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吳應準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강한솔(서대전고)군, 박상혁(대성고)군, 서은주(성모여고)양, 정선혜(대전여고)양, 정제엽(대전고)군, 최정훈(우송고)군 등 6명에게 각각 1백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전북지부동창회

신입생 환영회 가져

전북지부동창회(회장 金聖吉)는 지난 2월 21일 전주 시내 중식당 백리향에서 모교 신입생 환영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본회 洪性大(수학57-63)부회장을 비롯해 申鐵淳(교육행정57-61)前전북대 총장, 張明錫(정치58-64)前경향신문 사장, 柳成業(외교80-84)국회의원 등 동문 1백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洪性大부회장의 축사에 이어 이대혁(성악98-03)동문이 축하를 불러 이날 참석한 신입생 60여 명을 격려했다.

한편 洪性大부회장이 설립한 전북 상산고에서 올해 31명의 학생이 모교에 입학했다. (南)



공대동창회

각 학과 우수 졸업자 29명 시상

공과대학동창회(회장 尹友錫)는 지난 2월 25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서 최우수 졸업생 시상식을 개최했다.

尹友錫회장은 인사말에서 “사회에 나가 좋은 연구업적을 남기는 것도 좋지만 이 나라 산업발전과 세계인류 평화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부탁했다.

전기공학부 유승일 군은 최우수 졸업생을 대표해 “어려웠던 시절에 맨손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일구신 선배님들이 계신데 좋은 환경에서 편하게 공부한 우리가 잘하면 잡했지 못 하면 안 되겠다는 각오로 동료들과 힘을 합쳐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각 학부별 최우수 졸업생은 다음과 같다.

▲건설환경공학부 박호철·최승우 ▲기계항공공학부 김우열·이상준·이수학·이종우·정민환·정진원 ▲재료공학부 박준영·정동연·조장현 ▲전기공학부 노준하·배형종·서유민·유승일·이승원·전재도 ▲컴퓨터공학부 오일종·임태형 ▲화학생명공학부 신정은·이유선·

임선민·정유진 ▲건축학과 배현욱 ▲산업공학과 강성호 ▲에너지자원공학과 강민지 ▲원자핵공학과 이경섭 ▲조선해양공학과 안준일·이재훈

사대동창회

재학생 15명에 장학금

사범대학동창회(회장 卞柱仙)는 지난 2월 16일 모교 관악캠퍼스 사범대학 교수회의실에서 1학기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정관장학회에서 金相佑(물리교육4년)군 등 5명에게 1천3백55만3천원, 범은장학재단(이사장 張忠植)에서 金兌垣(교육4년)군 등 10명에게 2천7백89만2천원 등 15명의 학생에게 총 4천1백44만5천원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卞柱仙회장, 金昌哲상임부회장, 단국대 曹昌燮(독어교육61-65)교육대학원장, 崔基澈(체육교육65-69)前자양고교장, 서울국제고 李柄好(영어교육70-74)교장, 모교 사대 金鍾旭(지리교육71-75)학장 등이 참석해 장학생들을 격려했다.

치대·치대원동창회

金秉燦회장 선임·동문상 시상

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동창회(회장 洪禮杓)는 지난 2월 23일 모교 연건캠퍼스 치의학대학원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신입 회장에 김병찬치과의원 金秉燦(치의학69-75)원장(사진)을 선출했다.

신임 회회장은 “학제 개편, 관악캠퍼스 치과병원 조성 등의 현안은 모교 뿐 아니라 동창회가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며 “대학의



현안 해결에 적극 동참하는 동창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金회장은 일본 동경대 대학원에 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모교 보

철학동문회장, 치대동창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날 제10회 자랑스러운 동문으로 대한치과이식학회 柳陽錫(치의학45-49)초대 회장, 모교 梁源植(치의학57-61) 명예교수, 명치과의원 明魯哲(치의학63-69)원장을 선정해 상패와 순금 열쇠를 전달했다.

한편 이날 회칙 개정을 통해 회장 선출방법을 직선제로 변경했다. 동창회는 지금까지 회장을 평의원회에서 선출해 왔으나, 이번 회칙 개정으로 2년 후부터는 인터넷·SMS·우편투표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직선제로 선출하게 된다.

인문대동창회

朴武益회장 추대

인문대학동창회(회장 朴孟浩)는 지난 2월 18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으로 한국궐립조사연구소 朴武益(철학62-67)소장(사진)을 선출했다. 朴孟浩 前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했다.

신임 차회장은 우리나라 최초로 여론조사회사를 설립해 사회과학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1997년 대선 투표일 저녁 선거 직



후에 ‘1% 차이로 DJ가 당선될 것’이라고 예측한 것이 적중돼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철학과동창회장, 인문대동창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한편 이날 연회비(3만원)를 매월 3천원씩 자동이체 또는 핸드폰 과금 방식으로 납부하는 방안이 통과됐다.

동문작품 지상전시회

徐明德作



‘한 송이 꽃에 마음을 담아’, Oil on Canvas, 53×72.7cm, 2009

〈작가약력〉

- ▲71~75년 모교 응용미술과 졸업
▲개인전 4회
▲한국인물작가회전
▲현대사생회전
- ▲갤러리 회화전
▲한·러 현대회화 초대전
▲한국미술협회전
▲목우회전
-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상명대 총장 역임
▲현상명대 교수·화가

AMPFRI동창회

새 회장단 출범

식품 및 외식산업 보건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文允奉)는 지난 2월 8일 서울 명동 세종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회장단 이·취임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보대원동창회 金旻永회장, 모교 보대원 白道明원장, 權純晩부원장, 朴柱宣·孫淑美 국회의원을 비롯해 1백7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지난해 사업 및 결산보고와 올해 사업 및 예산심의 후 申一汕(14기)前회장과 李基浩(12기)前사무총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 신임 文회장을 도와 동창회를 이끌 朴熙熙(11기)·宋明儀(24기)수석부회장, 陳炯奎(24기)감사, 김재희(15기)여성회장, 최인호(16기)사무총장, 오경희(26기)·許勝必(27기)사무차장, 남기원(17기)체육위원장, 오명철(20기)의전위원장, 장기봉(26기)친

교위원장, 이재근(27기)기획위원장 등 새 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文회장은 “동창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임원직을 맡아준 동문들께 감사하다”며 “이분들과 힘을 합쳐 더욱 정겹고 모든 이에게 도움되는 동창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ASP동창회

林周宰회장 뽑아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동창회(회장 金東洙)는 지난 1월 11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한국주택금융공사 林周宰(8기)사장을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林회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한국은행 입사 후 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장, 총무국장, 부원장보를 역임했으며, 지난 2008년 7월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10면 신임 동창회장 인

터뷰 참조>

ASP과정은 2001년 모교 사회대 경제연구소(소장 錢英燮)에서 개설한 강좌로 현재 20기까지 6백90명의 회원을 배출했다.

AMP동창회

최고경영자 대상 시상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金光石)는 지난 1월 2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제10회 AMP대상 시상식 및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AMP대상 수상자로 한국정수공업 李圭喆(44기)회장, 롯데백화점 李哲雨(농경제61-65·49기)대표, 인천공항공사 李采郁(54기)대표를 선정해 상패와 꽃다발을 전달했다.

AMP동창회는 70기까지 4천5백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국가, 경제,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탁월한 경영 성과를 보인 동문에게 AMP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천안지부동창회

朴昶緒회장 선출

천안지부동창회(회장 金相斌)는 지난 1월 18일 천안시내 중식당 천진에서 정기이사회 겸 신년하례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朴昶緒(농화학63-67)동문을 선출했으며, 부회장에 尹秉鎭(농업교육71-76)·田溶鶴(법학73-77)·金斗勳(기계설계78-82)동문, 사무총장에 曁永瑚(화학공학76-80)동문을 선임했다.

정치외교학과동창회

학부 통합 후 첫 총회

정치외교학과동창회(회장 李圭煌)는 지난 1월 31일 서울 대평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신년교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모교 정치외교학부 통합 후 처음 가진 이날 모임에는 삼양사 金相廈(정치45-49)회장, 방송통신위원회 崔時仲(정치57-63)위원장, 金炯杵(외교67-71)前국회의장을 비롯해 1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李圭煌회장은 지난해 동창회 사업 보고를 통해 “분기별 정례조찬회는 전문가를 초빙해 사회적 이

슈를 심도 깊게 다뤘고, 동창회보는 각자의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동문들의 소식에서부터 최근 사회적 주요 주제에 대한 대답까지 다루는 등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PARC동창회

河相哲회장 선임



과학기술 혁신최고전략과정동창회(회장 金權震)는 지난 2월 24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파카텍스 河相哲(15기)대표(사진)를 제5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河회장은 “金權震회장님의 노력으로 동창회가 양적·질적으로 기틀이 잡혔다”며 “그 기반 위에 우리 모임이 더욱 격조있고 친밀도 높은 커뮤니티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모임에는 徐榮出·洪起南·金權震 前회장, 모교 자연대 金明煥학장, 吳鍾南주임교수 등 1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회장이·취임을 축하했다. (南)

3·4월 행사 캘린더

3월 16일(수) 오후 4시

•간호대동창회 정기총회

모교 연건캠퍼스 간호대학
(문의 : 740-8843)

3월 17일(목) 오후 6시30분

•ROTC동문회 정기총회

서울 삼성동 리마다서울호텔
(문의 : 871-0522)

3월 22일(화) 오후 5시

•의대동창회 정기총회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문의 : 742-8183)

4월 2일(토) 오전 10시

•생활대동창회 정기총회

모교 관악캠퍼스 생활과학대학
(문의 : 간사 010-9585-2672)

4월 9일(토) 오전 10시

•사대동창회 친목수련대회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
(문의 : 6399-6500)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상대동창회 成耆鶴회장
(영원무역 회장)



지난 1월 상과대학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새 회장에 영원무역 成耆鶴(무역66-70)회장이 선출됐다. 신임 成회장은 1년 중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보내는 바쁜 경영인으로 살면서도 동창회를 위하는 일에는 소홀함이 없다. 매년 장학금을 빠지지 않고 출연하고 본회 홈커밍대회에도 ‘노스페이스’ 등산용품 등을 후원하고 있다. 2월 25일 서울 만리동 본사에서 일본 출장을 막 다녀온 成회장을 만났다.

－ 동창회 운영 계획은.

“사실 총동창회나 단과대학동창회가 동기회나 고교동창회처럼 가깝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일이 뭘까, 어떤 서비스를 해야 할까

우리 자신들과 사회의 발전에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이질감’ 극복이 뭐 그리 큰 어려움이겠습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 모교에 대한 기부 계획은.

“그동안 학교에는 지원을 못 했어요. 국립대란 이미지 때문에 ‘국가에서 알아서 잘 해주겠지’라는 생각이 컸죠. 이제

“후배 돕는 일이 가장 큰 보람”

고민 중이에요. 장학사업을 늘리고 학술대회 등 뜻 깊은 활동을 많이 해야 호응도 높을 것 같습니다.”

－ 장학금을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현재 매학기 1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죠. 더 적극적으로 기금을 모금해야죠. 저는 부탁을 하면 강도 높게 하는 스타일이예요. 아직도 어려운 학생들이 많아요. 이런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면 많은 분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인생에서 후배를 돕는 것만큼 보람된 일이 있겠습니까.”

－ 경제와 경영학이 나뉘진 후 동창회 분리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상에 이질감이 존재하지 않는 집단이 있겠습니까? 조금만 서로 양보하고 노력하면 그런 소위 ‘이질감’은 없어지리라 봅니다. 누가 더 엘리트인지 따지는 것이 동창회가 아니고 동창회를 통해 얼마나

법인화가 됐으니 그런 부탁이 더 많이 들어오겠죠.”

신임 成회장은 1947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1974년 영원무역을 창업해 ‘노스페이스’, ‘영원’, ‘골드윈’, ‘에이글’ 등의 브랜드를 론칭하며 우리나라 아웃도어웨어의 선두그룹으로 성장시켰다. 국내 매출규모는 약 1조2천억원, 직원은 7백명. 방글라데시, 중국, 베트남 등 해외 공장에는 6만여 명의 종업원이 근무 중이다. 서울사대부고동창회장을 역임했으며 한·방글라데시 경제협력위원장, 朴英碩탐험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부인 李善眞(농가정69-73)동문과 사이에 세 자매를 두고 있으며 푸드웰 成耆祥(전자공학62-66)대표가 형이다. 경남 창원 우포늪 10분 거리에 있는 成회장의 고택은 관광지로도 유명하다. 취미로 카메라 수집을 하고 있다.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ASP동창회 林周宰회장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하면서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죠.”
－ ‘譽人造福’이라는 글귀가 눈에 띕니다.

“퇴계 李滉선생의 16대 증손이신 이근필 옹께서 친필로 적어주신 글귀입니다. ‘상대방을 칭찬하거나 사랑하고 명예롭게 하면 내 자신에게 복이 돌아온다’는 뜻이죠. 이 글귀가 참 마음에 와 닿고 우리 공사에도 딱 맞는 모토라 생각이 들어 집무실에 걸어 놔습니다.”

－ 동문문화에 대한 생각은.

“제가 나온 연세대나 서울대는 유사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동창회가 잘 이뤄지고 있는 고려대를 보면 동문들이 처음 만나도 서로 인사하고 나면 바로 형, 동

“일본서 하계 해외연수 계획”

까지 6백90여 명의 회원이 배출됐다. 기수별 모임은 활발하지만 동창회 차원의 활동은 미미한 수준이다. 신임 林회장에 게 활성화 계획을 들어봤다.

－ 먼저 사업 계획을 들려주시죠.

“올해부터는 조찬세미나를 정례화하고 하계 해외연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본에서 2박3일을 함께 지내며 우의도 쌓고 동창회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도 그려보려고요. 지난 회기에 개설된 홈페이지(snuasp.kr)에 많은 동문들이 참여하도록 홍보도 계속해 나가야죠.”

－ ASP과정에 들어오게 된 동기는.

“금융감독원 재직 시절 금융분야의 세계경제 흐름과 업계동향에 대해서 타과정에 비해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 지원하게 됐어요. 수료 후에도 동기들과 매월 둘째 목요일에 오찬을 하면서 우리나라와 세계의 금융경제 상황 등에 대해 이야기

생하고 부르며 친근하게 지내죠. 연세대나 서울대는 만난지 몇 년 됐는데도 서로 말을 놓지 못하고 존칭을 써요. 서로를 배려하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동문으로서의 끈끈한 정을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1953년 경북 안동 출신인 林회장은 계성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한국은행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해 인사과장, 신용감독국 부국장을 역임했으며 1999년 금융감독원으로 옮겨 신용감독국장, 총무국장, 부원장보를 지냈다. 2008년 7월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으로 취임해 28조4천억원 수준이었던 외형규모를 71조2천5백억원으로 끌어올렸다. 취임당시 최하위였던 경영평가도 A등급으로 향상시켰다. 201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준정부기관)에서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南)

화제의 동문

대강양조장 趙在九대표

“4대째 이어온 명품주를 만듭니다”

술에도 명가가 있다. 각 지방을 대표하며 대대로 내려온 장인정신은 뿌리깊은 역사와 전통 속에 지역의 브랜드가 되고, 자부심이 된다. 요즘 술자리에서 대세라는 막걸리 역시 지역마다 저마다의 이름을 자랑하는 명가가 있다. 9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며 충북에서 4대째 내려오고 있는 대강양조장도 그중 한 곳이다.

술맛 좋기로 소문난 양조장에서 태어난 趙在九(산림자원83-90)동문은 가업을 잇기 위해 잘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고향으로 향했다. 술을 한 잔만 마셔도 금세 얼굴이 빨개져 연구용 외에는 절대 술을 마시지 않지만 막걸리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어느 주당 못지 않다는 趙동문을 지난 2월 17일 제전에서 만났다.

‘청와대 만찬주’로 유명세 떨쳐

趙동문은 언제나 ‘술’ 생각뿐이다. 흑마늘 막걸리, 복분자 와인, 쌀과 황기로 만든 소주 등 그의 머릿속은 항상 새로운 상품에 대한 아이디어로 넘친다. 특히 하루 1천 병이 팔린다는 ‘검은콩막걸리’는 국내 특허까지 낸 그의 히트상품이다. 2년 전부터는 ‘세상의 모든 술을 다 만들어보자’는 야심찬 계획 아래 제전에 현대식 시설의 공장까지 지었다. 이곳에서 그는 국내 최초로 ‘쌀 맥주’를 개발했고, 현재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맥주는 맥아가 아닌 쌀을 주재료로 한 게 특징이다.

“우리나라 맥주의 맛이 천편일률적이잖아요. 그래서 수입 맥주에 많이 밀리는 상황이고요. 외국의 경우 알콜 도수에 따라 하드비어와 소프트비어로 나뉘는데 우리나라는 모두 소프트비어죠. 비슷한 상품으로 기존의 맥주 회사들과 경쟁하는 건 아무래도 무리가 있으니 알콜 도수를 8도 정도로

해서 하드비어를 개발했어요. 말하자면 틈새 시장을 노린 건데 소비자들은 기호에 맞게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 좋고, 농민들은 쌀 소비가 촉진되니 일석이조죠.”

이외에도 막걸리에 함유된 비타민B2 성분이 피부미용에 좋다는 점에 착안해 화장품 벤처 회사를 하는 친구와 함께 막걸리 천연 화장품 개발을 고려 중이고, 막걸리 식초도 개발해보고 싶다고 했다. “할 건 많은데 능력이 없어 다 못할 것 같다”는 게 걱정이라면 걱정이다.

趙동문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양조장을 맡은 것은 IMF로 모두가 힘들어하던 1998년이였다. 당시 ‘한진’에서 8년 간 근무하던 그는 부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업을 위해 고향으로 향했다. 2남2녀 중 장남이라 어릴 때부터 가업을 물려받아야 한다는 의식이 강했고, 남동생이 의사라 자신이 아니면 가업을 이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막상 고향에 내려오긴 했지만 처음에는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서울에 있는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규모가 작은 회사다보니 영업과 생산, 연구까지 도맡아야 했다. 여기다 주위의 부정적인 시선 또한 그를 힘들게 했다. “제가 이쪽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하니 친구들 모두 대기업에 다니다 왜 그런 걸 하나, 요즘에는 다들 와인을 먹지 누가 막걸리를 먹느냐며 말이 많았어요. 내 주변 사람 중에 80% 정도는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는 결심을 바꾸지 않았다. 성공할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 막걸리가 지명도가 있고 맛이 좋으니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더욱이 막걸리는 우리 민족이 5천년 넘게 마셔온 술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의 피와 뼈에는 막걸리 DNA가 있는데 막걸리 사업이 쉽게



망할 일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최근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까지 막걸리 붐이 일자 부정적이었던 시선은 금세 부러움으로 바뀌었다. 얼마 전 한 소비자로부터 ‘명품주’를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전화를 받고 무척 기뻐했다는 그는 “바쁘지만 행복하다”고 말했다.

총동창회 행사에 막걸리 협찬

충북 안에서 맛있기로 소문난 술이었던 ‘대강막걸리’가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5년 盧武鉉 前대통령이 농촌 체험을 위해 단양을 방문하면서부터다. “당시 이장님이 양조장에 와서 며칠 후에 높은 분이 오시니까 술을 잘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높은 분이라길래 군수나 도지사 정도라고 생각했지 대통령일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날 저녁 뉴스에 대통령 이하 농림부 장관과 각 기관장들이 우리 막걸리로 건배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어요.”

이후에는 청와대에 정식으로 막걸리를 납품하며 ‘청와대 만찬주’로 유명세를 떨쳤다. 당연히 매출도 늘었다. 지금은 CJ와 연계해 전국의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고 있고, 지난해부터는

일본으로도 수출하고 있다. 대기업이 아닌, 지역 양조장이 이룬 성과이기에 더욱 의미가 컸다.

평소에도 뭔가에 도전하길 좋아한다는 그는 모교 재학시절 학생운동으로 학사 경고를 받기도 했고, 동아리 ‘야생조류연구회’의 활동으로 겨울 방학 때마다 통통배를 타고 여러 섬을 다니며 야생 조류를 연구하기도 했다.

학교에 대한 추억이 많아서일까, 그는 총동창회 행사에도 협찬을 많이 하

는 편이다. 2005년 ‘흙커밍데이 겸 서울대 가족 친목 등산대회’를 시작으로 신년교례회, 정기총회 등 많은 행사에 막걸리를 협찬했다. “살면서 모교 덕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는 학교에 보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죠. 좀더 목표를 낸다면 산학연구로 ‘서울대 막걸리’를 개발해보고 싶어요.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 전액은 모교 발전기금으로 내고요. 만약 잘 되면 서울대에 또 하나의 브랜드가 생기는 거니 좋잖아요.”

앞으로 그의 목표는 ‘문화가 있는 술을 만드는 것’과 ‘대한민국 상위 1%의 엘리트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외국처럼 술만 가지고서도 축제를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은 술을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바람이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봉사하며 살겠다는 것은 국가에서 혜택을 받은 만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서울대인으로서의 바람이다.

“앞으로 회사를 좀더 키워 지금보다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제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 회사가 대기업도 아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려고 해요. 그게 서울대인으로서 국가에 보답하는 길인 것 같아요.”

(智)

“고위공직자 부패방지 강화에 초점 맞춰”

동문을 찾아서

金 英 蘭 국민권익위원장

을 1월 국민권익위원장에 취임한 金 英蘭(법학75-79)동문. 그는 40대 끝 자락에 사법사상 여성 첫 대법관에 올랐다. 30년 가까운 법관 재직 중 소신 판결과 타고난 균형감각으로 일찍부터 주목을 받아왔다. 金동문은 대법관 퇴임 직후엔 대학 교수직을 선택했다. 전 관예우 시비에서 자유롭고 싶었을까. 그의 처신은 법조계 안팎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金위원장을 2월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집무실에서 만났다. 소박한 회색 정장을 입고 필자를 맞이한 그의 눈빛은 온화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가치로서 ‘신뢰 자본’의 중요성과 서울대 동문들이 숭선수범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거듭 강조하는 그의 말에선 단단함이 느껴졌다. 차분한 어조로 담담하게 말하는 그에게선 外柔內剛의 면모가 풍겼다.



대 담 : 崔 英 勳(동아일보 스탠더드에디터)는설위원

－ 위원장직을 제의받았을 때 여러 번 고사하신 것으로 압니다.

“관사 경험밖에 없어 리더십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부적격하다고 생각했어요. 계속 제안을 받고 사양했는데, 계속해서 못하겠다고 말하기 어렵더군요. 널리 사람을 써서 좀 더 잘해보겠다는데 저만 빼달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권익위가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며 비판하는 곳이라면 내가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심했죠.”

－ 부군인 姜智遠변호사와 상의를 하셨죠.

“남편은 적극적이었어요. ‘왜, 사람이 자기 체면만 챙기려 하느냐. 정말 필요해서 도와달라는데 응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정치에 문외한이고 권력 욕심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해도 좋다는 것이었어요. 명분도 없고 더 이상 고집을 못 피우겠더군요.”

－ 포부라면….

“권익위가 일종의 ‘옴부즈맨’이잖아요. 행정감시, 부패감시 등 옴부즈맨 기능을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 생각이세요.

“저도 저를 시험대에 올려놓은 상태예요. 사실 그동안 해왔던 관사업무와는 리더십의 성격이 다르잖아요. 처음 해보는 거니까 배우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 직원들이 몇 명이죠.

“5백40명 정도됩니다.”

－ 3개 기관을 합친 거죠.

“네, 그 외에 콜센터 직원이 1백10명 정도 있어요.”

－ 권익위가 3년 됐죠? 李在五 前위원장은 부패방지에 콘셉트를 맞췄다고 볼 수 있나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분이 굉장히 성적이 정열적이라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고충업무도 열심히 하셨죠.”

－ ‘金英蘭표’ 권익위는 어떤 모습일까요.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방지 의식 강화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요. 고위공직자들은 숭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또 권익위를 통합시키는 일에 중점을 두

려고요. 권익위가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現중앙행정심판위원회) 기능이 합쳐진 거잖아요. 밖에서 보기엔 여전히 이질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념적으로 통합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옴부즈맨으로서 세 가지 역할이 합쳐져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절차적으로도 행정심판 청구서를 접수하려 왔을 때 고충처리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거기서 보내 최선의 방법이 없는지 찾아주고, 행정심판이 기각되면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부패신고로 왔는데 고충처리에 가까우면 그렇게 처리해주고요.”

－ 부패방지를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계획은.

“고위공직자들의 뇌물수수 부패는 많이 줄었지만 연고주의 문화에 따른 폐단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40대 나이에 여성 첫 대법관에 임명

“세계여성판사회의 개최 기억에 남아”

전혀 많이 남아 있어요. 서로 잘 모르는 사람은 진입부터 차단되는 경우가 많죠. 개선을 위해 뭔가 대책이 필요한데 어려운 부분입니다. 국민들에게 의식을 바꿔야만 한다고 말하는 게 충분한 것인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 공직자들의 재량권을 축소하는 것은 어떻게 보세요.

“신뢰가 확보되면 재량권을 넓혀갈 수 있는데 우리의 사회적 자본이 OECD 평균보다 낮다보니 재량권을 축소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죠. 선진행정은 아니죠.”

－ 방안을 차차 만들어가야죠.

“그래서 만든 게 규제형평제도죠.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딱 1m로 선을 그어 놔는데 어떤 사람이 1.1m 정도이고 여러 정황을 봐서 허가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는 제도죠. 행정부에서는 형평성 문제로 재량을 발휘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권익

• 金위원장은

1956년 부산에서 태어나 경기여고와 모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문학을 좋아해 대학교 1학년 때 쓴 단편소설이 교지에 실리기도 했다.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1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1983년에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 후 서울가정법원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산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활동했다. 1993년부터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다 1998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1999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2001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03년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2004년 崔鍾泳대법원장에 의해 대법관에 제청됐다. 2010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에 임명됐으며 그 해 청조근정훈장을 수훈했다. 가족 가운데 남편(姜智遠 정치68-72 변호사)과 남동생(金紋奭 법학77-81 서울고법 부장판사), 여동생(金石蘭 기약80-84 명지전문대 음악과 교수)이 동문이다.

위가 맡아 제도를 만들었어요.”

－ 얼마 전 기자간담회에서 전관예우에

대해 말씀하시다 곤혹을 치르셨는데.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앞뒤 정황에 대한 설명 없이 ‘전관예우는 없어야 한다’는 부분만 강조돼 좀 곤란했죠. 정말 큰 문제는 전관예우가 있다는 인식 자체거든요. 그런 인식이 사회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쳐요.

많은 경우 전직 판사, 검사가 변호사 개업을 하면 전관예우를 의식해 사건이 몰려옵니다. 전관인 변호사가 ‘나는 전관예우를 절대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안 맡는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판사와 접촉을 하지 않고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해도 사람들은 전관예우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개업 시 퇴임 전에 근무했던 법원의 일은 상당기간 수입 못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인데, 만약 그 법안이 통과되면 전관예우란 말이 없어질지 법조계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없어지지 않을

거란 대답이 대부분이에요.

또 미국 연방법관처럼 종신제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취업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지 않느냐는 반론도 나와요. 한국적인 모델은 뭘까 고심하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한 건데 기사 제목이 조금 자극적으로 나갔어요.”

－ 결국 신뢰 자본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심을 받는다는 것은… 저도 속앓이였지만, 관·검사 집단 스스로가 그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강제로라도 일정기간 취업금지를? 그게 참….”

－ 가족한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래도 가능하다면 오랫동안 공직에서 일한 사람은 그곳에서 습득한 지식과 노하우를 돈 버는 데만 써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를 해도 전관예우를 바라는 부패사건보다는 공익에 기여하는 사건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이 모든 것이 개인의 선택이지 제도적으로 막기엔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 대법관 시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가 가장 힘들었나요.

“전원합의가 가장 힘들면서 가장 재미있었어요. 팽팽하게 대립되면 합의가 재미있는데, 그 의견의 집필자가 되면 굉장히 괴로워집니다.”



사회 신뢰도 높이는데 동문들이 선봉장돼주길



— 독해를 계속 하죠? 몇 번까지 써보셨어요.

“상당히 많이 써본 편입니다. 다수의 견, 반대의견, 별개의견, 보충의견. 여러 번 수정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주말에도 나와 일해야 하는 날이 많았어요. 李容勳(법학59-63)대법원장님도 열심히 읽어보시거든요.”

— 대법원장이 꼼꼼하게 읽어보시나 봐요.

“그렇죠. 읽어보는 정도가 아니라 안건, 전원합의도 완전히 파악하시고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해주세요. 결론을 이끌어내야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토론이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한 사람씩 의견을 물어봅니다.”

— 기억에 남는 판결은.

“좋은 판결로는 여성 종중원 판결이나 강익석 군 판결이고요. 재미있는 판결로는 제사 주재자로 아들에게 우선권을 준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저는 반대 의견자였지만, 梁彰洙(법학70-74)·安大熙(행정73입)대법관의 의견이 명문이어서 무척 기억에 남습니다. 활동 중에는 2010년 세계여성판사회의를 개최한 일을 꼽고 싶네요.”

— 그런 행사가 있었나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안 했어요. 본부에서 이슬람 지역출신 등 판사들의 사정을 고려해 양해를 구한 것도 있고 당시 ‘천안함 사건’ 직후라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어요.

원래 유럽에서 할 차례였는데, 2007년 유치 당시 우리가 종중원 판결과 호주제 관련해 적극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열렬한 호응을 이끌어냈죠. 하지만 준비과정에서 대회 예산이 삭감되고 후원금도 모금을 못해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영국의 유일한 여성대법관 등 3백50여명의 내빈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외국의 오피니언 리더인 판사들에게 한국의 사법부를 알리고 우리나라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 민감한 질문인데, 개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이야기는 공직을 그만 둔 뒤에 하죠.”

—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로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姜변호사는 호남 분이시고 위원장님은 영남 분이신데 살아보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런 게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나 남편이나 모두 초등학교 때부터 서울에서 생활을 해서 영·호남을 의식하고 살지는 않았어요. 문제도 없었고, 의외로 문화도 비슷하고요. 따뜻한 지역이라 음식 간도 잘 맞았습니다.”

— 커리어우먼으로 시부모도 모시고 자녀들 양육하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요즘은 시부모와 따로 사는 가구가 많다고요. 그렇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꼭 그렇지 않은데요. 우리 세대만 해도 형제 중에 어느 한 사람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잖아요? 위에 형님 두 분이 외국에 계서

서 우리가 모실 수밖에 없었어요. 일하는 며느리다보니 시부모님 보시기에 부족한 점도 많았을 거예요. 끌려가는 게 다행이다 싶은 정도로 끌려간 거죠. 저만 특별하게 고생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 부군께서는 집안 일을 잘 도와주셨나요.

“결혼 후 큰 애가 초등학교에 갈 무렵 아버지께서 치매 증상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버지 방에 가서 같이 생활을 하더라고요. 아버님을 돕는 일은 남편이 거의 다 했어요. 그 전에도 자기가 챙겨야 할 일은 알아서 했어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남편이 나서서 하기에 한계가 있었지만 도와줄 수 있는 선까지는 모두 도와줬던 것 같아요. 맞벌이하는 후배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살다보면 어려운 시기가 있는데 그리 길지 않으니 그 시기만 슬기롭게 대처하라’고요.”

— 대안학교를 다녔던 따님들은 뭘 하냐요.

“첫째는 외국에서 취



“전관예우 문제, 판·검사 노력 필요”

대학 1년때 단편소설 쓰기도 한 ‘문학소녀’

업 중이고, 둘째는 영화를 전공하고 있어요. 두 개의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요. 자기도 만들지만 남의 작업에 스태프로 참여해 서로 품앗이하더라고요. 열심히 재미있게 하는데 작업으로 하기에 어려움은 없을지 조금 걱정도 됩니다.”

— 康錦實 前법무부 장관, 趙培淑국회의원과는 경기여고 시절에도 친했나요.

“친했죠. 서울대 생명과학부 盧貞惠(미생물75-79)교수도 있고요.”

— 최근에 뵈 적이 있나요.

“대법관 그만두고 康 前장관과 趙의원을 다른 동기들과 함께 만난 적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만나지는 못하고요.”

— 학창시절 단편소설도 쓰시는 등 글 쓰시는 걸 좋아한 걸로 아는데.

“지금은 판결문이나 잘 쓰죠. 글 쓰는 능력이 계속 축적돼야 하잖아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재주가 아니니 문학적인 글을 쓰는 데는 어려움을 느껴요.”

— SF소설, 만화 등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는다고 들었어요.

“SF는 현재 처한 사회를 비판하는 기제 같아요. ‘외삽’한다고 하죠. 다른 차원에서 우리 사회를 볼 수 있게 해주니까 그게 재미있더라고요.”

— 진보와 보수, 어느 쪽이신가요.

“나눠서 생각해본 적은 없어요. 대법원 판결도 어떤 때는 보수 쪽, 어떤 때는 저 혼자 진보적인 견해로 나가 독자 의견을 쓴 적도 있고요. 진보나 보수보다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비전의 관점에서 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 우리의 진보, 보수는 달을 수 없는 평행선을 가는 듯 합니다.

“어떤 쟁점에서 대립한다고 했을 때 대립하는 요소를 뽑아내고 토론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청문회 당시 국가보안법 개정 논쟁을 많이 물어보실 때도 ‘국가보안

법이나, 형법이나 등 형식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양쪽에서 문제되는 것을 추출해내서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죠. 다만 국가보안법이란 용어 자체가 진보 진영 측에는 과거에 상처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면서 해야죠. 폐지가 절대적으로 옳은가, 유지가 절대적으로 옳은가는 지금도 잘 모르겠다는 답변밖에 드릴 말씀이 없어요.”

— 법조계에 여성 후배들이 많아졌습니까. 조언을 해주신다면.

“여성 후배뿐 아니라 모든 법조계 후배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사법연수원에서 강의를 하다보면 공부 잘해서 안정적인 직업이니까 별로 고민 안 하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후배들에게 물어봐요. ‘왜 법조인이 되려고 하느냐, 법조인은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평범한 질문이지만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늘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 위원장직을 마치면 다시 서강대로 돌아가시겠네요.

“네. 강의 준비하면서 평화로웠던 그 몇 달이 그립습니다(웃음).”

— 로스쿨제도가 성공할까요.

“성공하도록 만들어야죠. 오늘도 간부들과 우리 사회의 부패인식지수(CPI)를 올리는 것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작년에 특례채용이 많이 문제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4지선다형 시험만 봐서 뽑는 것 외에 특례채용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단계에 와 있지만 신뢰도가 못 따라가서 어려운 부분이 많죠. 어떤 측면에서 로스쿨은 특례채용과 비슷한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것과 로스쿨의 성공이 함께 가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동창회가 모교 개교 원년 찾기 사업을 통해 개학연도를 1895년으로 복원시켰고, 장학빌딩을 완공해 모교 지원을 획기적으로 증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창회나 동문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모교 평의원에서 林光洙회장님을 뵈고, 여기 와서도 몇 번 뵈었어요. 대단하신 분이세요. 회장님 건물에 위원회가 있다보니 여러 가지 부탁드릴 일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흔쾌히 들어주시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가장 강조하는 말이 선수법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서울대 동문들은 정말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선수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주셨지만 사회지도층으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헌신해주신다면 우리 사회의 신뢰도가 훌쩍 높아지리라 믿습니다. 선봉장 역할을 우리 동문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동창회보라서 부탁드립니다(말씀입니다).”

—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사진·정리= 金南柱기자)

吳然天총장 식사 〈요지〉

오늘 여러분이 교문을 나서게 되는 서울대학교는 격동의 현대사를 헤쳐 나오면서 사회 각 분야에 수많은 인재들을 양성해 왔습니다.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우뚝 솟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한 때 전세계로부터 도움을 받은 나라가 이제 어려운 나라들을 돕게 된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는 곧 서울대학교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맥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쌓아놓은 서울대학교의 값진 전통은 졸업생 여러분들에 의해 앞으로도 면면히 이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웅비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은 창조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대학, 대학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대학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위상과 역할에 안주하거나 만족해서는 대학이 희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희망의 중심부에 바로 여러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왕성한 창의력과 불확실성을 헤쳐 나갈 용기는 미래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세계 정치·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하는 아시아의 지식 허브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대학이 창조한 지식과 가치는 현장과 일상 속에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며, 한국의 대학공동체를 포함한 주변 환경과 유연하게 共有될 때 선순환의 창조적 진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영향력을 확대하고, 기득권을 향유하는 외형적 명성에 안주하는 대학인은 더 이상 새로운 가치 창조의 주역이 될 수 없습니다. 경쟁은 소명과 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체질을 강화하는 순기능일 뿐입니다. 우리 대학인들은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고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라가 있고 대학이 있다’는 믿음을 더욱 실천해야 합니다.

이제 서울대학교는 미래지향적 전환과 혁신을 위한 소중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는 ‘자율과 책임’을 핵심 정신으로 하는 서울대학교를 실천적 지성의 전당으로 만드는 출발점이 돼야 합니다. 학문적 가치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참된 인재를 각계각층에 더 많이 배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해 대학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林光洙동창회장 축사 〈요지〉

이제 졸업생 여러분은 지난 수년간 익숙해있었던 모교를 떠나 학교 밖 현실 사회로 나갑니다. 아시아는 물론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여러분은 이 나라와 이 세계가 인정하고 환영할 글로벌 인재들입니다. 그러한 인정과 환영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은 지금의 성취에 안주하지 말고 더욱 더 자기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졸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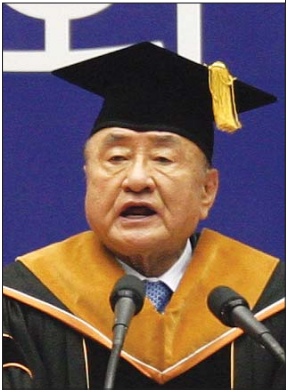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남과 경쟁해야 하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이런 냉엄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꿈을 위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카네기의 말처럼 기회는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는 자만이 기회를 갖고 정진하여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민약 여러분에게 성취하고자 희망하는 것이 있다면 도전하기를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국전쟁 직후 1인당 국민소득이 70불에 불과하고 부존자원이 별로 없는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2만불을 초과하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불굴의 도전 정신을 가지고 노력해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세계가 놀란 국가 발전 뒤에는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반드시 세계 정상에 오르겠다는 굳은 집념으로 묵묵히 자기 소신을 다한 여러분들의 선배 서울대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더욱 정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의 엘리트로서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갈 여러분이 곧 우리나라의 희망이고, 경쟁력입니다. 여러분이 세계 어느 곳에서 일을 하든지 여러분보다 뒤쳐진 사람들, 소외된 이웃을 항상 먼저 생각하는 가슴 따뜻한 엘리트가 돼주기를 바랍니다.

서울대 동문이 됐다는 것은 보다 큰 대의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해야 하는 무한책임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발전은 모교와 33만 동문의 명예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더 큰 비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서울대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졸업식 ... 동창회 입회를 환영합니다

제65회 학위수여식

吳총장 “자기혁신의 노력 경주하길”



모교 소식

모교(총장 吳然天)는 지난 2월 25일 오후 2시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제65회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본회 林光洙 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孔大植·姜寅求부회장, 金鳳九미대동창회장을 비롯해 모교 權壽赫·李賢宰·趙完圭·鮮于仲皓 前총장과 吳然天 총장, 보직교수, 학부모 등 1만여 명이 참석했다.

金泓鍾교무처장의 학사보고에 이어 박사 5백62명, 석사 1천6백25명, 학사 2천7백79명 등 총 4

천9백66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吳然天총장은 식사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웅비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은 창조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대학과 대학인이라 믿는다”며 “여러분의 왕성한 창의력과 불확실성을 헤쳐 나갈 용기는 미래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에서 졸업생들에게 “아시아는 물론 세계 무대로 활약할 여러분은 이 나라와 세계가 인정하고 환영할 글로벌 인재”라며 “지금의 성취에 안주하지 말고 더욱 더 자기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격려했다. 〈식사·축사 요지 참조〉

이여 음대 徐慧妍(성악82-86)교수가 이거스틴 라파 작곡의 ‘그라나다’를 축가로 선사했으며, 졸업생을 대표해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張有善양이 답사를 했다.

인문대학 영문학과 김매리 양 등 16명이 각 단과대학 최우수 졸업의 영예를 차지했으며 외국인 졸업생은 학사 23명, 석사 38명, 박사 83명 등 총 1백44명이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1964년 ‘6·3 학생운동’을 주도하다 제적돼 졸업하지 못한 金道鉉(정치61입)동문이 졸업장을 받았다.

각 단과대학별 총장상과 동창회장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인문대 : 김매리- 이재경 ▲사회대 : 손준우- 강효석 ▲자연대 : 김민지- 최성민 ▲간호대 : 김다은- 김규리 ▲경영대 : 양태용- 이병훈 ▲공대 : 임선민- 박진욱 ▲농생대 : 장유선- 서 영 ▲미대 : 박신영- 고상현 ▲법대 : 송연창- 최승훈 ▲사대 : 이진실- 나경진 ▲생활대 : 나혜림- 고수연 ▲수의대 : 임재철- 김민규 ▲약대 : 이재영- 홍수현 ▲음대 : 이지은- 지유경 ▲의대 : 육정환- 유영진 ▲치대원 : 정수희- 박현묵 〈榮〉

단과대학(원)별 회원현황

구 분	2월 졸업	총회원
인 문 대 학	176	11,236
사 회 과 학 대 학	291	14,928
자 연 과 학 대 학	210	11,131
간 호 대 학	41	3,510
경 영 대 학	155	7,088
공 과 대 학	676	43,882
농업생명대학	249	21,183
문 리 과 대 학	—	9,731
미 술 대 학	105	5,412
법 과 대 학	219	16,525
사 범 대 학	204	26,238
상 과 대 학	—	6,723
생활과학대학	80	4,224
수 의 과 대 학	45	2,334
약 학 대 학	75	6,267
음 악 대 학	111	7,672
의 과 대 학	142	11,494
치 과 대 학	—	6,049
대 학 원	1,796	90,667
경 영 대 학 원	—	701
교 육 대 학 원	—	653
국 제 대 학 원	54	633
보 건 대 학 원	49	3,395
사 법 대 학 원	—	508
신 문 대 학 원	—	264
행 정 대 학 원	58	4,484
환 경 대 학 원	50	2,623
지 의 학 대 학 원	86	253
융합과학대학원	12	14
경영전문대학원	80	362
법학전문대학원	2	2
소 계	4,966	320,186
준 회 원	—	13,338
(특 별 과 정)	560	18,873
총 계	5,526	352,397



‘참여·축제·감동’ 졸업식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졸업생들이 식장에 불참하는 그 동안의 관례를 깨기 위해 ‘참여·축제·감동’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먼저 행사 1시간 전부터 모교 기악과 金泳律(기악76-80)교수가 지휘하는 ‘SNU WIND 앙상블’이 졸업생을 축하하는 공연을 시작했다.

이여 요즘 청소년들의 멘토로 주목받고 있는 소비자동학부 金蘭都(사법82-86)교수가 ‘너의 계절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준비해 졸업생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2부 순서인 학위수여식에서는 40여 명의 교수로 구성된 ‘SNU

Faculty 합창단’이 특별히 이번 졸업식을 위해 준비한 ‘Morning has broken’과 인기 그룹 2AM의 ‘죽어도 못 보내’를 열창해 참석자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故 이용준 군

이밖에도 지난해 탄자니아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숨진 이용준(건축06입)군을 위해 제작한 동영상 상영하고 특별순서로 故 이용준 군의 동생 이상준 군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했다.

입학식 ... 서울대인 출발을 축하합니다

“지적 호기심·상상력 갖고 도전하라”

본회서 신입생 전원에게 도서 선물



모교는 지난 3월 2일 오전 11시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吳然天총장, 보직교수를 비롯해 본회 孫一根상임부회장, 洪性大 부회장, 신앙문화재단 鄭哲圭이사장, 학부모 등 1만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학년도 입학식을 거행했다.

金泓鍾교무처장은 학사보고를 통해 “학부생 3천2백89명, 석·박사 3천6백16명 등 2011년 학사과정과 대학원과정 신입생은 6천9백5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鄭伍玲영이 신입생을 대표해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학적을 준수하며 학문과 인격도야에 정진하겠다”고 선서를 했다.

吳然天총장은 주요 내·외빈 소개를 마친 후 식사를 통해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의 빛나는 눈빛에서 서울대의 희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본다”며 “왕성한 지적 호기심과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상상력을 갖고 우리 앞에 놓인 근본적인 문제들에 진취적으로 도전하라”고 신입생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신입생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이웃과 공동체뿐 아니라 인류의 미래까지도 고민할 수 있는 서울대생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KAIST 安哲秀(의학80-86)석좌교수가 축사에서 신입생들에게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 가지 마음가짐을 설명하며 “열린 마음과 긍정적인 자세, 지금의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의 태도를 갖고 귀한 학창시절을 보람있게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40여 명의 교수로 구성된 ‘SNU Faculty 합창단’이 특별히 입학식을 위해 준비한 ‘Morning has broken’과 ‘마법의 성’을 열창했으며 참석자들의 앵콜로 인기 그룹 2AM의 ‘죽어도 못 보내’를 불렀다.

올해도 다양한 신입생이 눈길을 끈 가운데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뺑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한 이 진(간호학과)양과 척수성 근위축증이라는 희귀병을 앓는 김찬기(사회과학계열)군이 당당히 모교에 입학해 화제가 됐다.

한편 본회(회장 林光洙)는 모교 경제학부 李榮薰(경제70-78)교수가 집필한 도서 ‘대한민국 이야기’를 신입생 전원에게 선물했다.



모교 병원 발전후원회

기부문화 정착 위한 ‘감사의 밤’

모교 병원 발전후원회(회장 姜信浩 본회 고문)는 기부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사회 각계각층에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2월 23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11 발전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李明博대통령의 부인 金潤玉여사를 비롯해 모교 權舜赫 前총장, 吳然天총장, 丁憲源병원장, 任廷基의대학장, 羅卿瑗국회의원 등 후원회원과 발전후원회 이사, 병원 주요 보직자 등 3백50여 명이 참석했다.

姜회장은 “후원회원 여러분의 도움들이 모여 병원의 각종 사업과 공공의료의 실천, 난치성질환 연구비 등으로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직원, 회원,

동문, 후원회 임원 여러분의 소중한 정성을 모아 병원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丁憲源병원장은 “회원들이 보내 주신 관심과 정성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서울대병원은 대한민국의료를 대표하는 국가병원으로서 더 많은 공공의료 실천과 수준 높은 연구 성과로 후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5년 1월 교육 연구 진료 및 불우환자 지원, 국민보건향상 등을 목적으로 발족된 발전후원회는 지난해 1백11억원의 발전후원금을 모금했다. 발족 이후 5백39억원의 후원금이 접수됐으며 이 기금은 저소득층 환자치료기금, 공공의료 사업기금, 연구교육비 등으로 사용된다.

모교 발전기금 장학금 수여

3백91명에 9억7천여만원 전달



모교 발전기금(이사장 吳然天)은 지난 2월 24일 관악캠퍼스 연구공원 본관에서 2011년 1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발전기금은 지난 2007년 2학기부터 기부자와 장학생간의 ‘아름다운 만남’을 주제로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해 오고 있다. 올해는 약 2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번 학기에는 3백91명에게 9억7천8백3만원을 수여했다.

俞靜雅(사회85-89)동문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 모교 吳然天총장은 “후원자 여러분의 사랑이 보다 큰 과실을 얻을 수 있도록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며 장학생들에게는 “더욱 학업에 매진해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 가꾸는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具在書장학기금’의 기부자인 具在書씨는 격려사에서 “경

제적 사정이 어려워 학업에 전념할 수 없는 학생들의 걱정을 덜어주게 된 것 같아 기쁘다”며 “여기에 모인 학생들의 열정에 가득 찬 눈을 보니 우리나라의 밝은 앞날이 보이는 듯 하다”고 말했다.

각 기금별로 장학증서 전달식을 마친 후 李예슬(건축09입)양이 장학생을 대표해 감사의 뜻이 담긴 답사를 했다.

2부 만찬에서는 장학생들은 직접 쓴 감사 편지를 출연자에게 전달했으며, 모교 아가펠라동아리 ‘인스트루’는 공연을 통해 기부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장학생들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모교 吳然天총장, 金泓鍾교무처장, 南益鉉기획처장, 발전기금 李明哲부이사장·金炯周상임이사를 비롯해 기부자와 가족 등 2백여 명이 참석했다. (榮)

한대원장에 李道元교수

지난 2월 21일 모교 환경대학원에 환경계획학과 李道元(식물71-78)교수(사진)를 선임했다.



신임李원장은 1982년 모교 환경대학원에서 석사학위, 1987년 미국 버지니아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수의대 柳判童학장 선임

지난 3월 1일 모교 수의과대학 학장에 수의학과 柳判童(수의학75-79)교수(사진)를 선임했다.



신임柳학장은 1983년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1989년 미국 아이오와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李性輝교수 등 24명 퇴임 “노고에 감사합니다”

지난 2월 28일 관악캠퍼스 문화관 중강당에서 교수 24명의 정년·명예퇴임식이 열렸다.

정년을 맞은 교수 명단은 다음과 같다.

李性輝(경제학)교수, 金正午(심리학)교수, 全鍾甲(지구환경과학)교수, 方亨燦(물리천문학)교수, 蘇光燮(물리천문학)교수, 金煥(재료공학)교수, 李冕雨(산업공학)교수, 張昌斗(조선해양공학)교수, 洪相憲(원자핵공학)교수,

李相冕(법학)교수, 張貞翼(작곡)교수, 延敬模(의학)교수, 李健旭(의학)교수, 李鎭學(의학)교수, 鄭明熙(의학)교수, 金丁勳(환경계획학)교수, 梁在鎬(치의학)교수, 張英一(치의학)교수, 鄭鍾平(치의학)교수.

한편 李成圭(동양사학)교수, 洪鍾培(물리천문학)교수, 高光浩(약학)교수, 趙普衍(의학)교수가 명예퇴직했으며, 朴昌浩(건설환경공학)교수가 의원면직했다.

스승의 은혜 보답한 제자들 ‘李賢宰교수 장학기금’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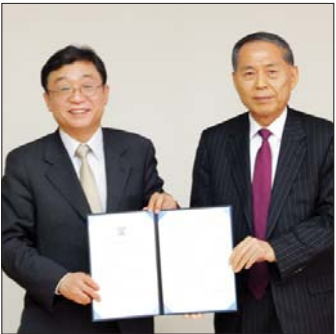
吳然天총장·李賢宰명예교수

모교 총장, 국무총리를 지낸 경제학부 李賢宰(경제48-53)명예교수의 제자들이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지난 1월 28일 모교 발전기금에 3억원을 출연했다. 제자들은 李명예교수의 강단 50년을 기념하고 존경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제16대 총장 李賢宰교수 장학기금’을 설립했다. 이 장학금은 한 학기에 5명씩 모교 재학생 중 학비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선정해 지급된다.

李명예교수는 협약식에서 “제자들이 뜻깊은 기금을 마련해 준 것에 감사하다”며 “짧은 학생들이 진정한 인재로 거듭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기금의 뜻이 캠퍼스 내에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장학기금은 평소 李명예교수가 회갑·칠순·팔순 등 수연을 일절 사양해 온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30여 명의 제자들이 단시일에 기금을 모아 조성했다. 발전기금은 기부자인 제자들의 뜻에 따라 제자들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李명예교수는 1961년 모교 경제학과 교수로 부임해 1983~1985년 모교 총장, 1988년 국무총리, 1997년 호암재단 이사장, 2001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現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국민훈장 무궁화장, 제17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등을 수상했다.

천재교육 崔容準회장 학술장학기금으로 20억 쾌척

천재교육 崔容準(수학교육61-65)회장이 지난 2월 8일 ‘천재교육 학술장학기금’으로 모교에 20억원을 쾌척했다. 이번 기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범대 재학생을 위한 장학기금(15억원)과 모교 발전을 위한 전략기금(5억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崔회장은 어렵게 대학을 다닌 경험을 떠올리며 “기부를 통해 오히려 후배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며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해 또 다른 기부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교 졸업 후 崔회장은 학원강사로 일하면서 쌓은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1974년 ‘해법수학’을 집필하고, 1981년 천재교육을 설립해 3천여 종의 학습교재를 출간하는 등 우리나라 교육 출판 전문



吳然天총장·崔容準회장

기업으로 일궈냈다. 崔회장은 1986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사범대에 장학금을 지원해 왔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유니세프 등 각종 공공기관을 후원하며 다양한 사회환원 활동을 하고 있다. 1997년 문화체육부 장관 표창, 2009년 국민훈장 석류장, 대한민국 글로벌 경영인대상(교육부문) 등을 수상했다.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과 예술’ 강좌

지난 2월 21~22일 모교 관악캠퍼스 대강당에서 자연과학대학(학장 金明煥)과 한국일보사가 공동주최하고 포스코가 협찬한 ‘청소년을 위한 제18회 자연과학 공개강연’이 열렸다. 이 강연은 매년 겨울방학마다 자연대에서 청소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알기 쉽게 과학을 해설하는 공개 강좌로 많은 사람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자연과학과 예술의 만남’을 주제로 열린 이번 강연에는 중·고생 및 일반인 1천8백여 명이 가족이나 학교단위로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프로그램은 모교 물리천문학부 金濟琬(물리54-58)명예교수의 ‘피카소, 아이슈타인 3.0’ 강좌를 비롯한 5개의 강연과 학생들이 직접 참여한 퀴즈시간으로 진행됐으며, 이틀간 모든 강연을 수강한 학생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했다. (榮)

제학생의 소리



봄·가을 서예전 보러오세요

안녕하세요. 書藝會 회장을 맡고 있는 李健永입니다. 국내, 해외에 거주하시는 수많은 동문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학교에 입학한지 이제 2년 되었습니다만, 이 학교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수업을 들으면서, 배우고 느낀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보다 더 오랜 시간 학교에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직도 배울 것이 너무나 많은 부족한 저이지만, 그래도 회원들의 신뢰에 힘입어 미력하나마 현재 서예회 회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서예회는 약 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동아리이며, 서예회를 거쳐간 선배님들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저희 회원들은 외부에서 오신 선생님에게 지도를 받으며 회원들이 매주 한 번씩 모여서 글을 쓰는 시간을 가지고, 연습이 끝나면 그날 같이 연습한 사람들끼리 모여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도 가집니다.

저희는 문화관에서 봄과 가을에 전시전을 여는데 회원들은 전시전 전까지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해 작품을 전시하게 됩니다. 여태까지 총 74번의 전시전을 열었으며, 그때마다 회원의 작품들은 물론 선생님의 작품, 졸업하

리고 한동안 세워지지 못했던 학생회도 이번에 세워져서 이제 더욱더 활발한 서울대학교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예회도 뜻뜻한 새내기들과 함께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새내기들의 역동성을 바탕으로 더 재미있는 동아리 생활을 해나감으로



李 健 永(기계항공09입)
書藝會 회장

신 선배님들의 작품도 찬조작품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전시해왔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화여대, 성균관대, 중앙대, 숭실대 등 다른 학교의 서예동아리와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봄을 맞이한 우리 서울대학교에는, 이제 막 입학한 11학년 새내기들이 학교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써 활발한 학교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하나 활발하고 재미있는 학교 생활이 기대되는 한편, 해결해야 할 학교 내의 문제도 많습니다. 지금도 사회 여러 방면에서 수많은 활동들을 하시면서 학교의 이름을 빛내고 계실 여러 선배님들, 앞으로도 학교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콩트 릴레이

버스에서

宋 賢 鎬(대학원82졸)
아주대 국문학과 교수



서울역 환승주차장에서 젊은 사내가 검은 색 가방을 오른쪽 어깨에 둘러매고 버스에 올라탔다. 짙은 갈색 피부에 푸른 눈을 가진 젊은이었다. 한 눈에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보였다. 그는 버스에 타자마자 날렵하게 입구 바로 옆 좌석에 자리를 잡았다. 자리에 앉자마자 눈을 감았다. 맞은 편 뒷자리에 앉아 있는 내게 그의 모습은 한 폭의 정물화처럼 선명하게 다가왔다. 중앙극장을 지날 즈음 알 수 없는 음악소리가 사내의 핸드폰에서 흘러나왔다. 사내가 전화를 받았다. 한 손으로 입을 가리고 목소리를 죽였다. 소곤거리는 것이 말소리인지 흥얼거림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그때 기사가 버럭 고함을 질렀다.

“

기사는 사내를
외국인 노동자로 단정하고
하인을 다루듯 했다.
욕설의 내용으로 보아
공격의 대상도 분명해졌다.
그렇더라도 기사가 왜 그처럼
화를 내고 욕설을 퍼부어 대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왜 그처럼 당당하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도
알 길이 없었다.

”

“야, 이 XX야. X만한 게 어디서 전화 짚이야. 당장 전화 안 꺼!”
기사의 고함소리에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앞쪽으로 향했다. 모두 한 대 얻어맞은 기분으로 기사의 눈치를 보았다. 통화를 하던 사람들도 핸드폰에서 입을 떼고 침묵을 지켰다. 버스 안이 갑자기 조용해져 진공 상태에 놓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기사에게 욕을 먹은 사내는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연신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다.
사내가 잘못된 것인지 기사가 객기를 부린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기사가 소리를 질러댔을 때 버스 안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큰 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었고, 휴대폰 통화 금지라는 표지는 어디에도 붙어있지 않았다. 기사가 화를 낸 대상이 사내인지 아니면 전화를 걸고 있는 불특정 다수인지도 알 수가 없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왜 욕해요? 욕하면 나빠요.”
“이런 무식한 X들은 좋은 말로 해서는

알아듣지 못한다니까. 한국에 왔으면 얹전히 일이나 할 것이지, 노동자 주제에 왜 싸돌아다니면서 전화짚이야.”
기사는 사내를 외국인 노동자로 단정하고 하인을 다루듯 했다. 욕설의 내용으로 보아 공격의 대상도 분명해졌다. 그렇더라도 기사가 왜 그처럼 화를 내고 욕설을 퍼부어 대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왜 그처럼 당당하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도 알 길이 없었다.
“다른 사람들 전화하고 있어요. 왜 나한테만 욕해요? 전화하면 안 돼요?”
순간 기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운전 중이 아니라면 사내에게 달려들어 당장이라도 주먹을 날릴 기세였다. 화난 기사의



일러스트레이터 金多海(서양화02-07)

얼굴 위로 ‘깨끗한 자동차, 친절함 기사, 안전한 버스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 사랑받는 버스가 되겠습니다’라는 전광판의 자막이 빠른 속도로 스쳐지나가고 있었다. 기사의 얼굴에 전광판의 자막이 겹쳐져 묘한 여운을 남겼다.
나는 어색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사내에게 이야기를 걸려다가 행여 싸움을 키우지나 않을까, 그에게 상처를 주지나 않을까, 걱정이 돼 입을 다물었다. 어색한 침묵이 버스 안을 가득 메웠다. 정적을 깨고 사내가 입을 뗐다.
“한국 사람들 이상해요. 백인들에게 친절하게 하면서 왜 우리들에게 욕해요? 한국 사람들 우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레이시즘, 내쇼날리즘, 센트럴리즘 너무 강해요.”
낯선 용어들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사내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사내는 인종주의, 민족주의, 중심주의를 기사의 태도에서 읽어내고 있었다. 어쩌면 그가 한국에서 살면서 느낀 서러움을 토설해내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기사는 분명 사내를 주변인 취급을 하고 있었다. 그의 적대감과 배타주의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민족주의에서 온 것일까? 아니면 중심주의에서 온 것일까?
우리 민족이 단일민족이라고 내세우기 시작한 것은 애국계몽기에 발흥한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한말 애국계몽운동가들은 외세에 맞서 민족주의를 내세웠고, 독립운동사상의 단초를 제공했다. 해방 후 6·25전쟁, 남북분단, 경제개발 등의 시기에 민족주의는 국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작동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에 경제적인 기적을 가져다주고, 성숙한 민주주의 제도의 정착과 의식의 확산을 이루어 낸 원동력이 됐다.
그 결과 효율성과 결과 지상주의가 관을 치고, 세속적 성공과 상류사회 진입을 위한 경쟁이 우리 사회를 지배했다. ‘일류’, ‘서울’, ‘강남’, ‘서구’는 한국사회의 목표가 됐다. 21세기에도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잔존하는 민족주의와 중심주의는 인종 차별적 문화와 외국인에 대한 차별 대우를 조장하고, 우리 사회가 선진사회로 도약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아득한 옛날 우리 조상들은 동부대륙에서 다른 민족과 섞여 살다가 한반도로 이주했다.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의 시기에도 우리 민족은 타민족의 이주로 그들

시울을 불렀다. 그가 살아온 세월이 워낙 컸다.
김재영의 ‘코끼리’에서 본 히말라야의 풍경과 식사동 가구단지의 풍경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따사로운 햇빛, 아름다운 꽃, 눈부신 설산, 푸른 달빛으로 상징되는 히말라야의 풍경은 흐리멍덩한 하늘, 깨진 벽돌더미, 냄새나는 바람, 공장의 소음, 페인트 냄새, 옷 냄새, 새빨간 염색물과 대비되면서 이주 노동자들의 한국에서의 현주소를 선명하게 했다.
사내는 우리 사회에서 주변부를 곁들고 있는 타자이다. 그는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한국에 왔지만 그가 원하는 것을 손에 얻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국 사회의 층위는 매우 복잡하다. 한 국민의 중심주의는 한국인들에게 일류에 대한 동경과 환상을 심어주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중심부와 주변부로 이원화되고, 경계 안과 밖의 차이가 뚜렷하게 구분됐다. 사내는 경계 밖의 존재하는 인물로 주변부로 수용하려는 대상일 뿐이다.
우리 사회는 그를 경계 밖의 인물도 아니고 주변인도 아닌 진정한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기에는 기득권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다. 나는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면서 가슴이 찡해오는 것을 느꼈다.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멍한 눈으로 앞만 주시하고 있었다.
“분당에는 무슨 일로 가지요?”
“서현동에 영어회화 가르치러 가는 길입니다. 나 노동자 아니에요. 대학에서 영어 가르치고 있어요.”
“대학 선생이 왜 과외를 하나요?”
“대학에서 돈을 적게 주어요. 방학 때 과외를 해야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도 먹고 살만큼은 주지 않아요? 우리 학교는 상당한 정도의 연봉을 주는 것 같은데....”
“결혼했어요. 부인 취직 못해요. 월세 내고 생활비하고 남은 돈 부모님께 보내요. 과외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갑자기 낮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한국의 대학에서 대부분의 외국인은 대우교수로 채용돼 강의교수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 나는 그것을 당연한 일로 알고 있었다.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과외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서도 해보지도 못했다.
버스가 관교에 들어섰을 때 전화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것인지 기사가 반갑게 전화를 받았다. 서현역 부근을 지날 때까지도 기사는 신이 나서 떠들어댔다. 운전 중에 저렇게 오래도록 저렇게 큰 소리로 통화해도 괜찮은지 걱정이 됐다.
서현동을 지날 즈음 옆 차선의 승용차가 버스 앞으로 쏙싸게 끼어 들었다. 기사가 놀라서 급제동을 걸면서 욕설을 퍼부어 댔다. 사내의 몸이 앞으로 튕겨나갔다가 가까스로 원위치로 돌아왔다. 사내는 기사를 보면서 아주 점잖은 목소리로 타일렀다.
“운전 중에는 전화 안 돼요. 욕하면 나빠요.”
기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
기사가 한 마디 하기 전에 내가 끼어 들었다.
“기사님, 젊은이 말이 맞는 것 같소.”
순간 기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대기 시작했다. 사내의 점잖은 충고에 한 방 얻어맞은 것이 분명했다.

동 정

수 상

▲趙守鎭(회화47입 한국국제서법 연맹 총재·대한민국예술원 회원)=지난 3월 1일 3·1문화재단으로부터 제52회 3·1문화상 예술상 수상.

▲尹桂燮(상학64-68 모교 경영학과 명예교수)=지난 2월 7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수여하는 제1회 금융투자인상 특별상 수상.

▲全義進(공업교육65-69 前인천로봇랜드 대표)=지난 1월 31일 한국공학한림원으로 부터 제7회 일진상(공학한림원발전부문) 수상.

▲金斗哲(전자공학66-70 고등과학원장)=지난 3월 1일 3·1문화재단으로부터 제52회 3·1문화상 학술상 수상.

▲朴進善(전자공학68-73 샘표식품 사장)=지난 2월 16일 경제5단체 공동 주관으로 열린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제7회 투명경영대상 우수상 수상.

▲尹辰浩(경제71-75 인하대 교수)=지난 2월 11일 서울 흑석동

중앙대 법학관에서 제1회 學峴(邊衡尹) 학술상 수상.

▲姜昌律(제약73-77 모교 제약학과 교수)=지난 2월 15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가 수여하는 제5회 생명의 신비상(학술부문) 수상.

▲朴贊勝(국사75-79 한양대 교수)=지난 1월 26일 제51회 한국출판문화상 시상식에서 저술상(학술부문) 수상.

▲金文漢(대학원79-82 모교 건축학과 명예교수)=지난 3월 1일 3·1문화재단으로부터 제52회 3·1문화상 기술상 수상.

▲安鉉實(경제81-85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지난 1월 31일 한국공학한림원으로 부터 제7회 일진상(기술정책 기여부문) 수상.

▲柳仁鈞(의학82-88 모교 정신과 학교실 교수)=지난 2월 24일 법석학술장학재단이 수여하는 제14회 법석상 논문상 수상.

▲高鶴朱(경제85-89 모교 법학부 교수)=지난 2월 11일 한국법경제학회로부터 제3회 爲公법경제학상 수상자에 선정.

▲최계경(AMPFRI 12기 다하누대표)=지난 2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농축산 선진화 유공자 표창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 수상.

인 사

▲李仁浩(사학55입 前주러시아대사·KAIST 석좌교수)=지난 1월 28일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에 선출.

▲姜賢旭(외교57-61 前환경부장관·前국회의원·조선대 이사장)=지난 2월 16일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장에 위촉.

▲林炯斗(중문57-61 SBS미디어홀딩스 감사·본보 논설위원)=지난 2월 22일 SBS 주주총회에서 임기 3년의 SBS미디어홀딩스 감사에 재선임.

▲俞明哲(의학61-67 경희대 석좌교수)=지난 2월 13일 경희대 제5대 의무부총장 겸 제14대 의료원장에 선임.

▲金勳東(농학63-69 수원예총 회장)=지난 1월 31일 수원예총 정기총회에서 제6대 회장에 재선임.

▲辛永茂(법학63-67 법무법인 세종 고문변호사)=지난 2월 28일 임기 2년의 대한변호사협회 제46대 회장에 선출.

▲李敦求(임학65-69 모교 산림과학부 교수·세계산림연구기관연합회장)=지난 2월 8일 산림청장에 선임.

▲金二洙(법학72-76 前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장·특허법원장)=지난 2월 10일 사법연수원장에 임명.

▲崔恩洙(법학72-76 前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장·대구고등법원 법원장)=지난 2월 10일 특허법원 법원장에 임명.

▲金熙玉(신대원76졸 前법무부 차관·헌법재판소 재판관)=지난 2월 22일 임기 4년의 동국대 제17대 총장에 취임.

▲趙錫俊(기상73-77 前KBS 기상캐스터·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 지속경영교육원장)=지난 2월 8일 기상청장에 선임.

▲金洙學(법학73-77 前울산지방법원 법원장·대구지방법원 법원장)=지난 2월 10일 대구고등법원 법원장에 임명.

▲劉承政(법학73-77 前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법원장)=지난 2월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장에 임명.

▲金庸憲(법학74-79 前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대전지방법원 법원장)=지난 2월 10일 서울가정법원 법원장에 임명.

▲房極星(법학74-78 前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장·광주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지난 2월 10일 제주지방법원 법원장에 임명.

▲趙煥顯(법학74-78 前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부산지방법원 법원장)=지난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 법원장에 임명.

▲安泳律(법학75-79 前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광주지방법원 법원장)=지난 2월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장에 임명.

▲趙鏞龜(법학75-79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장 직대)=지난 2월 10일 울산지방법원 법원장에 임명.

▲崔羽植(법학75-79 前대구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울산지방법원 법원장)=지난 2월 10일 대구지방법원 법원장에 임명.

▲梁承午(의학75-81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영상의학과장)=지난 2월 17일 아시아근골격영상의학회 차기 회장에 선출.

▲金龍德(법학76-80 前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지난 2월 10일 법원행정처 차장에 임명.

▲朴炳大(법학76-80 前서울중앙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지난 2월 10일 대전지방법원 법원장에 임명.

▲沈相哲(법학76-80 前부산고등 법원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부장 판사)=지난 2월 10일 광주지방법원 법원장에 임명.

▲尹寅台(법학80졸 前부산지방법 원 동부지원장· 부산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 지난 2월 10일 창원지방법원 법원장에 임명.

▲楊相勳(산업공학77-81 前조선 일보 정치부장· 편집국 부국장)=지난 2월 1일 조선일보 편집국 장에 선임.

▲柳 津(영문78-83 풍산 회장)=지난 2월 11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기업 인자문기구의 한국위원회에 선임. 25일 한국비철 금속협회 제19대 회장에 선출.

▲趙泰玄(대학원79-83 가촌경영 연구소장)=최근 잡뉴스 솔로 문서지 이사 겸 경영성과연구원 본부장에 선임.

▲李先敏(국사80-84 조선일보 문화부장·본보 논설위원)=지난 2월 8일 조선일보 오피니언부장에 선임.

▲金永燮(원자핵공학87-95 연합 뉴스 미디어과 학부 차장·본보 논설위원)=지난 2월 15일 연합뉴스 기사심의 위원에 선임.

▲朴成得(ACAD 20기 前정보통신 부 차관)=지난 2월 15일 한국 해킹보안협회 총회에서 회장에 재선임.

행 사

▲鄭哲圭(화학공학48-52 신양문 화재단 이사장)=지난 2월 25일 모교 관악캠퍼스엔지니어하우스에서 신양장 학생 및 한국로 타리장학생 85명에게 장학금 1억8천여 만원 전달.

▲金錫營(행정51-55 자유지성 편집위원장)=최근 조선의 첫 선 교사인 헨리 게리하르트 아펜젤러의 생애를 담은 '처음 선교사 아펜젤러'(kmc刊) 출간.

▲俞東濬(잡사56-60 부운장학회 이사장·수원지 부동산회장)=지난 2월 25일 대학생 1백80명에게 장학금 1억8천 2백만원 수여.

▲李在昌(법학56-60 새마을운동 중앙회장)=지난 2월 14일 아이티 난민을 돕기 위해 새마을 지도자들이 모은 성금으로 마련한 구호품을 국제평화유지단에 전달. ▲金容元(법학59-64 도서출판 삶과꿈 대표·한강포럼 회장)=지난 2월 18일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다양한 북한도발과 우리의 대응 과제'를 주제로 한강포럼 개최.

▲李鍾協(기약62-66 중앙대 명예 교수)=오는 3월 16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협스트링 앙상블 제33회 정기연

주회 개최. ▲權奇允(회화74-81 안동대 교수)=2월 12일~4월 12일 제주현대미술관, 4월 20일~5월 3일 안동문화예술의전당에서 '山 절로 水 절로'를 주제로 실경산수 전시회 개최.

▲許英燮(지리교육74-78 한국언론인연합회 이사·본보 논설위원)=지난 2월 15~21일 대만 정부 초청을 받아 타이베이,

타이중, 금문도 등의 대만 건국 1백주년 기념행사 준비사항을 둘러봄.

▲柳在元(경제76-82 건국대 교수·한국경제발전학회장)=지난 2월 11일 서울 중앙대 법학관에서 한국경제발전학회 총회를 열고 제1회 學峴 학술상 시상.

▲余禎星(가정관리83졸 모교 소비자자동차학부 교수·한국소비자학회장)=지난 2월 11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컨벤션센터에서 '소비자 연구의 최신 연구 경향'을 주제로 컨소시엄 개최.

▲林亥圭(교육79-94 국회의원)=지난 2월 25일 모교 관악캠퍼스 학위수여식에서 '학습권과 그 보장 원리에 관한 연구'로 박

사학위 받음. ▲김영은(기약89-93 수원대 교수)=지난 3월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Three colors of Russia'를 주제로 피아노 트리 오 연주회 개최.

▲임상우(기약98-02 서울시향 부수석)=지난 3월 1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프랑세, 다리우스 미요, 브람스 등의 작품으로 클라리넷 독주회 개최.

▲鄭義淳(AMP 4기 극동포럼 이사장)=지난 2월 1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鄭雲燦(경제66-70)前 국무총리를 초청, '불확실성과 한국의 선택'을

주제로 제22회 극동포럼 개최. ▲洪日杓(AIP 42기 국회의원)=지난 2월 11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에서 칼럼집 '여의도 프리즘' 출판기념회 개최.

▲李 沁(ACAD 32기 주택문화사 사장·대한노인 회장)=지난 2월 17일 서울 효창동 백범김구 기념관에서 대한노인회 신년하례 및 정기총회 개최.

▲李 溟(ABP 8기 前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 이사)=최근 2011년 불교신문 신춘문예에서 '분천동 本家入納'으로 시부문 당선.

▲朴南植(SGS 2기 윤촌문화사상 연구회장)=지난 2월 23일 서울 삼성동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에서 명예경영학 박사학위 받음.

삼가 명복을 빕니다

- ▲丁昌燮(회화46-51 모교 서양화과 명예교수)=2월 24일 별세(84세)
- ▲朴貞根(농학47-50·법학56졸 前서울고법원장)=2월 8일 별세(86세)
- ▲高永復(사회48-54 前모교 사회학과 교수)=2월 24일 별세(83세)
- ▲琴鍾哲(사회교육54졸 前대전 호수돈여고 교감)=2월 9일 별세(82세)
- ▲柳濟寔(불문52-56 전북대 명예교수)=2월 23일 별세(78세)
- ▲崔益燦(화학교육52-57 前중앙대 교수)=2월 1일 별세(79세)
- ▲鄭夏五(기계공학54-58 前현대엔지니어링 사장)=2월 1일 별세(76세)
- ▲成樂民(법학58-62 前주카타르 대사)=2월 22일 별세(71세)
- ▲尹屹重(행정원59-61 前대한골프협회 부회장)=2월 9일 별세(90세)
- ▲趙光植(언어63졸 前한국체육언론회 고문)=2월 17일 별세(73세)
- ▲李馨秀(독문63-67 세무법인 하나 부회장)=2월 8일 별세(66세)
- ▲延甲洙(국사80-87 모교 규장각 HK연구교수)=3월 4일 별세(51세)
- ▲李相喆(AMP 1기 前코오롱그룹 부회장)=2월 7일 별세(80세)
- ▲權琪述(AMP 9기 前국회의원)=2월 22일 별세(73세)
- ▲宋世賢(AIP 31기 세무회계사무소 대표)=3월 2일 별세(73세)

'동정'난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24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동창회보에 게재됩니다. • e메일 : snua@paran.com 또는 snua1969@naver.com • 전화 : 02)886-2219 • 팩스 : 02)886-2218

신 간

■ 팔순 양띠 교수들
이화사랑 반세기
— 安光植 외 공저



이 화여대에서 40년 이상 봉직하고 15년 전에 정년퇴임한 5명의 동갑내기 양띠 교수들이 지난해 팔순을 맞아 감미로운 추억의 에세이집을 펴냈다.

신문방송학과 安光植(영문 49-57), 독문학과 金榮皓(독문 50-54), 심리학과 金在恩(교육 50-54) 명예교수 등은 이 책에서 이화여대와 동거동락했던 시절의 기억을 유머러스하게 쏟아내고 있다.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보람과 기쁨, 격동기를 거치면서 겪었던 고뇌와 항거, 이화와 관련된 숨은 이야기들을 담아냈다.

특히 이화여대 특유의 문화를 쾌활하게 보여주면서, 이화는 물론 우리나라 지성사와 대학사, 사회사의 소중한 역사적 기록이 될 것이다. 〈이화여대출판부刊·값 15,000원〉

■ 힘있는 映像국어
— 朴千緒 지음

지난해 12월 9일 제4회 수필춘추 문학상을 수상한 사단법인 한국어문화 朴千緒(행정56-60)상임이사의 수상 작품집.

이 책은 2006년에 출간한 ‘한글과 漢字 두 날개로 훨훨 나는 힘있는 映像국어’의 개정판으로 1995년 이후 본보를 비롯해 일간지,



잡지, ‘語文研究’, ‘語文會報’, ‘語文生活’ 등에 발표한 글들이 담겨있다.

朴동문은 이 책에서 “국어생활에 한자의 장점을 활용해, 아무리 까다로운 내용도 정확하게 표현해내고, 어떤 새로운 개념도 적적 소화해내는 힘있는 국어, 효율적인 映像국어로 가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역락刊·값20,000원〉

■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청춘에게
— 李康洛 지음



KR컨설팅 李康洛(기계설계 78-82) 대표가 힘차게 달려나가야 할 시기에 ‘나’를 잃고 미적지근하게 살고 있는 청춘에게 진정한 비전을 찾고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도록 조언한 책.

총 5장으로 성공에 관한 많은 우화와 역사적 인물들의 예를 저자의 경험과 함께 녹여내 편안하게 풀어냈다. 생각과 성찰의 중요성과 반복적인 사색, 미래를 위해 ‘현재’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 내 적성과 장점 파악부터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의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한다.

그리고 조직 안에서, 팀 안에서의 ‘나’의 역량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조직과 함께 성장하는 리더의 역할, 더 나아가 성공 이후 삶에 대해 말하며 ‘나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1세기북스刊·값12,000원〉

■ 공부의 즐거움
— 張會翼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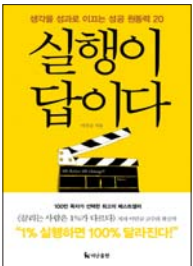
뜨겁게 공부하고 한평생 삶의 기쁨을 추구한 공부도독 모교 물리천문학부 張會翼(물리 57-61) 명예교수의 진솔한 공부 이야기.

국내 최초 대안대학 ‘녹색대학’ 총장을 역임하는 등 살아있는 지성의 삶을 살아온 張동문은 이 시대의 지성으로 여러 강연을 통해 자신의 학문과 공부의 즐거움에 대해 전해왔다.

이 책은 한창 공부할 시기의 학생뿐만 아니라 새로운 연구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연구자, 자기계발을 위해 공부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참 공부의 길이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다.

크게 10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옳은 공부 방법을 찾고 공부하는 삶과 더불어 인생의 길을 찾을 수 있게 안내한다. 〈생각의나무刊·값13,000원〉

■ 실행이 답이다
— 李民圭 지음



베스트셀러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의 저자인 아주대 심리학과 李民圭(대학원 83졸)교수의 저서로, 실행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책.

생각을 성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결심 단계 → 실천 단계 →

공연

■ 柳眞燮 바이올린 독주회
— 3월 17일 예술의 전당



이 3월 17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바이올린 독주회를 연다.

柳동문은 이날 모차르트, 베토벤, 라벨 등의 작품을 연주한다. 〈공연문의 : 예인예술기획 586-0945〉

■ 趙修賢 피아노 독주회
— 3월 22일 창원3·15아트센터



경남대 음악교육과 趙修賢(기악 93-97) 교수(사진)가 3월 22일 오후 7시 30분 창원3·15아트센터 소극장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개최한다.

코리아나 챔버뮤직 소사이어

티 멤버인 趙동문은 이날 쇼팽, 무소르크스키 등의 작품을 연주한다. 〈공연문의 : 예인예술기획 586-0945〉

■ 崔景煥 타악기 독주회
— 3월 26일 예술의 전당

한국타악인회 회장인 모교 기악과 崔景煥(작곡72-80)교수가 3월 26일 오후 3시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타악기 독주회를 개최한다.

타악그룹 4plus 리더인 崔교수는 이날 Psathas의 ‘Matre’s Dance’를 비롯해 로사우로, 휴스턴 등의 작품을 소개한다. 〈공연문의 : 코리아나매니지먼트 3487-0678〉

■ 鄭智仁 첼로 독주회
— 3월 29일 금호아트홀



카메라 타 서울 앙상블 단원인 鄭智仁(기악 97-01)동문(사진)이 3월 29일 오후 8시 서울 신문로1가 금호아트홀에서 첼로 독주회를 갖는다.

鄭동문은 이날 하이든, 베토벤, 라흐마니노프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공연문의 : 예인예술기획 586-0945〉

유지 단계’ 3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3장으로 구성해 각 단계별로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각각의 주제에 대해 실천과 관련된 문제 사례를 소개하고 실천을 방해하는 심

리학적인 문제를 분석한 다음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그리고 ‘Stop, Think & Action’ 코너를 마련해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돕는다. 〈더난출판사刊·값 14,000원〉

장학빌딩 ‘명예의 전당’에 새겨질 동문님의 건립기금 출연내역을 확인해 주세요

2007년 6월 25일 첫 삽을 들어 시작한 장학빌딩이 동문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드디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금을 보내주신 분들의 고마운 뜻을 장학빌딩 내 명예의 전당에 새겨 영구히 보존하려고 합니다. 아래의 기준에 따라 수록할 예정이오니 본인이나 선후배, 동기분들의 납입 내용을 확인하시고 누락, 오기, 수정 내용이 있으시면 총동창회 사무실(02-702-223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15일까지 출연해주신 분의 명단을 이번 호에 게재합니다. 명예의 전당에 보존될 명판의 제작기간을 고려해 2011년 2월 말까지 모금을 마감하여 납입된 내용을 수록할 예정이며, 약정을 하신 분들은 최종 완납 확인 의사를 동창회 사무실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게재순서는 ①금액별 — ②성명 가나다순입니다.
- 금액별 구분은 ① 1억 이상(금액별) ② 5천만원 이상 ③ 5천만원 미만~1천만원 이상 ④ 1천만원 미만~1백만원 이상 ⑤ 1백만원 미만 등으로 분류합니다.
- 수록내용은 금액별 구분 아래 ①성명 ②단과대학(원) 또는 특별과정(영문) ③입학연도 또는 기수 등 세가지 내용으로 수록합니다.
- 공동명의로는 성명을 함께 표기(△·)했습니다.

◆ 1억원 이상

△유석홍(상대61)
·박영희(음대70졸)

◆ 5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권육현(공대62)
△김진무(공대65)
△김천식(상대58)
△김천식(사대71)
△박형기(치대55)

·정정해

△송병호(의대86)

△정영희

◆ 1천만원 미만

~1백만원 이상

△김오환(치대62)
△김우식(AFP1)
△노경진(상대55)

△박건배(치대70)

△설학인(공대53)

△송규정(문리대63)

△윤용남(법대58)

△이세민(약대56)

△이영석(SPARC4)

△이재영(경영대78)

△이태형(상대59)

△이한성(사대50)

△이한영(사대70)

△전정극(공대51)

△정광우(법대61)

△정일채(경대원67)

△최종석(치대76)

◆ 1백만원 미만

△강인호(치대95)

△구성호(미대86)

△김도형(대학원70)

△김만옥(문리대59)

△김배원(수의대60)

△김숙자(문리대59)

△김용대(치대86)

△김원진(대학원62)

△김인자(문리대59)

△김지영(사대93)

△김형민(사회대76)

△김혜남(문리대59)

△문장은(공대76)

△박옥순(문리대59)

△박옥임(농대70)

△방극운(행대원64)

△방윤자(문리대59)

△백승구(사회대90)

△사공정자(문리대59)

△서진욱(사회대82)

△송 근(경영대83)

△송어지니(공대70)

△안보영(법대68)

△안유경(농대69)

△오명희(치대83)

△오준근(사대60)

△이경자(문리대59)

△이기정(문리대59)

△이동현(법대82)

△이수형(사대60)

△이유현(치대90)

△이윤호(농대68)

△이정란(문리대59)

△이정자(문리대59)

△이종석(음대72)

△이진녕(사회대78)

△이창숙(문리대59)

△이춘재(문리대59)

△이현자(문리대59)



△이형구(보대원91)

△이후경(문리대59)

△장유수(공대02)

△전윤의(문리대59)

△정계영(음대99)

△정상조(보대원67)

△정현국(법대56)

△주승훈(농대96)

△최 웅(문리대69)

△최승호(농대83)

△최영훈(법대78)

△허영옥(문리대59)

△현승일(문리대61)

△홍영의(사대59)

△행대원88동기회

(2011년 1월 22일
부터 2월 15일까지 출
연해주신 분)

모교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로

평생회비 : 2011년 1월 납부자 / 연회비 : 이사(2011. 1. 15~1. 31)·일반(2011. 1. 15~2. 7)
원내 숫자 : 입학년도(미확인시 졸업년도) - 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회 장 단

△부회장 趙炳祐= 1백만원

평생회비

(이사) △공윤희 ACAD47
△김경숙 AMFR23 △김귀현 음대69
△김근택 공대79 △김능환 법대71
△김응중 의대78 △김제호 GLP17
△김창렬 경영91 △김태일 GLP4
△김형성 법대79 △민희경 음대77
△박경주 의대76 △박중신 의대83
△박희석 SPAR14 △변성운 사회91
△신우성 공대76 △원희량 생활79
△유기춘 공대65 △유시우 농대61
△유영은 공대86 △유주하 치대79
△이경을 HPM14 △이면재 사회80
△이명규 자연76 △이재규 상대66
△이재근 環院79 △이진삼 ACAD21
△이태규 자연78 △임용철 의대82
△전동렬 사대75 △전영호 약대81
△정민길 자연79 △정은자 간호82
△정진경 법대81 △정철수 공대71
△조인현 大院82 △조혜연 치대82
△지근진 농대58 △진철평 상대59
△최재경 법대81 △최진수 의대64
△최창운 의대78 △한봉희 법대77
△한종철 경영79 △홍사덕 문리61
△홍찬수 AFB7 △황은식 공대73
△황치일 치대77

(일반) △감경윤 자연89
△강구태 법대80 △강석태 GLP6
△고희권 GLP19 △곽호영 문리66
△권병환 AFB10 △권진호 ACAD70
△김 신 경영75 △김 학 공대00
△김경오 사회72 △김경태 인문83
△김관엽 의대53 △김광수 공대84
△김규현 법대96 △김규홍 공대91
△김기완 자연87 △김남균 공대80
△감대희 사대83 △김덕현 문리64
△김동희 자연01 △김병재 의대93
△김상인 ACAD69 △김상현 GLP21
△김수환 사회89 △김연우 AIP41
△김영도 AMP23 △김영성 법대81
△김영옥 경영97 △김정균 경영97
△김정수 AIP43 △김정환 공대74
△김정희 자연01 △김준호 의대89
△김지은 법대93 △김지형 의대90
△김전옥 공대55 △김현수 농대55
△김현석 문리65 △김현아 법대90
△김현준 법대95 △김형만 공대76
△김형열 법대80 △김훈태 공대84
△김흥준 AMFR18 △노환진 공대81

△도동환 AMP26 △도용락 법대64
△류상욱 자연03 △박도봉 AMP68
△박성일 行院86 △박용규 법대73
△박재영 자연99 △박재운 법대65
△박정완 經院91 △박태화 AMP1
△박형준 의대90 △박혜준 사대91
△박희선 공대41 △배병우 법대53
△서문환 AFB9 △서재영 자연83
△성낙현 공대71 △소진철 법대49
△송기창 사대77 △송무현 AIP37
△송석상 문리66 △송정길 경영84
△송춘섭 SGS22 △신동대 AMP35
△신부철 사대61 △신현우 공대83
△인병준 ACPM6 △인창모 AIP43
△엄재우 保院97 △여승동 공대75
△오동휘 문리58 △오태식 공대75
△우영대 FIP7 △유병우 수의74
△유영창 공대73 △윤대영 공대79
△윤상배 AFB10 △윤용남 법대58
△윤지현 생활88 △윤한권 AFB9
△이 철 의대67 △이경현 行院76
△이돈주 공대75 △이상현 상대67
△이선구 약대90 △이성태 AMP65
△이승익 미대00 △이어령 법대84
△이영길 사대81 △이용우 ALP11
△이용훈 공대49 △이원철 법대74
△이은상 문리61 △이장욱 인문87
△이정빈 의대66 △이주성 行院82
△이준영 인문99 △이창훈 공대94
△이한영 사대70 △이형주 농대81
△임대진 ALP5 △임동오 ACAD70
△임범식 GLP19 △임이량 사회04
△임종선 법대61 △임종수 치대81
△임종웅 공대99 △장병훈 음대04
△장인종 법대82 △장혜정 사대01
△전형남 사회81 △정무현 공대69
△정성호 농대51 △정성희 간호86
△정영란 인문73 △정은수 공대00
△정창해 농대64 △정해관 의대76
△조건환 공대97 △조국희 약대79
△조명래 수의70 △조병진 농대61
△조슬기 미대04 △조영운 SPAR7
△조영은 保院06 △조제열 수의85
△조정일 공대79 △조호범 공대98
△지무남 상대64 △진형구 공대63
△차정인 의대97 △최병도 AMFR12
△최성호 사회82 △최수아 保院01
△최승용 HPM9 △최윤식 의대63
△최화자 사대64 △추영구 약대45
△한희승 AMPP11 △허정미 치대87
△허현욱 AIC13 △형병택 ACPM6
△홍석수 공대03 △홍성일 공대54
△홍영표 GLP21 △홍정선 保院74
△황선욱 약대90 △황용석 공대79

이 사

◆인문대 △김광현76 △박태영74

△오정택82 △최태영76
◆사회대 △구영수70 △성은식76
△이승훈74 △이주호79 △임규옥79
△장원영72 △조관희83
◆자연대 △김규중72 △송세안75
△엄원근77 △이병홍66 △이창복68
◆간호대 △허 영74
◆경영대 △김석호77 △김선구73
△김영기73 △신동환78 △신용삼73
△안수현77 △유태우79 △황수영80
◆공대 △강남식73 △고영주67
△고재홍75 △김교성51 △김도심52
△김명근53 △김병욱76 △김석주48
△김원수61 △김윤규62 △김인상67
△김정기68 △김종광68 △김종식77
△김종의59 △김종찬54 △김주호58
△문찬국73 △민병선55 △박병학69
△박상호76 △박재기52 △박찬민57
△박창순64 △박태권55 △박태훈78
△백만기72 △백형배47 △서광벽73
△서두석71 △서우원61 △설영화65
△성백문83 △신건일63 △신동주79
△신선호66 △안기원70 △양배근82
△원정수53 △유병철42 △윤재석59
△윤팔문57 △이계환62 △이근명63
△이능규69 △이범호54 △이영재69
△이종호59 △이주범56 △이효일62
△정명식50 △정재은57 △정한모71
△지 순54 △최 연68 △하준환51
△홍영희54 △황이선63
◆농대 △김근영65 △김기선77
△김사일53 △김상국51 △김영진53
△김진석69 △박래경51 △박형만75
△백창영69 △서광섭79 △안수구73
△오세인55 △윤희진63 △이도경56
△이병일57 △이봉영76 △이상용61
△이성호71 △이원규58 △장정수64
△채수근54 △채제전64 △한정남65
△홍현주73
◆문리대 △강신항49 △고 건56
△고광용60 △구태희46 △권혁방65
△김덕창59 △김두희52 △김상복57
△김영철67 △김종진58 △김홍철60
△박범진60 △박석흥63 △박영원74
△방호선51 △송규정63 △오완영59
△오재희53 △이광찬58 △이남기50
△이병형67 △이상무61 △이성우63
△이효원69 △정 광62 △차영구73
△하영준55
◆미대 △김연수76 △박재호59
△이영진54 △전영철53 △최명애70
◆법대 △강 훈72 △강신원72
△강재철77 △곽노준74 △권혁재60
△김귀동70 △김기인58 △김성길60
△김영상54 △김의재56 △김익하60
△김재덕73 △김종훈83 △김진우57
△김현수54 △김홍현67 △노신영50
△류시열57 △민수명60 △박경보70
△박동섭60 △박무용64 △박성철75

△박순백66 △박용상63 △백창수76
△변재일59 △서돈양56 △서상수80
△서상희68 △성패문60 △신기남70
△신장순47 △신정철52 △신현무58
△심명수63 △심상철76 △심재갑52
△오경탁54 △오복동57 △윤덕순59
△윤영철56 △윤일영52 △윤재열50
△이근식65 △이대순53 △이선우61
△이상웅61 △이세창57 △이영범59
△이해봉62 △이희창53 △임인택58
△장창호63 △전병식70 △정광우61
△정연조55 △정우모56 △정지형58
△정한상50 △최근선54 △최기정60
△최연희64 △최창호84 △한덕수55
△한이봉83 △홍경용49 △황봉환73
△황창섭53 △황희철77
◆사대 △박영배65 △박익두64
△박재공62 △박종달49 △박종세55
△방재욱68 △송호영79 △안창섭61
△우근용65 △윤재봉56 △이노연58
△이범종78 △이안기71 △이환의54
△임창선72 △임창원66 △전용근73
△정준섭61 △조용복55 △최영상56
△홍철근70
◆상대 △계준혁48 △고일성54
△구정희57 △권혁성53 △권희구56
△기병태53 △김대중66 △김부규56
△김석규53 △김영식66 △김완기46
△김종석65 △문운용60 △민형동71
△송우익71 △심재석64 △안태호45
△양승우68 △우두현61 △유원영57
△이관규61 △이용진68 △이재규65
△이정복54 △이준용56 △이철희57
△장민화56 △장명섭49 △조대연45
△조원구64 △조원래57 △최 광66
△최경식59 △최동건70 △최명규46
△한찬수54 △홍면후46 △홍영국60
△황영기71
◆생활대 △김혜경72 △손인희72
◆수의대 △구연강62 △김보원63
△김상돈44 △백오섭58 △이강남66
△이재철52 △장치훈70 △최수호75
◆약대 △강석진55 △권경근56
△김선중61 △김수경57 △김영택58
△김우영67 △김재환68 △김진우54
△박종훈47 △송창진54 △신현학56
△안병욱68 △유 연70 △윤도중58
△이가평60 △이규호60 △조정식62
△진 강56 △차기현59
◆음대 △신상호74 △전민숙66
◆의대 △강진영67 △김동은52
△김병식82 △김병찬53 △김병천65
△김세경39 △김종화63 △박경덕80
△박경환71 △박동현70 △박문갑46
△박영수59 △방성호66 △송희승53
△심영보55 △심웅석59 △유태연54
△이수철71 △이승규67 △이정길63
△장윤석49 △전성환74 △정필현82
△조경환52 △지삼봉55 △최경진68

△최훈동72 △한규섭72 △한종수71
△홍영식61 △황정운54
◆치대 △강근수63 △강효식57
△김경애57 △김규진64 △김병찬69
△김수남59 △김윤영58 △남용욱51
△민병덕64 △박행운56 △손 근71
△신일규65 △유병도56 △정광현58
△정재영70 △정종선57
◆대학원 △김세재85 △김승호83
△박복만66 △박종열71 △이시목52
◆경대원 △박원봉68
◆보대원 △이규한63 △최치원97
◆사대원 △김창식67
◆신대원 △조용직70
◆행대원 △김상돈79 △김상영65
◆환대원 △이평재73
◆AMP △권오석61 △김영환34
△김종규60 △김혜섭51 △박인상28
△손창수41 △신성우32 △이근호52
△이세락45 △이지섭61 △전용배57
△최영보55 △황복현45
◆AIP △이대만24 △이창규11
△임한복21
◆ACAD △권태석60 △김연수16
△김종식60 △김종식60 △김종해64
△이재돈28 △조주태14 △최종욱20
◆ABP △박준명12 △이삼희20
◆HPM △김복희1 △김재영18
△방금석2 △서관석2 △이공순5
◆AIC △김현식2 △박종렬3
△송호룡19
◆AFB △성태섭1
◆ACMP △김정식3 △박상남3
△정연문4
◆GLP △김자빈11
◆ALP △백정기6

일 반

◆인문대 △권윤경95 △김세희01
△김영홍74 △김진경84 △김한국79
△도재문72 △문선호87 △박명식77
△백기훈82 △변성수84 △서선령87
△서형배74 △성관정06 △윤대근81
△이명관81 △장대철84 △장한기73
△정인호86 △최상열00 △허남정77
△홍재범86 △황상선84 △황효성02
◆사회대 △강병일78 △강성두78
△권민용86 △권선우82 △김서유82
△김서희02 △김진진85 △김영만84
△김준영03 △김호일81 △김흥수85
△문병성74 △박상훈87 △박용현90
△박재진89 △배명철74 △서병일87
△송주현94 △안백훈81 △안상환77
△엄재규87 △오문석81 △오정일88
△윤현종81 △이고은04 △이세준82
△이수천91 △이수형94 △이종은88
△이종교86 △이진영78 △이현태96

△장진우⁸⁸ △정 도⁸⁶ △정삼봉⁷³
△제민호⁸² △주홍민⁹¹ △최완근⁸¹
△한직환⁸² △홍성진⁹³

◆자연대 △강경관⁷⁰ △고민섭⁰³
△김남우⁰³ △김상규⁹⁷ △김석진⁷⁸
△김수정⁰² △김진복⁷⁴ △문송기⁰⁰
△박강현⁰⁰ △박성호⁰² △박용진⁹⁹
△박용호⁰⁰ △박정환⁸³ △석희용⁸²
△안진호⁹¹ △양승락⁰² △양희용⁹²
△이 식⁸⁵ △이기원⁷⁷ △이순환⁷²
△이용희⁸⁴ △이지희⁸⁴ △이호선⁹⁶
△임병호⁰⁵ △장덕진⁸¹ △전용호⁷⁵
△정 황⁷² △정동근⁸⁴ △조완제⁸⁴
△조현진⁰¹ △최철호⁸³ △현진오⁸²

◆간호대 △고혜명⁶⁵ △김매자⁶⁰
△백혜자⁶⁴ △이선미⁰⁶ △이인옥⁷⁴
△이진수⁰⁵ △정현명⁸⁸ △최완희⁸⁴
◆경영대 △강민선⁸³ △강승문⁹⁰
△구본관⁸¹ △김기영⁷² △김지현⁸⁸
△김태현⁰⁶ △김환국⁸¹ △류충렬⁹⁷
△서정호⁸⁸ △신윤철⁷⁰ △안재석⁸⁷
△안철환⁸⁸ △이준구⁹¹ △이준녕⁰²
△임기찬⁹⁰ △장기권⁸² △조영홍⁸²
△최종욱⁸⁹ △허일섭⁷³ △홍득관⁹⁵

◆공대 △강성수⁵⁷ △강용규⁵²
△강창수⁴⁸ △강춘식⁵⁵ △강현식⁷⁶
△강환구⁷⁵ △고창현⁶⁴ △고창규⁶⁸
△곽희로⁶¹ △구정진⁰² △구형모⁷⁹
△권경준⁹⁵ △권영선⁵¹ △권오석⁶⁰
△권오준⁰² △권정태⁸⁴ △권종은⁰⁰
△권혁선⁷² △권혁준⁵³ △김강수⁸⁸
△김경준⁰³ △김광일⁸¹ △김규철⁰³
△김남길⁶¹ △김남영⁶⁹ △김남형⁸³
△김대웅⁵² △김동국⁹¹ △김범석⁹²
△김법규⁰² △김병남⁷³ △김상식⁵⁸
△김상용⁵⁴ △김세영⁷⁰ △김세준⁸³
△김세진⁹⁹ △김세환⁶¹ △김열규⁷⁰
△김영삼⁰⁵ △김영석⁸⁶ △김영진⁵³
△김영휘⁵² △김영휘⁵⁵ △김용백⁶¹
△김용익⁵⁰ △김용장⁶² △김용호⁶⁷
△김윤규⁵⁹ △김의석⁸⁴ △김인석⁵⁵
△김인용⁷⁴ △김재봉⁶⁹ △김재수⁹¹
△김재원⁶¹ △김정옥⁵⁵ △김정훈⁰³
△김종삼⁵⁶ △김종채⁵⁵ △김종환⁶¹
△김준영⁰⁴ △김지환⁴⁸ △김전환⁶⁵
△김철안⁸³ △김태영⁰¹ △김택중⁵⁶
△김현덕⁰¹ △김형기⁶⁶ △김형모⁵⁴
△김형태⁵⁷ △김혜수⁶⁴ △김홍남⁰³
△김홍만⁸⁹ △김홍수⁷⁵ △남승윤⁸²
△노승규⁸² △노충래⁶² △노환영⁵⁶
△류봉환⁵⁶ △류철호⁶⁷ △문동채⁶⁵
△문승현⁷⁹ △문제준⁷¹ △문종규⁵⁸
△민영민⁰¹ △박석현⁶⁷ △박원춘⁴⁹
△박원호⁸⁵ △박의남⁴⁹ △박재범⁸⁴
△박종규⁸⁸ △박준민⁹⁹ △박지빈⁹³
△박지훈⁰¹ △박화섭⁸⁹ △박효대⁷⁶
△방정섭⁶² △백남주⁴⁸ △백세희⁶⁶
△서상욱⁸⁰ △서영길⁵⁹ △서영태⁰⁵
△성영환⁵⁸ △성준호⁰⁴ △손무익⁶⁸
△손영기⁰³ △송미화⁰² △송병룡⁰⁵
△송창영⁶⁸ △송현택⁴⁹ △신건학⁵⁶
△신기조⁴³ △신상호⁵⁴ △신현복⁴⁵
△신현식⁵⁰ △신현욱⁹² △심용기⁵³
△심진보⁰² △심창생⁶⁰ △안병휘⁵⁹
△안상록⁶⁸ △안종린⁸⁰ △안채혁⁰³
△양승철⁹⁹ △양종화⁷⁰ △임태석⁶⁵
△오서균⁶³ △오태웅⁹⁴ △오항기⁴⁶
△원제혁⁵⁸ △원준희⁴⁹ △위경복⁷⁸
△유두웅⁵⁸ △유범상⁷⁵ △유병동⁹⁴
△유병욱⁸¹ △유상희⁵⁸ △육내승⁵¹
△윤 본⁵⁴ △윤상건⁷³ △윤재준⁶⁰

△윤태호⁰³ △이갑연⁸³ △이갑표⁴⁸
△이강명⁶⁵ △이경화⁰² △이광진⁶⁹
△이규재⁴⁴ △이기재⁹³ △이동욱⁸²
△이민규⁰³ △이범철⁶⁵ △이봉희⁷³
△이상순⁶⁷ △이상언⁸¹ △이상은⁷⁶
△이승욱⁵⁶ △이승욱⁰⁵ △이승욱⁹¹
△이완희⁰² △이용일⁸⁶ △이원찬⁰³
△이유진⁶³ △이인원⁶⁹ △이재홍⁷¹
△이종근⁴⁸ △이준환⁵² △이지원⁸¹
△이지훈⁰⁴ △이찬홍⁷⁴ △이춘성⁷¹
△이현석⁹⁹ △이호인⁶¹ △이화용⁷⁰
△이화준⁶⁹ △이화흔⁷⁴ △이희근⁵⁵
△임갑혁⁶⁹ △임경준⁵² △임채용⁸⁹
△장길희⁷⁵ △장두희⁸² △장문석⁹⁵
△장영식⁸⁰ △장옥룡⁵² △장재명⁰⁰
△장재명⁵⁷ △장재일⁴⁸ △장홍규⁵⁴
△장희익⁶⁸ △전대극⁹⁶ △전복현⁵⁸
△전연욱⁵⁷ △정건식⁵⁵ △정백기⁷⁶
△정원영⁴⁸ △정인식⁷⁴ △정자철⁷⁷
△정재관⁵⁷ △정정운⁶² △정진경⁴⁸
△정진구⁷³ △정진수⁶⁷ △정해길⁶⁵
△조 만⁵⁶ △조건일⁶² △조남일⁷⁰
△조래승⁵⁶ △조민욱⁰² △조용훈⁷⁸
△조정상⁹⁴ △조종현⁴⁶ △주익철⁸⁹
△최 근⁰² △최국봉⁴⁷ △최규현⁹⁰
△최길영⁷¹ △최연상⁸² △최정림⁵³
△최하식⁴⁶ △하민진⁷² △하영식⁶⁷
△하정식⁰⁴ △허 흥⁵⁸ △허성윤⁹⁰
△현재수⁷² △홍민표⁷⁴ △홍성관⁶¹
△홍순일⁵³ △홍승환⁷⁵ △홍재훈⁸¹
△황인준⁹⁵ △황정정⁵⁹

◆농대 △강원봉⁷⁷ △고일웅⁶¹
△구능완⁵⁶ △권재홍⁸³ △권정혁⁶⁰
△권진봉⁷¹ △권혁세⁵⁴ △김관선⁵⁸
△김남현⁷⁴ △김대경⁵¹ △김두식⁵⁵
△김명록⁴⁶ △김병운⁶⁹ △김삼남⁶¹
△김용기⁸⁶ △김우석⁶⁴ △김원문⁶⁷
△김원보⁷³ △김원수⁵⁶ △김재학⁵³
△김정빈⁶¹ △김종언⁹¹ △김진근⁵⁶
△김태희⁵⁷ △김한석⁶⁶ △노규식⁷⁶
△노진표⁵⁵ △노홍섭⁵³ △류진국⁸⁵
△민경복⁸¹ △민두식⁵⁴ △민영준⁴⁸
△박 호⁵⁹ △박승걸⁵³ △박양문⁵⁵
△박양혜⁶⁴ △박영선⁵⁵ △박용길⁵³
△박천서⁴⁹ △박치석⁶³ △백은현⁶⁴
△서용택⁵⁹ △서정혁⁰³ △설권석⁵⁴
△손진규⁸² △송종관⁵² △신통현⁸⁶
△신민식⁵⁷ △신상혁⁵³ △신일선⁵⁸
△신종복⁵⁴ △심재철⁵⁷ △양두석⁵¹
△양법산⁵⁵ △양철호⁸⁹ △연장식⁸⁴
△염익환⁷⁸ △오근배⁵⁶ △오세승⁵³
△오충용⁶⁰ △우병국⁷⁵ △우상호⁵⁹
△우정식⁵³ △유근영⁵⁴ △유기형⁵³
△유석형⁵⁸ △유세현⁷⁹ △유지성⁵⁹
△유철호⁶⁴ △윤상렬⁵⁷ △윤상철⁸⁰
△윤성준⁸⁸ △윤여창⁷⁴ △이건우⁵²
△이계진⁵⁶ △이광선⁵⁷ △이기순⁶⁹
△이기환⁵⁵ △이대람⁰³ △이명남⁶³
△이병하⁵⁵ △이병현⁵⁹ △이병호⁸²
△이석주⁵⁴ △이세표⁵⁵ △이승찬⁶⁵
△이영문⁵² △이영섭⁰⁶ △이영섭⁹⁸
△이용준⁹⁰ △이윤우⁵³ △이재구⁵⁸
△이종구⁵³ △이종렬⁵⁰ △이중기⁵⁵
△이진희⁸¹ △이춘재³⁶ △이춘현⁵³
△이택원⁵² △이현우⁵¹ △이홍복⁵⁶
△임경순⁵⁴ △임노현⁵⁷ △임무상⁵⁹
△임용섭⁸⁷ △임장희⁸⁹ △장낙연⁵⁵
△장대석⁵⁸ △장성구⁷³ △장승진⁸⁰
△장운용⁵¹ △정관모⁵⁴ △정구현⁵³
△정돈철⁶⁸ △정동성⁵⁷ △정수봉⁶⁰
△정인무⁵³ △정정택⁷⁰ △정태원⁵⁷

△조규열⁵² △조한보⁴⁸ △천정웅⁶²
△최송웅⁶⁰ △최영일⁴⁶ △최영주⁷⁵
△최현숙⁶⁵ △하병찬⁸⁷ △한명수⁷⁴
△한상복⁵⁴ △한상봉⁵⁷ △한상욱⁵⁵
△한익삼⁶¹ △한춘연⁵² △허정희⁷²
△현호연⁵³ △홍갑선⁵⁴ △홍순일⁶³
◆문리대 △강신성⁵⁵ △공대식⁵⁰
△구본룡⁶⁹ △권기선⁵⁴ △권의식⁶⁷
△김광규⁶⁰ △김기동⁶⁵ △김기원⁶⁵
△김명정⁶⁴ △김생기⁵⁹ △김성수⁵⁴
△김수년⁴⁹ △김수종⁶⁸ △김수학⁵³
△김옥남⁵² △김용권⁵⁰ △김용남⁶³
△김용태⁶⁵ △김철용⁵⁴ △김치근⁵³
△김태욱⁵⁸ △나미례⁶⁵ △남이웅⁶⁸
△도태균⁶³ △도홍길⁶¹ △류수현⁴⁸
△명동원⁷¹ △명제영⁵⁵ △문 용⁴⁹
△민경전⁴⁶ △박대일⁶¹ △박상우⁵⁸
△박상태⁵⁹ △박용우⁷⁰ △박원우⁵⁰
△박재만⁵⁴ △박진하⁴⁸ △박창고⁵⁹
△박택규⁵⁵ △박형달⁵⁵ △박희주⁵³
△백병기⁶⁰ △백제현⁴⁸ △서기원⁵⁷
△서병철⁵⁹ △서일환⁵⁵ △서정태⁵⁵
△성만용⁵³ △손장순⁵⁴ △손후엽⁶¹
△송병희⁵¹ △송인찬⁵⁹ △안남수⁵⁴
△안상경⁵⁴ △양천식⁶⁹ △양철주⁵⁹
△염태호⁵⁹ △오인환⁵⁵ △오인환⁵⁸
△오재규⁵² △온준철⁶⁴ △우창용⁵²
△유정열⁵² △유진당⁵⁴ △윤영탁⁶⁰
△윤임구⁶¹ △윤하정⁴⁷ △이 순⁵⁵
△이규일⁵³ △이규준⁵⁵ △이돈형⁵⁸
△이문구⁵⁹ △이병근⁵⁹ △이성재⁵⁹
△이수호⁴⁹ △이영준⁶⁷ △이정덕⁵⁵
△이정훈⁵⁷ △이주용⁵³ △이평우⁴⁸
△이혜정⁴⁸ △임동규⁵⁵ △임병주⁵⁰
△장갑석⁵³ △장종하⁵⁹ △장화순⁵⁰
△장희희⁵² △전대식⁵³ △전만수⁵⁵
△전석홍⁵⁴ △정 탄⁶⁵ △정삼윤⁶⁴
△정서웅⁶² △정영의⁵⁵ △정지식⁶¹
△정태식⁵⁶ △조계찬⁴⁷ △조규광⁴⁸
△조무현⁶⁸ △조용주⁶⁷ △주석순⁴⁸
△진무현⁵² △차기백⁴⁶ △최동환⁴⁹
△최성규⁶⁰ △최영길⁵⁸ △최원우⁶⁵
△최인일⁶⁸ △한창호⁶⁵ △홍혜숙⁶⁸
△황연익⁵⁷ △황의박⁶³ △황하복⁵⁶

◆미대 △김경수⁵⁶ △김선미⁸⁸
△김영자⁶³ △성낙인⁴⁶ △유영일⁸³
△이상은⁸⁶ △이주현⁹⁸ △정성화⁵⁶
△정지환⁶⁰ △조태병⁷⁰ △주진희⁷⁴
△전진희⁷⁶ △최연희⁶⁸ △최진주⁸¹
△함해란⁸³
◆법대 △강상진⁸⁷ △강영균⁸⁴
△강형중⁸⁴ △곽창욱⁵⁸ △구중희⁴⁸
△권지용⁴⁸ △김광현⁵⁴ △김국열⁹²
△김국진⁶⁰ △김길영⁵¹ △김남진⁵¹
△김대현⁸⁵ △김동익⁵³ △김래니⁸⁸
△김명종⁶¹ △김명종⁸⁵ △김명진⁷⁴
△김병철⁸³ △김병호⁸² △김상갑⁶⁹
△김상균⁷⁷ △김상욱⁶⁹ △김상태⁴⁸
△김선규⁵⁵ △김성엽⁸³ △김세중⁸²
△김순구⁵⁸ △김영균⁵² △김영삼⁶¹
△김영환⁶² △김용호⁷⁶ △김운택⁵⁰
△김의환⁸¹ △김일덕⁵⁶ △김재상⁸³
△김정환⁵⁷ △김종근⁶⁹ △김종률⁸¹
△김종춘⁸⁶ △김준섭⁰⁴ △김진기⁶⁷
△김창국⁵⁶ △김창근⁵¹ △김철용⁵⁴
△김철진⁵⁰ △김학자⁸⁵ △김해산⁵⁷
△김현민⁶¹ △김형렬⁸³ △노승환⁵⁸
△노창동⁸² △류재신⁴⁸ △류준형⁵¹
△류진열⁷² △맹주전⁹⁰ △맹노연⁹⁸
△문대성⁸⁵ △문정두⁶⁰ △문택상⁵⁰
△민병환⁸⁶ △박광전⁸¹ △박동규⁰²

△박민철⁹⁸ △박상우⁷⁵ △박성진⁸⁴
△박승준⁸⁰ △박요찬⁸¹ △박용우⁸⁸
△박정원⁸¹ △박종순⁵⁴ △박종태⁸⁴
△박진우⁹² △박철우⁵⁴ △박태기⁸³
△박형남⁷⁸ △배기열⁸² △배상오⁵⁵
△백보윤⁶¹ △백세웅⁶⁴ △백영엽⁷¹
△백운수⁶⁵ △변은석⁸⁹ △봉종현⁵⁷
△석성환⁵⁴ △성봉경⁷⁸ △손석주⁵⁵
△손종대⁶⁶ △송경숙⁹¹ △송상규⁸⁴
△신상갑⁵³ △신수길⁷⁷ △신원도⁸⁷
△신창동⁴⁷ △신현욱⁶⁶ △심상명⁶⁰
△안남규⁵⁰ △양승상⁵⁶ △염동희⁴⁹
△오성진⁸³ △오종권⁶⁵ △오효민⁹⁵
△우영화⁶² △원은섭⁶³ △원의종⁵⁵
△유병규⁸³ △유병환⁷⁷ △유영상⁸¹
△유영해⁴⁶ △윤상묵⁵² △윤재승⁸¹
△윤정경⁵⁵ △이강수⁵³ △이대우⁶⁷
△이동렬⁶⁸ △이동원⁹⁰ △이백규⁸³
△이석수⁸¹ △이승주⁰⁵ △이승훈⁸⁰
△이용관⁹⁹ △이재인⁹³ △이제영⁸³
△이종진⁶³ △이종주⁸⁵ △이준규⁷²
△이창범⁵³ △이채주⁵³ △이하우⁵⁸
△이현상⁸⁷ △이현수⁹² △이형진⁸¹
△임성근⁸² △임종식⁷⁹ △장상재⁵⁵
△전병덕⁴⁷ △전오영⁸² △정용재⁵⁷
△정의식⁸³ △정점식⁸⁴ △정종현⁶⁰
△정창섭⁷⁴ △정혜경⁰³ △조남현⁵⁴
△조병선⁵⁷ △조성제⁸⁵ △조용석⁵³
△조주순⁶¹ △조해현⁸¹ △조훈갑⁰⁰
△주경진⁵⁵ △진동수⁶⁷ △최강섭⁷⁸
△최기선⁶⁴ △최명선⁵⁹ △최상원⁸²
△최세영⁶⁰ △최진갑⁷² △최형준⁵¹
△추영일⁶¹ △하운홍⁸⁰ △한 경⁷⁹
△한동우⁶⁶ △한상술⁵⁸ △한상태⁵⁶
△한용기⁶² △허 근⁴⁹ △허만조⁶⁴
△현희남⁵⁷ △홍기인⁵⁵ △황도연⁵²
△황선무⁵⁸ △황영욱⁵⁹ △황운영⁵⁵
△황재성⁶⁴ △황찬홍⁶⁵

◆사대 △강길선⁵⁷ △강신홍⁵³
△강양희⁵⁷ △강한필⁵⁹ △고병철⁶¹
△고준식⁵¹ △구본안⁵⁹ △구양언⁶⁰
△김계연⁶⁸ △김광운⁷³ △김광준⁶⁷
△김길순⁶¹ △김길중⁴⁸ △김다립⁹⁵
△김병수⁵⁹ △김상욱⁴⁷ △김성용⁵⁹
△김성진⁵³ △김순신⁵¹ △김용복⁶⁷
△김주현⁵⁷ △김준엽⁰² △김준한⁶¹
△김진원⁵⁶ △김진후⁷⁴ △김창규⁵⁸
△김창호⁶⁹ △김태영⁶⁰ △김학찬⁶²
△김형구⁵⁶ △김화인⁰⁴ △김효진⁸⁵
△나고찬⁵² △남궁기⁴¹ △남규묵⁴³
△남한식⁵¹ △류은선⁸⁷ △박갑순⁵²
△박나영⁰³ △박성민⁷⁰ △박순애⁵⁰
△박승한⁵³ △박영묵⁵⁶ △박원규⁸⁰
△박은실⁰² △박장순⁵² △박제동⁷⁰
△박종근⁶⁰ △박종삼⁵⁹ △박종식⁷⁴
△박춘진⁵⁷ △박태화⁵² △방재근⁶²
△배병일⁵⁸ △변영희⁶⁶ △봉정모⁷²
△서경룡⁶⁰ △서윤수⁴⁸ △서인경⁵¹
△서정기⁵³ △성기종⁵⁴ △성하경⁵⁶
△송동수⁶⁷ △송재숙⁷¹ △신문섭⁶⁰
△신찬우⁴⁸ △심숙주⁷⁴ △안운신⁵⁵
△안종만⁵³ △안종환⁵⁵ △오경자⁵²
△오범호⁹³ △오진경³⁸ △우명길⁶⁸
△우상혁⁵⁶ △원현주⁹⁷ △유기웅⁵⁹
△유명선⁶⁷ △유민영⁵⁷ △유환욱⁷⁸
△유희연⁵⁹ △윤성원⁵⁷ △윤영준⁸⁴
△윤희욱⁶⁰ △이강범⁵⁷ △이광범⁹²
△이대규⁵⁷ △이매기⁸⁷ △이상완⁵²
△이상욱⁵¹ △이석주⁵⁶ △이성구⁶⁴
△이양선⁵⁶ △이영애⁶⁷ △이영주⁵⁶
△이왕근⁶⁶ △이용우⁵⁵ △이윤우⁶⁴

△이은희⁹² △이정태⁵⁵ △이정태⁷⁰
△이종덕⁶⁰ △이종연⁶³ △이종희⁴⁰
△이종석⁰² △이창호⁷¹ △이한부⁷¹
△이현규⁶² △이호상⁵⁷ △이환배⁵⁴
△임찬희⁷⁸ △임학수⁶⁹ △장병덕⁵³
△장정현⁷⁸ △전래수⁵² △전팔근⁴⁷
△정두영⁶⁰ △정두현⁶⁰ △정문환⁵⁶
△정보미⁰⁶ △정봉우⁷⁹ △정영수⁸⁴
△정은혜⁰² △정의포⁷⁰ △정정권⁶⁷
△정희섭⁷⁶ △제옥례³³ △조경오⁷⁵
△조익선⁴⁰ △조정제⁵³ △진원우⁷²
△최계숙⁵² △최병록⁴⁹ △최안기⁷⁰
△최익규⁵⁰ △하민천⁵⁴ △하병권⁵⁷
△하영준⁵⁶ △한상순⁴⁶ △한원영⁴⁹
△홍성일⁷³ △홍승희⁸⁵ △홍인기⁵⁴
△홍종봉⁵⁴ △황기탁⁴⁹ △황석근⁵¹
△황세열⁴⁹

◆상대 △강상기⁵³ △강용운⁶¹
△강좌희⁵⁵ △곽 규⁵¹ △구의일⁶¹
△권민식⁶⁵ △권영욱⁵⁴ △권찬준⁶³
△김기영⁵³ △김남택⁶² △김동엽⁶²
△김동휘⁴⁸ △김범수⁵⁷ △김상렬⁶⁴
△김상희⁶⁹ △김선길⁴⁵ △김연조⁵⁶
△김영무⁵⁶ △김유일⁵³ △김은수⁵⁰
△김인기⁵² △김장현⁵⁴ △김재수⁵⁸
△김종원⁵⁶ △김진주⁶⁰ △김진호⁵⁰
△김진화⁵⁸ △남영우⁶⁹ △문무상⁵⁴
△문영지⁵⁵ △민병패⁵² △박경석⁵³
△박기환⁶¹ △박복양⁴⁴ △박상효⁶³
△박진화⁵⁵ △박홍서⁴⁹ △서재진⁶⁰
△설 유⁶⁴ △성백규⁵² △손명환⁶¹
△손홍규⁵¹ △송인상³⁵ △송주식⁴⁶
△심병구⁴⁹ △심소일⁴⁹ △심창순⁵⁸
△안희중⁵⁹ △염재현⁶⁵ △오정현⁵⁴

△송승희99 △양순애95 △엄문경85
△오병무62 △우재성71 △윤여상57
△윤용상78 △윤은정03 △이동악57
△이석구62 △이애영56 △이일영56
△이재현77 △정상철52 △정원장05
△조우상56 △조지웅53 △주상훈91
△최병규52 △최현식64 △한지연08
△허 백50 △허 용47 △허병기66
◆음대 △강진구71 △권혁남58
△김금수76 △김영진82 △김은경57
△김지윤93 △김현이82 △김형규60
△박정자60 △방영호80 △서혜연82
△신혜주76 △안종덕81 △윤기숙82
△윤명순79 △윤현주67 △이경미79
△이신희70 △이윤정04 △이주원92
△이준성81 △이지연93 △임정선57
△정상열81 △정은희87 △정이와03
△차세정95
◆의대 △강성섭66 △강승백82
△김길남75 △김병엽50 △김애식70
△김인호71 △김창석85 △김철민87
△남궁견67 △류인균82 △박수영05
△박신근61 △박재홍80 △박한철53
△박현승77 △박홍용80 △박훈영71
△방덕환53 △배현미06 △성낙응44
△성송기90 △송익훈45 △신명희56
△신성우47 △심성은91 △양솔몬00
△염용태58 △오준호45 △위정봉56
△유형록57 △윤주영01 △이 희68
△이덕수55 △이명춘83 △이상림46
△이상완55 △이승원97 △이정균56
△이종석79 △이종혁55 △이준걸88
△이중환51 △이춘식61 △이희길51
△이학중52 △이훈훈05 △임형석81
△장선택46 △장운삼45 △장준우87
△전예근46 △정구현44 △정범영94
△정요한51 △정해철76 △조성근47
△조승현45 △조한익61 △주영식69
△주원식76 △차명진01 △채희복85
△최관홍52 △최덕영58 △최수용07
△한인교66 △황규전74 △황태영95
◆치대 △강정욱83 △구본석78
△구연우54 △김기석67 △김기수78
△김두현58 △김상세60 △김여미74
△김영권55 △김옥희77 △김원겸82
△김응만81 △김정균59 △김정욱83
△김종태70 △김지현05 △김진환95

△김창희62 △김택근58 △김현태76
△김휘철77 △노철진54 △류홍렬77
△문형주79 △박건배70 △박경정69
△박기호57 △박용한78 △박재간79
△박홍규71 △백경동86 △백승진75
△변춘석81 △석창인81 △성철제63
△손대식65 △손영경86 △손호현70
△신동인76 △신문혁63 △양철호87
△여인호79 △오기환53 △용호택67
△유세청51 △윤경호58 △윤동호80
△윤봉윤79 △윤임도72 △윤철민82
△이경모76 △이관우91 △이명호72
△이봉호86 △이상선81 △이석근90
△이승중69 △이영희56 △이인창60
△이재명63 △이준기55 △이정룡70
△이한규92 △임장섭54 △임형우57
△장기산57 △장동재79 △장병우83
△전혜립85 △전훈식59 △정호길71
△조경석79 △조광현70 △조영진82
△차만희57 △최승훈81 △최인선82
△최진규87 △한 송68 △한건웅61
△한세희88 △허정규62 △홍현중82
◆대학원 △강 욱88 △권혁대84
△김경남84 △김기혁85 △김병주85
△김석기03 △김순희66 △김인배68
△김중수79 △김진수83 △박미경93
△박원명64 △송강영91 △오진욱92
△우주하82 △윤민재90 △이효수84
△지병전82 △최병희63 △최인수85
△토토쿠니01 △토키이03 △한상서95
◆경대원 △고창석71 △박정남69
△최갑석72
◆교대원 △변정숙64 △정월용73
◆국대원 △박지훈05 △손명아02
△엄혜원05
◆보대원 △김영웅75 △김영태98
△김운서72 △김종만62 △김학기76
△박남영59 △서은하96 △오병근88
△윤지선04 △윤희선98 △이민희74
△이한구69 △전태윤77 △정건작87
△정준영66 △최영아74 △홍영희75
△황금복76
◆치대원 △권순모06
◆행대원 △김진근08 △박재석71
△박정훈59 △유필우75 △이성기63
△이충열95 △임세환71 △허성두71
◆환대원 △김성중82 △김인근84

△박은혜08 △유철상77 △윤희일79
△채승기81
◆AMP △강신도61 △강희조26
△곽덕근54 △권혁중5 △김광수45
△김구섭66 △김명립64 △김성호32
△김영광65 △김영훈49 △김용수15
△김응열25 △김장환15 △김종선48
△김중성39 △김중현49 △김치근7
△김택동68 △나외수38 △류동현57
△민경서48 △민명술42 △민상기25
△박노선12 △박달용4 △박인석53
△박인종25 △박일동66 △박철규61
△백문현25 △서철봉33 △석 강61
△송학성63 △신말업34 △신우식24
△신종식64 △신중규4 △심갑보3
△안영복1 △안치한31 △염정태40
△오희택1 △우정욱37 △원동혁16
△유춘웅31 △윤용암66 △윤종호48
△윤준식65 △이강남44 △이국노61
△이사영57 △이성철12 △이승휘49
△이시용31 △이영주5 △이정희64
△이준환69 △이행기48 △이호선68
△이호수35 △장기홍8 △장남진48
△장활수13 △전동근11 △정 열14
△정공식63 △정기택31 △정상태36
△정윤대64 △정일기35 △정희병45
△정희원60 △조내벽31 △조승조68
△지대섭56 △진홍균9 △치순영68
△전광찬28 △최영석11 △최영식4
△최영철20 △최종명14 △한중희28
◆AIP △강인순9 △공소열13
△곽상욱30 △구왕현12 △김성환43
△김수기14 △김은수40 △김일수14
△김정웅12 △김종백43 △김주평28
△김태우40 △김해선26 △문영식13
△박종원27 △송한주19 △신길웅10
△오 현5 △유각목5 △유춘중14
△윤백중4 △윤재영36 △이건구24
△이봉훈36 △이석원36 △이재서11
△이현희15 △장일재3 △정상원39
△조일래41 △한창민37 △황이남22
◆ACAD △강성수69 △김바림33
△김영길49 △김영수69 △김형준47
△노희식38 △류근환13 △문동신55
△박기철39 △방동식27 △서대일37
△서삼석66 △성기태59 △성시철55
△안승우38 △안희수11 △오복용51

△오필기2 △유재만19 △이강연27
△이경영7 △이경환64 △이교용40
△이영기27 △이용대63 △이윤희18
△이학동44 △이효자70 △임충규45
△장준경23 △전영배5 △정동우6
△정희엽70 △조남조15 △조옥식16
△최병인5 △최완용67 △최재승38
△최철규68 △최형태68 △황상모66
◆ABPB △권금자23 △김원현6
△김창수34 △마호웅32 △박형규20
△송기덕23 △심형보16 △양관석20
△유충열29 △이병운30 △이수연23
△전안희20 △허선구7 △황승환30
◆SGS △서보상19 △유금중3
△이영강24 △이창복13 △임득현6
△임정규16 △정휴병15 △최병진20
△황정식2 △황종현18
◆CHCN △박은수7 △조홍자12
◆APC △서평근5 △손일근3
△신광현7 △이범희3 △조성구7
△한길호4
◆HPM △권오성23 △김남수14
△김재영10 △김중기21 △박제상14
△배영봉14 △손규호11 △양통권23
△이복임12 △이석태23 △이신락23
△이영완1 △이은정14 △이주국2
△전영숙5 △조정식23 △최병영22
△최창욱14 △한상섭12 △홍의표9
◆AMPP △강철환10 △김을동11
△송실광7 △유병무11 △이상철5
△이은세9 △진노석4
◆AIC △권성욱8 △권오열7
△박병후10 △박태규5 △신철화22
△정장환11
◆AFB △곽 후10 △김관택10
△김명섭10 △김명섭10 △김수호9
△김재명10 △김호운4 △민선기7
△박영배10 △배성재10 △양근영10
△윤치영9 △이영두9 △정찬근10
△최동기9
◆AMPFRI △강정목9 △권태봉14
△김원규26 △김인호7 △김진수7
△문순례27 △박용철4 △배명섭9
△유영기23 △이경삼11 △이규태14
△이선호13 △이정자10 △이태갑14
△조형찬11 △현준녀20
◆ACPMP △곽창수7 △구본출5

△김구열4 △김수용7 △김종호4
△김창환5 △양남용6 △오윤택5
△전혜선6 △최운성7 △하대청5
◆GLP △강병섭21 △강병현21
△김병윤16 △김영숙16 △김영철11
△김영훈18 △김옥정10 △김용태17
△김우관14 △김원철15 △김일연11
△김중대20 △김태화11 △김홍수22
△남미경22 △박세연20 △박희수15
△오보석20 △오창근17 △유영은19
△유학동22 △이석형12 △이정우13
△이준형5 △이충모22 △이형훈22
△이희준22 △임재묵9 △장현봉20
△조준희22 △조호현14 △최광호22
△최진철18 △최홍준22 △한충권20
◆ALP △권동환2 △김요성8
△박 찬12 △박청수11 △안종만3
△이정재8 △장석산9 △장일석4
△허영호4
◆ANMP △변금순5
◆SPARC △구재홍9 △권세원16
△김유경2 △유성택16 △윤상기1
△이덕록7 △정재원5 △황보석1
◆ASP △박종득9 △배동기19
△손영국6 △유태완16 △이갑형10

분 담 금

- ◆미주동창회 1만1천달러
- ◆오스트리아지부 769,710원
- ◆오사카지부 570,550원
- ◆시드니지부 544,500원
- ◆상해지부 500,000원
- ◆태국지부 500,000원
- ◆멜버른지부 300,000원

1 월 계 :	89,960,000원
평 생 회 비 :	65,500,000원
입 회 비 :	220,000원
총 계 :	155,680,000원



제6회 서울대 동문 골프대회



“즐겁고 행복하게 라운드한 분이 오늘의 우승자”

동문 골프대회서 法大 단체 우승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2010년 9월 14일 인천 시 스카이72골프클럽 하늘코스에서 제6회 서울대 동문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각 단과대학(원)과 특별과정, 직능 및 지방 지부동창회에서 참가한 동문 1백37명이 샷건방식으로 18홀을 돌았다.

순위를 가리는 대표팀 단체전과 개인전은 스트로크방식, 남·여 친선팀은 신페리오방식으로 진행됐다.

동문 골프대회는 각 동창회의 폭발적인 관심과 협조로 매년 여러 학과와 과정을 졸업한 동문들이 고루 참가해 동문들의 친목을 대표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했으며 시종일관 멋진 플레이와 선후배간 정담을 나누는 모습이 연출됐다.

林光洙회장은 대회사에서 ‘골프는 멘탈게임(Mental Game)이며, 좋은 생각이 좋은 샷을 만들고, 골프와 인생은 닮은 꼴’이라며 “내가 제일 즐거웠고, 행복한 라운드를 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오늘의 우승자”라고 말했다.

이어 모교 李基俊 前총장은 “골프를 통해 훌륭한 동문들을 많이 만나 감회가 새롭고, 함께 운동을 하

면서 존경하는 선배님들이 더 젊어지시고 건강해지는 비결이 골프에 있다는 것을 배웠다”며 “서울대의 발전과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한다”고 건배를 제의했다.

朴榮敏(체육교육62-66)경기위원장의 보고에 이어진 본상 시상에서 제5회 서울대 동문 골프대회에서 3위에 머물렀던 법과대학동창회팀이 합계2백31타로 대표팀 단체전 우승을 차지해 우승기와 기념품을 받았다.

단체전 경기결과는 지난해에 우승했던 치과대학동창회팀이 2백32타로 준우승,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팀이 2백34타로 3위에 올랐다.

남녀 메달리스트에 71타를 기록한 河光龍(법학76-80)동문과 81타를 친 金貞子(HPM 20기)동문이 선정됐다.

대표팀 개인전 우승은 72타를 기록한 金壯珉(AMP 69기)동문이 차지했으며, 남녀 친선팀에서는 元賢守(화학74-78)동문과 李順全(체육교육66-70)동문이 각각 1위에 올랐다.

張在憲(HPM 15기)동문이 2백70야드, 丘香玉(AIP 37기)동문이 2백45야드를 쳐 남녀 롱기스트를 차지했다.

남자 니어리스트상은 李世榮(약학57-61)동문, 여자 니어리스트상은 南娟先(사범85-89)동문에게 돌아갔다.

남녀 감투상은 金在浩(생물교육53-57)동문과 朴誠愛(간호66-70)동문, 남녀 행운상은 吳東熙(건축78-82)동문과 許鈺卿(AIP 42기)동문이 차지했다.

이날 홀인원을 기록할 경우 대림산업 李竣鎔(경제56-60 본회 부회장)명예회장이 협찬한 스쿠터 1대를 부상으로 제공하기로 했으나 행운의 홀인원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참가자들은 골프모자를 비롯한 각종 골프용품과 썬크림, 식초 등 기념품으로 받았으며 모교 발전기금에서 즉석 기념사진을 제공했다.

이밖에도 참가자들은 만찬 후 추첨을 통해 건강검진권, 공기청정기, 디지털 카메라, 골프용품, 호텔식사권, 건강식품, 디지털 피아노와 클래식 기타 등 푸짐한 경품을 받았다.

삼익악기 金鍾燮(사회산업66-20 본회 부회장)회장이 제공한 디지털 피아노는 朴誠愛(간호66-70)동문이 받았으며, 대림산업 李竣鎔명예회장이 제공한 스쿠터는 朴榮植(AIP 28기)동문이 당첨됐다.

제6회 서울대 동문 골프대회

각 부문 별 수상자

- ▲ 대표팀
단체전 △우승 : 법과대학동창회 禹泳華(법학62-66) · 金鉉翼(법학73-80) · 河光龍(법학76-80)
동문 △2위 : 치과대학동창회 羅炳宣(치의학69-76) · 姜泰聲(치의학71-77) · 林鐘昊(치의학82-88)동문 △3위 : AMP동창회 金壯珉(AMP 69기) · 柳來景(AMP 69기) · 任爽燦(AMP 69기)동문
개인전 △우승 : 金壯珉(AMP 69기)동문 △2위 : 宋亮鉉(HPM 11기)동문 △3위 : 金亨中(GLP 17기)동문 △4위 : 林鐘昊(치의학82-88)동문 △5위 : 金龍太(GLP 17기)동문
- ▲ 친선팀
△우승 : 元賢守(화학74-78) · 李順全(체육교육66-70)동문 △2위 : 李鐘大(GLP 16기) · 李吉女(의학51-57)동문 △3위 : 李在源(상학55-59) · 洪在希(GLP 20기)동문 △4위 : 金鍾錫(AMPFRI 23기) · 成善玉(AIP 28기)동문 △5위 : 金성훈(GLP 17기) · 南嬌先(사법85-89)동문
- ▲ 메달리스트 : 河光龍(법학76-80) · 金貞子(HPM 20기)동문
▲ 롱기스트 : 張在憲(HPM 15기) · 丘香玉(AIP 37기)동문
▲ 니어리스트 : 李世榮(약학57-61) · 南嬌先(사법85-89)동문
▲ 감투상 : 金在浩(생물교육53-57) · 朴誠愛(간호66-70)동문
▲ 행운상 : 吳東熙(건축78-82) · 許鉦卿(AIP 42기)동문



林光洙회장은 대회사에서 “좋은 생각이 좋은 샷을 만들고, 골프와 인생은 닮은 꼴”이라고 말했다.



대표팀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법과대학동창회팀



대표팀 단체전에서 2위를 차지한 치과대학 동창회팀



대표팀 단체전에서 3위를 차지한 AMP동창회팀



대표팀 개인우승 金壯珉(右)동문



대표팀 개인 2위 宋亮鉉(HPM 11기)동문



대표팀 개인 3위 金亨中(GLP 17기)동문



친선팀 남자우승 元賢守(右)동문



친선팀 여자우승 李順全(右)동문

■ THEME STORY

골프에서 스트레스와 분노를 제거하라

골프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중 가장 중요한 비법은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이다. 첫 티샷을 망치면 어떡하지, 아이언샷이 똑바로 안 나가면 큰 일 나는데, 짧은 거리에 서의 퍼팅을 실수하지나 않을지 등을 걱정하다보면 결국 실수가 나기 마련이다. 그것이 심리적인 위축을 가져오면서 티수를 줄이지 못하는 악영향을 주게 된다. 그런에서 감심장이 된다는 것은 마음을 비워 편안하게 골프를 즐기는 것이고 그리된다면 한결 안정된 플레이를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

골퍼들이 18홀 라운드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홀은 어디일까? 의외로 2번홀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허석호는 “경험을 통해서 볼 때, 그리고 일본에서 혈압전문 의사와 라운드하면서 실제로 측정한 결과 두 번째 홀에서 혈압이 가장 높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혈압이 평상 시보다 갑자기 높아진다는 것은 순간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고, 이는 곧 중압감을 느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허석호는 일본의 병원 의사와 라운드를 하면서 홀별로 혈압을 재보았다. 그 결과 다른 17개 홀보다 두 번째 홀에서 혈압이 가장 높게 측정됐다. 평상 시 혈압이 120mmHg인 사람이 두 번째 홀에서는 130mmHg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는 다른 골퍼들도 마찬가지였고, 프로나 아마추어 골퍼 모두 해당됐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라운드를 할 때는 두 번째 홀에서 스트레스가 심하므로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하지만 이런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분노를 불러올 수 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한다. 그 중 분노(화)는 인간에게는 다스려야하는 감정일 것이다.

화 때문에 ‘가슴 속에서 열이 치밀어 오르고 가슴이 두근거린다.’, ‘가슴이 팍 막히고 말하기도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1996년 미국 정신과 협회에서 한국인 특유의 질병으로 인정한 것으로 화병 증상이 있다. 발병 초기엔 분노심에 추운 날씨도 못 느낄 정도로 화기가 강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가슴 속에 한 맺힌 응어리가 우울증의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회로애락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화병이 발생하는 사람을 급격히 줄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골프에서 분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다. 2008년에 일어났던 해프닝을 살펴보면 대회 중 화를 참지 못한 선수가 라운드 중에 퍼터를 구부려 남은 홀을 웨지로 퍼트한 일이 있다. PODS챔피언십 2라운드 2번홀에서 부 위클리는 3m 거리에서 3퍼트를 하자 화를 못 참고 퍼터를 구부려버렸다. 그 결과 나머지 16개 홀을 웨지로 퍼트했다. 이안 폴터도 CA챔피언십 3라운드 15번 홀

에서 심심풀이로 퍼터로 지면을 때리다 헤드가 덜렁덜렁하게 뒤흔들었다. 그는 다른 퍼터로 교체하지 못 했고, 남은 4개 홀을 웨지로 퍼트했다. 정상적인 라운드 과정에서 클럽이 손상될 경우에만 다른 클럽으로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웨지로 퍼트를 해야만 했다.

골프를 잘하려면 감정 조절을 잘 해야한다 좋은 플레이를 하려면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해야 한다. 감정 조절이 안 된다면 갈수록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이기 때문에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없게 된다. 라운드 도중 자신의 감정에 휩싸여 플레이를 망치지 않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첫째 고무 밴드를 왼쪽 손목에 차고 플레이한다. 라운드 도중 실수에 따른 자책감이 들거나 샷의 결과에 불만이 생기면 왼손에 차고 있던 고무 밴드를 잡아 당겼다가 놓는다. 따끔하게 느끼는 것으로 심리적 압박감과 불만을 뽐겨 버릴 수 있다. 둘째 스윙 중 말을 한다. 플레이 결과에 대해서 짜증나기 시작하면 집중하기 쉬운 말을 입으로 소리 내면서 스윙한다. 감정이 격화된 상황에서 스윙 도중 말을 하면 잃었던 스윙 감각을 되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키보드의 딜리트 키(delete key)를 생각하는 것도 좋다. 플레이를 잘못된 홀의 결과나 실수한 샷들을 단순히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기 위해서 키보드의 지우기를 누른다고 연상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앞으로 플레이해야 할 홀들의 결과가 중요하지 이미 플레이를 마친 홀들의 결과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감정 중에서도 화를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지혜롭게 화내는 10가지 테크닉을 알려주겠다.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의 기분에 죄우되지 마라. 지혜로운 분노, 관리의 첫걸음은 ‘분노는 선택이다.’라는 명제를 인식하는데 있다.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 때문에 화가 난다고 생각한다.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거짓말을 해서, 모욕을 주어서 등등 화를 내게 만드는 일이 있다. 하지만 같은 조건에서도 내 선택에 의해 분노는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침착함을 잃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공격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을 테니까. 괜히 버벅거리다가 자신의 속내를 내보이기 쉬운 법.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라.

두 번째로 당당하게 말하라. 원래 건드리는 사람의 성향은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아비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스스로 자신을 약하게 만들기에 싸우지 않고서도 쉽게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강박감에서 벗어나라. 일단 어떤 사람에게 화가 났다면 심호흡을 크게 한 후, 공간적,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마음의 평정을 찾은 후에 이야기를 풀어낸다.

네 번째로 상대를 제풀에 지쳐 나가떨어지게 해라. 상대의 자극적인 말을 가슴에 담아 두지 말고 무시하라. 오히려 상대를 쳐다보며 친근하게 미소를 날려주자. 신경에 거슬리는 상대의 말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완전히 다른 화제를 끄집어낸다.

다섯 번째로 되물어서 독기를 빼라. 나에게 상처를 주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상대방에게 즉시 되물어라. 상대방에게도 건설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 순발력 있고 재치 있는 반격을 위해 말을 많이 할 필요는 없다. 한 마디면 충분하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또는 “아하, 그래!” 정도면 충분하다.

여섯 번째로 반복적인 분노를 줄여라. 일반적으로 우리는 심각한 분노 상황일수록 여러 번에 걸쳐 화를 낸다. 하지만 반복되는 분노 경험은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 지금부터 심각한 분노를 경험할 때마다 나 자신에게 이렇게 던져 보자. “나는 이 사건을 통해 도대체 몇 번이나 화를 내고 있는가?”, “얼마나 오래 화를 내고 있는가?” 동일한 상황으로부터 반복적 분노를 줄이는 것에 노력해야 한다. 논리적으로 볼 때 첫 번째 분노는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 해도, 두 번째부터는 내가 나한테 분노를 일으키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상대의 잘못은 한 번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쓸데없이 내가 나를 두 번, 세 번 북아대서 화를 낼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일곱 번째로 자기 존중감을 키워라.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지혜롭게 화를 낸다. 하지만 아쉽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사랑 받고 있는 존재라고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그리고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몇이나 될까? 나 자신을 칭찬해주고 나 자신을 아껴주는 ‘자기 존중감’을 키우는 일에 매진할 일이다. 무조건적 가치관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각자마다 고유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늘 존재한다.

단, 이는 우리 각자가 그 고유한 가치를 인식하고 선택하는가에 달려 있다. 오늘부터라도 거울을 보면서 미소를 지으며 나 자신을 칭찬해주는 일을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 자기긍정의 에너지로 지혜로운 화조절의 기본기를 쌓아가자.

여덟 번째로 상대방에 대입시킨 당위적 기대치를 버려라. 인간의 삶 속에서 ‘반드시~해야 한다.’라는 당위적 기대는 일반적으로 무리한 기대인 경우가 많다. 예컨대 ‘약속을 했으면 언제나 제시간에 와야 한다.’는 당위적 기대를 보자. 이것이 과연 현실적인 기대인가? 이 기대를 나 자신에게 적용해보자. 즉 ‘나는 언제나 시간을 지켰는가?’를 되묻는 것이다. 이 같은 대입을 해보면 대부분의 당위적 기대에 무리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자.

이홉 번째로 분노 표현에서도 중용을 지켜라. 아무리 효과적인 분노 관리를 채택한다 해도 분노는 우리의 삶 속에 늘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분노(화)는 인간에게 가장 핵심적인 정서이며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니다. 아니, 때로는 필요하기까지 하다. 즉 분노 관리의 목적은 불필요하고 파괴적인 분노를 줄이거나 제거하는데 있는 것이지 분노 자체를 없애는데 있지 않다. 과격하거나 때론 너무 소극적이거나 적절한 중심점을 찾아내는 데도 적절한 테크닉을 갖출 일이다.

마지막으로 핵심을 명확하게 말하라. 무엇이 나를 아프게 했고 무엇이 나를 화나게 했는지 간단, 명료하게 말하라. 상대와 대화의 규칙을 정해보는 것도 좋다.



■ DISCUSSION GOLF

네티즌, 남성 캐디에 대한 댓글 한마당

골프장의 남성 캐디에 대해 다양한 입장의 의견을 남기다

골프를 하다보면 골퍼들에게 도움을 주는 숨은 일꾼이 있다. 바로 캐디다. 골프에서 캐디는 고용을 통해서 단순히 일을 도와주는 관계가 아니다. 단순히 골퍼들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넘어서 경기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안 보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요즘처럼 스포츠에서도 멘탈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을 때 골퍼들의 경기에 안정을 주는 캐디는 가장 큰 재산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골프장 캐디로 종사하는 사람들은 약 40,000여명 정도이고, 향후 증설되는 골프장을 포함하면 대략 70,000여명이 될 것으로 추산한다. 신설 골프장캐디의 학력은 약 30~40% 정도가 초대졸 이상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제 캐디는 전문직으로 자리를 잡아가며 촉망받는 직업군이 되고 있다.

골프에서 캐디가 있기 시작한 때는 300년이 넘었다고 한다. 캐디가 언제 시작됐는지 유래에 대해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캐디의 역사에 대해 스코틀랜드에서 일러스트레이터이며 배우이고, 톰 모리스에 관해 연구했던 데이비드 조이씨가 기술했던 서책에 의하면 그중 두 가지의 설이 유력하며 현재의 골프사에서는 캐디의 어원(語源)으로 삼고 있는 유래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캐디의 역사는 어떨까? 기본적으로 한국 골프의 역사를 알아보면 1900년대 함경남도 원

산의 세관 안에 있던 영국인들이 6홀을 만들어 경기한 것이 시초가 되어, 일제강점기 일인 관리와 사업가들을 통해 한국인들에게 전파됐다는 통설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캐디가 최초로 등장한 것은 1930년대 초 개장한 군자리 코스 시절부터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1921년 개장한 효창원 골프코스와 1924년 개장한 청량리 골프시절에는 캐디라기보다는 골퍼가 코스에 나오면 직장에서 데리고 나온 사환들이었던 예가 많았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가끔 마을의 농부를 고용할 때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1930년대 경성골프구락부 소속 캐디 마스터(김종직)가 그 날 소요되는 인원을 주변마을에 연락하면 캐디를 맡을 남자들이 나오는데 대개 휴농기면 농부가 나오고, 농번기면 부락 소년들이었다고 전해진다. 그 후 골프코스가 점차 늘어나고, 60년대 접어들면서 캐디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여자 캐디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대부분의 캐디가 여자이고 캐디하면 여자의 직업인 것으로 착각할 정도에 이르렀다.

하지만 현재 남성 캐디는 나날이 늘고 있다. 남성캐디는 처음에는 프로지망생을 위주로 간간이 눈에 띄다가 청년 취업난으로 지원자가 크게 늘어 이

제는 70곳이 넘는 정도로 채용 규모가 확대됐다. 이미 용평과 한탄강 등은 남성캐디가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졌다. 남성 캐디의 장점은 첫 번째로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다. 두 번째로 골프를 배우려는 의지도 강해 업무 습득도 빠른 편이다. 또한 주중에는 여성 골퍼가 많아 남성 캐디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4일간에 걸쳐 남성 캐디에 대한 네티즌의 의견을 받아봤다.

-남자캐디들은 골프에 대해서 확실한 팁을 전해줍니다. 그들은 골프가 직장이기에 자긍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골프장에 당연히 있어야하는 부속품이 아닌 골프 문화를 이끌어 가는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ID: illust75

-남자캐디들일수록 전문적인 면에서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ID: dydskawus

-남자캐디들은 개인적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자캐디들보다 움직임이 남다른데.

ID: fogbloody

-남성캐디보다 여성캐디가 골프를 하

다가 실수를 했을 때 위로의 말을 더 잘합니다. 그것이 심적인 위로를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여성캐디가 골프장에 필요합니다.

ID: dlrntjs12

-남성캐디의 경우 골프를 하는데 있어서 공략포인트를 자로 잰 것처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 점이 남성캐디에게서 느낄 수 있는 장점입니다.

ID: koreasg33

-남성캐디들은 라운드를 하는데 있어 진행을 빠르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느긋한 면이 없어서 불편합니다.

ID: babolee09

-여성캐디에 비해 남성캐디는 눈치가 빠릅니다. 플레이를 하는데 있어서 막힘없이 빠르게 진행해줘서 다이내믹하고 재미있는 골프를 느끼게 해줍니다.

ID: dkeldn

-캐디라고 하면 여성을 생각하게 되는데 남자가 있다는 것에서 골프의 이미지를 조금 바꾸게 되는 것 같아 남자캐디는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ID: see20602



■ DISCUSSION GOLF

2011년에는 캐디와 친해지자

2011년이 문을 열었다. 하지만 이번 겨울 유난히 춥게 느껴진다. 겨울의 한가운데에서 골프장도 다가올 봄철 골프 시즌을 위해 서서히 시동을 걸기 시작한다. 예전에 2005년과 2008년, ‘골프저널 캐디글 공모전’ 시상식을 할 때 캐디 좌담회도 함께 진행한 바 있다. 이때 캐디들의 애환과 캐디들에 대한 이미지 쇄신, 그리고 올바른 골프문화 정립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했었다.

그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캐디를 대신 해서 다르게 불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이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이름을 불러주면 더 친근감 있을 것 같다. 프로님 호칭이 좋을 거 같다. 사전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조언을 하는 의미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경기에 큰 힘을 주는 의미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등 많은 의견이 나왔다. 실제 캐디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라고 판단할 수 있다. 1960년대 접어들면서 캐디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여자 캐디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현재는 대부분의 캐디가 여자이고 캐디하면 여자의 직업인 것

으로 착각할 정도에 이르렀다. 그 때 문인지 몰라도 캐디하면 부자들의 놀이인 골프를 하는 사장님, 회장님들을 따라다니다가 기회를 잡는 사람으로 묘사된 바 있다. 예전에 SBS ‘루루공주’가 캐디를 비하 장면이 방송되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고 이 일이 일파만파로 번져가면서 캐디 노조 측이 드라마에 대한 분노를 터뜨린 적이 있다. “어디서 저렇게 예쁘고 몸매 좋은 캐디를 구했냐.”, “돈 좀 썼다. 재가 좀 비싸다.”, “오늘 밤 어쩌냐? 네가 좀 비싸다며?”라며 돈으로 하룻밤을 사고 싶다는 노골적인 대사가 이어지며 캐디에 대해서 자신보다 아래로 보는 인식을 보여주게 됐다.

그 당시 질문을 기억한다면 “근무를 하면서 어떤 골퍼가 제일 싫은가요?”의 질문에 “클럽을 집어 던지거나 캐디의 가방을 뒤지는 등 기본적인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골퍼”, “반말을 하거나 무시하는 듯한 언행을 일삼는 골퍼”, “특하면 자신의 잘못을 캐디 탓으로 돌리는 <막무가내 네 탓이오> 스타일의 골퍼” 등 진상, 밍

상이면서 피하고 싶고 모욕감을 느끼게 된다고 전했다. “캐디도 사람입니다. 캐디의 마음을 떠보는 행동, 지나친 성적 농담, 볼을 잘못 치면 캐디 탓하는 손님들, 볼 다 찾아오라는 손님들은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는 말도 덧붙이며 인간적인 면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렇다면 “캐디를 하면서 고쳐졌으면 하는 부분이나 애로 사항이 있다면?”의 질문에 “고객들이 캐디에 대해 조금만 더 마음을 열어줬으면 합니다.”, “캐디에게도 고객과의 예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는 골프장에서 캐디를 동반자 개념이 아닌 하수인으로 취급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골프를 하면서 무시하는 것 없이 동반자로 생각했으면 합니다.”라고 말을 전한바 있다.

좌담회 때 “캐디에 대한 직업적인 자긍심은 얼마나 되나?”라는 질문에 대해 “현재 캐디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디라는 직업은 전문직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 말하라고 한다면 캐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로 공감을 얻은 바 있다. 그리고 보람을 느낄 때는 바로 업무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을 때라고 했다.

이미 캐디들의 문화가 변화하고 있다. 그로 인해 캐디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가져오고 있다. 캐디라는 전문직을 좀 더 직업답게 만들고 있으며 캐디들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인 골퍼들도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2011년에는 조금 더 캐디들하고 친해지자. 투철한 직업관을 가진 직업인으로서 멋진 캐디는 골퍼들의 플레이에 질적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이제 캐디를 통해 올바른 골프문화가 확립되기를 기대해본다.

■ GOLF LIFE

불청객 황사, 대처법은?



해마다 봄이 찾아오면 서쪽에서 불어오는 누런 안개가 우리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든다. 반갑지 않은 손님 황사! 황사는 매년 4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의 탓으로 최근에는 2~3월에도 황사가 찾아온다. 또한 횡수도 잦아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앞으로 황사에 대한 개인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야외에서 골프를 즐기는 골퍼에게는 더욱 건강에 신경 써야할 것이다. 이에 황사의 정체와 함께, 황사골프를 대비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겨울의 기나긴 시간을 마치고 봄의 기운을 느끼고 골프장을 찾은 많은 골퍼들은 집 앞 대문을 지나다가 봄철 불청객 황사에 마음이 착잡해진다. 기상청에서는 먼지 농도 500㎍/㎥ 이상이면 일반인의 실외 운동 자제, 1000㎍/㎥ 이상일 때는 야외 운동의 중지 및 연기를 권하고 있다. 하지만 열혈 골퍼들은 황사가 찾아와도 골프장에서 라운드를 포기하지 않는다. 덕분에 봄철에는 황사나 먼지에 많이 노출 됐을 때는 돼지고기가 좋다는 속설과 함께 삼겹살데이(3월 3일)가 맞물려 돼지고기 소비량이 평소 대비 판매량 200% 이상 증가한다. 그렇다면 골프에 좋은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황사에 좋은 음식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황사에 좋은 먹거리

삼겹살 : 불포화 지방산이 탄산가스 등 폐에 쌓인 공해 물질을 중화시키고 몸 속 중금속을 흡착해서 배설한다.

차 : 눈과 목이 쉽게 피로해지는 만큼 물보다는 차를 끓여 마신다. 눈에 좋은 결명자와 구기자를 넣은 차, 기관지에 좋은 오미자를 끓여 봄철 내내 마시면 황사대비에 그만이다.

도토리묵 : 아콘산이란 성분이 들어 있는 중금속을 없애준다. 시중에 판매되는 도토리묵의 착색제나 각종 첨가물이 걱정된다면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사용한다.

도라지 : 한약 처방에 자주 사용되는 도라지는 먼지에 예민한 기관지를 보호해주고 호흡기의 열을 조절한다. 특히 먼지에 마른 기침이 날 때는 도라지 차나 도라지 엑기스 등을 섭취하면 기침이 빨리 가라앉는다.

마늘 : 유황 성분이 많은 마늘은 수은, 비소, 구리 등의 축적을 막아준다. 마늘에 들어 있는 시스테인과 메티오닌은 강력한 해독작용으로 간을 강화하며 유황성분이 체내에 들어온 중금속과 결합해 담즙을 거쳐 변으로 배설된다.

사과 : 식이섬유가 풍부해 중금속을 흡착하거나 독성 무기물과 결합해 흡수를 방해하는 작용을 한다. 사과껍질은 중금속 제거실험에서 납성분을 95.3% 제거하는 결과도 나와 껍질째 먹는 것이 좋다.

미나리 : 황사로 인후염이 생기고 편도선이 붓거나 고열감기가 찾아온다면 미나리가 제격이다. 미나리는 몸 속 열을 없애고 갈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흐르는 물에 잘 씻어 생즙을 내서 마시거나 차로 끓여 마시면 효과를 볼 수 있다.

해조류(미역 다시마) : 해조류의 20~30%를 차지하는 수용성 섬유질 성분인 알긴산은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가 잘 안 되고 배설되는데 이때 변의 양을 증가시켜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중금속, 농약, 환경호르몬, 발암물질 등을 빨아들여 함께 몸 밖으로 나온다.

머위(관동) : 머위는 폐 기운을 돋워 주고 가래를 삭이는 데 효험이 있어 호흡기 질환의 약재로 많이 쓰인다. 동의보감에서는 머위는 폐를 녹여 주고 담을 삭이며 기침을 멎게 한다고 했다.

클로렐라 : 새로 떠오른 황사 대비 음식. 클로렐라의 성분은 간, 신장 등 장기에서 카드뮴의 독성을 중화시키고 조직 손상을 완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클로렐라에 함유된 갈슘, 아연, 마그네슘 등이 소장에서 혈액으로 카드뮴

이 흡수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보건환경연구소는 클로렐라, 시금치, 우엉, 양배추, 팔, 무, 당근 중에서 클로렐라의 다이옥신 체외 배출 효과가 가장 뛰어나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다음으로 황사가 찾아왔을 때 라운드 중의 건강에 대해서 말하겠다. 단순한 먼지가 아닌 중금속을 함유한 유해물질 덩어리인 황사는 장시간 야외에서 진행되는 골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첫 번째 요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황사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먼저 야외에서 라운드를 하는 경우 황사가 발생하면 운동 시간을 배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아황산가스는 보통 오전 8~10시에 대기 중 농도가 높아지고 미세먼지는 오전 9~11시, 오존은 오후 2~4시께 농도가 높아진다. 운동 중에는 휴식상태에서보다 최고 2배나 되는 공기량을 호흡하기 때문에 이런 시간대에 부득이 운동을 해야 한다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황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황사 방지 상품인 마프(Maff)는 마스크(Mask)와 머플러(Muffler)의 합성어로 야외에서는 마스크처럼 착용해 황사를 막아줄 뿐만 아니라 얼굴과 목 부위를 자외선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해준다. 또한 실내나 황사가 심하지 않은 날에는 턱밑으로 내리는 머플러 기능을 한다. 그리고 호흡은 입으로 하는 것보다는 코로 하는 것이 좋다. 코로 들어온 먼지를 코털과 점막이 흡착해 여과시켜 주기 때문에 건강의 위험을 조금이나마 감소시켜준다.

황사는 중금속을 함유한 유해물질이기에 피부에 독이 된다. 가급적 긴 옷을 입어 피부가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것을 적게 해야한다. 골프모자를 착용하고 방수처리가 된 옷을 입어 미세 먼지가 섬유 틈에 흡수되는 것을 막는 것이 좋다. 더불어 자외선 차단제, 수분 크림 등을 충분히 발라 황사가 피부에 직접 닿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황사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골프 재킷은 미세 먼지가 들러붙기 쉬운 니트소재보다는 방수·방풍 기능이 있는 화섬소재 재킷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특히, 스트레치가 꽤 스윙이 편안한 바람막이 상의와 은은한 광택과 구김 없이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삼브레이 점퍼는 기본 방수 기능이 있어 황사시즌 골퍼들에게는 중요한 아이템이다.

클렌징과 폼 클렌징으로 이중세안을 해주는 것도 효과적이다. 그리고 눈은 황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 눈 가려움증이나 충혈, 눈이 부어오르는 증세 등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며 심한 경우는 부분 자극성이나 알레르기성에 의한 결막염으로 발전되기도 한다. 그러기 때문에 건조한 눈은 외부 자극에 더욱 민감해지므로 인공 눈물을 사용해 눈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라운드 뒤에는 미지근한 물로 눈을 씻어 주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다. 또한 렌즈를 착용하는 사람들은 황사가 심할 때 눈을 보호하기 위해 콘택트렌즈보다는 안경을 쓰거나 선글라스를 쓰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황사가 찾아왔을 때 라운드를 했다면 뒷마무리가 중요하다. 먼저 귀가 시에는 옷을 잘 털고 집안에 들어오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클럽은 반드시 세척을 해야 하며 황사 먼지에 노출된 골프 웨어는 세제를 푼 물에 담근 뒤 미세 먼지와 모래를 충분히 없앤 다음 세탁하는 애벌 세탁 방법을 해야 한다. 2011년 봄, 황사라는 불청객이 찾아오더라도 간단한 정보만 안다면 건강한 골프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 READING LEADER'S

(자료제공: (주)엠에프에스코리아)

샤프트의 역할 및 선택요령

샤프트의 특성을 파악하고 선정하는 것이 중요 포인트

샤프트는 클럽의 성능을 70% 이상 좌우하는 중요한 부품이다. 우선 샤프트의 강도에 따라 방향성과 공의 탄도각이 변화함을 알 수 있다. 골프 샤프트가 본인에게 너무 강하면 임팩트 시 헤드가 미쳐 따라 오지 못해 헤드가 열려 샷이 슬라이스 현상을 나타내고 헤드가 열려 공의 탄도각이 낮아짐을 볼 수 있다. 반대로 샤프트의 강도가 본인의 스윙에 비해 너무 약하면 샤프트의 휨이 목표(타깃) 방향으로 휘어져 헤드가 닫힌 형태가 되어 훅 현상을 나타내면 헤드가 닫혀 볼의 탄도각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샤프트의 올바른 강도의 선택은 볼의 탄도각과 방향성에 직결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올바른 샤프트의 선택은 비거리와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근 들어 저중량 샤프트가 인기를 끌고 있는 추세이다. 클럽(CLUB)의 전체 무게가 가벼울수록 스윙 스피드가 증가하나 헤드의 무게는 가벼울수록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헤드의 무게를 낮추는 것은 무조건 비거리(飛距離)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면에 저중량 샤프트는 전체 클럽 중량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 따라서 헤드의 운동 에너지를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클럽 헤드 속도의 증가를 가져와 비거리를 향상 시킨다.

이처럼 샤프트의 역할은 공의 탄도와 방향성 및 비 거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샤프트의 선택 시 특정

회사의 샤프트를 무조건 선택하기 보다는 샤프트의 특성 즉 샤프트의 중량과 강도(CPM), 토크, 킥 포인트 등 일반적인 특성뿐 아니라 샤프트 모델별 설계자가 의도한 고유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샤프트를 선정 시 보다 즐거운 골프를 즐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때 킥 포인트(Kick point)란 임팩트(Impact) 시 샤프트의 휨이 샤프트의 어느 부위에서 휘는가를 말한다. 결과적으로 킥 포인트가 높으면 공의 탄도각(彈道角)은 낮게 되고 반대로 킥 포인트가 낮으면 공의 탄도각은 높아진다. 이는 샤프트가 동일한 거리만큼 휘어 졌을 때 샤프트의 휨이 헤드 부분에 가까울수록 로우 킥 포인트(Low Kick point)의 경우 휨의 각도가 크기 때문에 공의 탄도각이 높아지고 반대로 하이 킥 포인트의 경우 휨의 각도가 적어져 공의 탄도각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 골퍼들은 지나치게 킥 포인트에 예민할 필요가 없다. 일반적으로 샤프트 설계자들은 샤프트 강도가 높고 중량이 많이 나가는 샤프트는 헤드 스피드가 빠른 골퍼들을 위하여 제작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설계 시 킥 포인트를 상단에 두어 제작을 했고 반대로 샤프트 강도가 낮고 중량이 가벼운 제품은 헤드 스피드가 느리거나 여성용 또는 시니어골퍼들을 대상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대부분 킥 포인트를 아래로 두어 더욱 공을 쉽게 띄울 수 있도록 설계했기 때문이다.

■ 비구선

글, 그림/왕정옥(한국외대)

골프 그림에서 골프의 가치를 논하다

골프가 다양해지고 있다. 골프가 단순히 스포츠 개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과 밀접한 생활 문화로 융화되고 있다. 한때 특수층만이 누리던 골프, 음지에서 양지로 나온 골프는 덩어리가 너무 커져 단순한 취미로만 취급할 수 없는 사회현상이 됐다. 이젠 골프는 총체적인 문화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삶의 일상적인 형태로 접근해야 한다. 생활 속에서 숨 쉬는 골프는 옹고 그림의 문제를 떠나서 어떻게 우리 일상에 접목되고 산업성과 문화적인 배경으로 활용하느냐가 또한 이 시대에 던져진 화두다. 이는 예술분야 중에서도 문학, 영화 등에 잘 접목되고 있는데 차츰 영역을 넓히면서 최근 골프를 주제로 그림들이 그려지고 작품전시회가 개최되는 등 주목을 끌고 있다.

골프의 콘텐츠를 넓혀가는 **골프그림 전시회** 골프 붐 차원이 아니라 우리 일상으로 뛰어든 골프가 콘텐츠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골프가 스포츠라는 협의의 개념에서 탈피하고 이젠 우리 일상적인 삶의 한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골프를 총체적으로 받아들이는 발전적인 시각으로 삶과 접촉된 문화 코드로 바라보고 있다. 현재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골프를 접하면서 자기 분야의 전문성과 접목하는 골프 콘텐츠들이 속속 개발되어 가고 있는 현상은 바람직하다.

한국 골프는 110년을 넘은 역사성을

가졌고 구옥회로 부터 미국 골프무대에서 우승을 일구면서 박세리도 LPGA로 진출해 메이저 대회 우승을 거머쥐었다. 또 양용은이 PGA에서 메이저 우승을 일구면서 경기력 부문에서 한국 골프는 세계화하는데 성공한 셈이다. 지난해 신지애가 LPGA 세계상금 랭킹 1위를 기록하면서 박세리 키즈를 구세대로 밀어내면서 한국 골프는 또 한 번 꺾질을 깨고 나오면서 골프를 생활 속에 깊숙이 밀어 넣었다. 꺾질을 깬 때는 '줄타동시'라는 말이 있듯이 알이 부화할 무렵, 병아리는 병아리대로 어미닭은 또 어미닭대로 때를 맞추어서 안과 밖에서 꺾질을 동시에 쪼아주어야 병아리는 무난하게 탄생하는 법이다. 서로 시간을 맞추지 못하고 엇박자가 되거나 너무 빠르거나 늦어도 병아리는 죽고 만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골프계도 무난히 발전하기 위해서는 골퍼인은 물론 골프정책자 등 모두가 손발이 맞아야 한다. 그러면서 골프를 문화적인 현상 즉, 생활 속에 수용돼야 균형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하고 싶다. 그렇지 않으면 항시 골프는 우리의 일상과 괴리감으로 걸돌기 마련일 것이다.

이제 골프는 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할 차례다. 골프는 비용도 크고 단순히 취미로 보기엔 덩어리가 너무 크다. 알을 깨야 한다. 한국의 골프계는 세계 온라인 골프의 종주국으로 우뚝 서고 폭발적인 발전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도 협회, 언론, 사업, 용품업체들은 그 변화의

물결을 잘 이해 못하고 있다. 언론이나 레슨계 등은 더 이상 골프의 발전양상을 따르지 못하고 오직 '골프를 위한 골프'만 거둬 우려먹고 있다는 비판과 콘텐츠의 빈약성을 면치 못한다는 전문가의 따끔한 지적에 자성이 필요한 시기다.

한국골프계는 구옥회를 출발점으로 해서 박세리에서 꼭지점을 이뤘고 신지애를 통해서 전환점을 삼아야 한다. 그 역할 속에서 각계각층에서는 골프와의 접목을 서두르며 골프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향상시켜가고 있는 모습들을 본다. 자기 분야의 전문가들이 골프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 낼 수 있어야 대한민국 골퍼가 발전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시기라고 한 전문가는 말한다. 골퍼업계를 향한 노력은 각계각층에서 어프로치 돼야 골퍼가 더욱 풍요로워지고 한국의 아이콘으로 발전할 것이다. 골퍼는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보고 사회적인 접근 등 이론적인 체계가 바탕이 돼야 한다는 점이다. 골퍼를 삶과 유리되지 않는 문화현상으로 접근해야 단단한 기반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제 이땅에서 골퍼가 균형적인 발전이 되고 건실한 토대가 될 것이다.

코스의 힘에 매료되다

골프장이란 홀을 최소단위로 해서 모여진 것이 코스라는 집합체이다. 코스의 매력은 뛰니뛰니해서 새파란 잔디와 광활한 홀의 전개다. 그 펼쳐진 초록 홀에 하얀 공을 클럽으로 휘둘러 호쾌하게

쳐 내는 그 맛이 골프가 주는 매력 아닐까 싶다. 코스의 매력은 살아서 싱싱하고 또 생명의 이미지인 초록 잔디에 있다. 물론 겨울철의 마른 잔디나 눈 쌓인 코스도 라운드의 전략상 별미가 있겠지만 대부분 초록 잔디를 선호하고 있다. 그래서 페어웨이조차도 난지형 잔디를 식재해 겨울철에도 초록색 잔디에서 라운드 하는 골퍼장이 늘고 있는 추세다. 창공스포츠를 제외하고서는 지상에선 가장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 골퍼라는 스포츠는 잘 관리된 푸른빛이 더욱 시원함을 가져다준다. 일속에 파묻힌 이들이 도심을 벗어나 시원하고 펼쳐진 코스에 서면 마음을 뺨 뚫어주는 호쾌함을 주는 홀은 골퍼에게 무한한 힘을 주고 자연의 품속인 냥 아늑함도 준다. 짝 짜인 일상에서 일탈하는 충전의 장이며 심지어는 억눌린 심리적 억압이나 긴장감을 풀어주고 해소해주는 역할도 한다. 그리고 정신적 긴장감을 위무하는 치료골프의 영역까지도 나아간다. 그 코스를 코스답게 만들고 하얀 공을 더욱 뚜렷하게 콘트라스트를 주며 힘찬 힘을 불어 넣어 주는 것이 초록 코스다. 마음이 한결 편안하고 시원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다. 무엇보다도 시원한 코스를 바라보면 강한 임팩트의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삶의 어떤 힘을 감지하게 되는 법이다. 저 푸른 홀을 바라보면 마치 바다를 바라보는 것처럼 가슴이 뛰지 않는가. 그 코스의 힘에 매료되어 현재 골퍼장을 그려보고 있다.



◎ 물을 알면 타수를 줄일 수 있다 ◎

김경태 경기도골프협회 전무이사는 골프를 하는데 있어서 물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물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3타에서 5타 정도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래서 유익한 물 정보를 살펴보겠다.

1. 해저드에서는 물을 확인하고 공을 치는 것이 좋다

볼이 해저드(벙커·워터해저드)에 박혔는데 윗부분만 보인다. 이때 자신의 볼로 짐작하고 확인 없이 치는 골퍼들이 있는데 그러다 '오구 플레이'로 2벌타를 받을 수 있다. 2008년 개정된 규칙은 해저드에서 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동반자에게 얘기한 후 볼을 집어 들어 볼 수 있게 했다. 해저드에서는 반드시 볼을 확인하고 쳐야 벌타 받는 것을 막을 수 있다.

2. 티샷은 평평한 곳에서 하는 것이 좋다

티잉그라운드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자신에게 오게 되어 있다. 티잉그라운드는 티마커 후방으로 두 클럽 길이까지다. 따라서 찾아보면 평평한 곳이 얼마든지 있다. 티업할 땐 규칙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활용하는 것이 좋다.

3. 언플레이어를 볼 규정 충분히 이용을 하라

볼이 깊은 러프에 빠졌는데 그 옆은 큰 바위여서 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언플레이어 볼 처리를 하고 두 클럽 길이 내에 드롭하려고 보니 그곳 역시 풀이 길다. 그럴 땐 다른 옵션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다. 1벌타 후 종전 했던 지점으로 돌아가거나, 볼과 홀을 연결하는 후방선상(거리 제한 없음)에 드롭하고 치는 길이 있다.

라이가 좋지 않은 볼을 포기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루스 임페디먼트에서도 구제 된다

볼 옆에 골퍼장 측에서 잘라놓은 큰 통나무가 있다. 최근 태풍, 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많은 골퍼장들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런 통나무는 고정돼 있지 않고 생장하고 있지 않으며 땅에 박혀 있지 않기 때문에 루스 임페디먼트다.

따라서 벌타 없이 구제받을 수 있다. 볼이 움직이지 않는 범위에서 통나무를 치우고 샷을 하면 된다.

5. 카트도로에서 한 클럽 이상 벗어날 수 있다

볼이 카트도로(움직일 수 없는 인공장애물)에 멈추게 되면 카트도로 가장자리에서 한 클럽 길이 내에 드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골퍼가 많이 있다. 그래서 도로 옆 깊은 러프에 드롭해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골퍼들이 있다. 하지만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도로 옆에 '니어리스트 포인트'(도로를 피하고 홀에 가장자리 가까운 곳으로 볼과 가장 가까운 지점)를 정한 뒤 그곳으로부터 한 클럽 길이 내에 드롭하고 쳐야 한다. 그러면 도로로부터 한 클럽 길이 너머까지 드롭할 수 있게 되어 '라이'에 대한 선택의 폭이 커진다.

■골프건강

잠을 다스리면 스코어가 좋아진다

춘곤증과 불면증으로 알아본 봄철 건강

꽃을 앞세워 드디어 봄이 찾아온다. 골퍼들에게는 제 철이 찾아온 것이다. 겨울 동안 제대로 라운드를 하지 못해 몸이 근질거렸지만 필드로 나가기에는 제격인 봄이 찾아온 것이다. 골퍼라면 누구나 아는 이야기지만 봄철에 라운드를 나간다면 겨울 동안 경직된 신체 각 부위의 근육들을 잘 이완시켜 줘 유연성을 키우는 것이 좋다. 겨울동안 근육이 경직된 상태에서 충분한 준비 없이 라운드를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모든 관절부위를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풀어주고 가벼운 스윙연습을 통해 스윙 감각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봄과 관련된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춘곤증이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잠과 건강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하겠다. 춘곤증은 봄철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충분히 자도 졸음이 쏟아지고 식욕이 떨어지며 몸이 나른해 진지는 등 피로감, 졸음, 식욕부진, 소화 불량, 현기증의 현상을 보인다. 이것은 병이 아니라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면서 신체가 주변 환경의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나타나는 증상이다. 결국 춘곤증은 비타민 결핍에 의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운동부족, 피로누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에겐 더 심하게 나타난다. 때문에 춘곤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2~3시간마다 스트레칭으로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좋으며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그리고 영양소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하루 세끼를 분산해서 챙겨먹으며 생선, 콩류, 두부, 채소, 신선한 과일 등이 춘곤

증에 효과적이다. 만약에 춘곤증이 자주 일어난다면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불면증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불면증은 일반적으로 잠들기가 어렵거나 자주 깨는 경우를 말한다. 불면증이라고 하면 여름철에 일어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봄철에도 자주 일어난다. 이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면서 기온의 변화, 대기 기류의 불안정으로 인해 인체의 리듬이 바뀌면서 이 시기에 신체 리듬을 찾는 과정에서 불면증이 일어난다. 불면증 때문에 불충분한 잠으로 인해 자칫 낮 동안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결국 불면증을 잡는 것이 봄철 건강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이다.

불면증에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 밤이 되어 잠을 자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려야 한다. 잠이 오지 않는다고 불안해하지 말고 잠이 오지 않을 때는 마음을 차분하게 누워 휴식을 취한다는 생각을 한다. 두 번째로 아침 기상 시간은 철저히 지키는 것이 좋다. 아침에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낮잠 시간은 30분 이내로 제한한다. 최대한 생활을 계획 있게 지키면서 신체 리듬이 깨지지 않게 하는 것이 불면증 해결이 좋은 방법이다. 세 번째로 운동은 잠들기 2시간 전에 하는 것이 좋다. 아무리 운동을 좋아하더라도 최소 잠자기 2시간 안에는 지나치게 심한 운동은 삼가는 것이 좋다. 잠자기 전 지나친 운동은 오히려 피로를 유발하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는 신체 리듬을 방해한다. 그 시간에는 가급적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다. 네 번째로 불면증 예방에 효과적인 음식을 먹어라. 상추, 대추, 등 심신

을 편안하게 만드는 음식을 섭취한다. 그 밖에도 숙면에 도움이 되는 허브티나 녹차를 마시는 것이 숙면에 좋다. 마

지막으로 미지근한 물과 찬물로 번갈아 샤워하는 방법으로 편히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다. 피로를 풀기 위해 뜨거운 물에 오래 들어가 있는 것도 체온을 높여 잠을 쫓는다. 이 역시 최소한 2시간 전에 하거나 따뜻한 물에 샤워하는 정도로 그쳐야 한다. 그리고 수면을 위해 술을 자주 마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봄철에 목욕을 잘하면 건강해진다.

목욕은 “한 점의 보약보다 좋다.”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목욕의 건강을 지키는 효과가 있다. 봄철에 골프를 즐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목욕법을 소개하겠다.

1 좌욕 : 물을 채운 욕조에 상체와 다리를 내놓은 채 배꼽 아래쪽만 담그는 목욕법이다. 방광염, 생리통, 치질 등에 효과가 있다. 이때 물의 온도는 체온보다 낮은 섭씨 25℃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좋다.

2 수욕 : 팔이나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목욕법이다. 세면대나 세숫대야에 섭씨 43℃ 정도의 뜨거운 물을 담고 손목까지 잠기도록 한 후 10분 정도 두면 어깨 결림 등의 증상이 완화된다.

3 족욕 : 섭씨 43℃ 정도의 뜨거운 물에 발목까지 담그는 족욕은 시간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간단한 목욕법이다. 발만 담그는 것이라도 온몸에 작용하기 때문에 초기 감기 증세가 있을 때 효과적이다.

4 반신욕 : 명치 아래쪽만 담그는 것으로 고혈압이나 저혈압 등 심장 관계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적절한 목욕법이다. 심장을 담그지 않아 직접적으로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몸 전체가 빠른 시간 안에 따뜻해지기 때문에 오

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효과적인 목욕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5 전신욕 : 몸 전체를 담그는 것으로 온몸의 피로가 누적돼 있을 때 적당한 목욕법이다. 수압에 의한 작용으로 전신 근육의 이완 효과가 탁월하다. 이때 물의 온도는 섭씨 37~38℃ 정도가 적당한데 대개 심장이 물 속에 잠겨 5분 이상 지속하기가 어렵다.

6 고온욕 : 목욕탕에 들어갔을 때 뜨겁게 느껴지는 섭씨 42~45℃의 물에 온몸을 담그는 목욕법이다. 몸의 면역력을 증강시키며 열에 예민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등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 지방이나 혈액 속에 축적된 나쁜 찌꺼기나 화학 성분, 숙취물질을 제거한다. 감기 환자, 강도 높은 육체 노동을 하거나 만성피로, 숙취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좋다.

7 미온욕 : 약간 따뜻하다고 느끼는 섭씨 36~38℃ 물에서 10분 이상 들어앉아 목욕하는 방법이다. 피부혈관을 확장시켜 피가 피부로 물리게 하며 정신,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작용을 한다. 피부미용에 좋고 머리가 복잡하거나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 또는 불면증 환자에게 권장된다.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증 혹은 심장병이 있는 사람은 주1~2회 미온욕을 하는 것이 좋다.

■GOLF

신기술 신골프

골프장갑과 그립



골프장갑은 왜 낄까?

골퍼라는 운동을 하면서 ‘왜 장갑을 낄까?’ 하는 이렇다 할 의심도 없이 모든 골퍼가 장갑을 끼고 골프를 한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 따라할 뿐이라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좀 더 생각하는 골퍼의 경우에는 ‘그립에서 손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는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도의 생각을 할 것이다. 모두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또 맞는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점은 알고 있어야 한다. 골프 그립에 있어서 왼손 장갑을 끼면 그만큼 스윙을 느리게 할 수가 있다. 거기에 왼손*오른손 장갑 모두를 끼면 스윙이 빨라지고, 왼손 장갑을 아예 안 끼고 오른손 장갑만을 끼면 스윙이 더 빨라진다. 그러므로 스윙이 느린 골퍼의 경우에는 왼손*오른손 장갑 모두를 끼면 스윙이 왼손 장갑만을 낀 거 보다 빨라

지고, 왼손 장갑을 안 끼고 오른손 장갑만을 끼면 양손 장갑을 낀 거 보다 스윙이 더 빨라진다.

간혹 아마추어들이 겨울철에 손을 보호하려고 양손 장갑을 끼고 스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스윙이 왼손 장갑만을 낀 때보다 스윙이 빨라진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양손 장갑을 다 낀 것은 양손 장갑을 끼지 않은 것과 같다. 간혹 장갑을 다 끼지 않은 채 스윙을 하는 골퍼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스윙을 빨리 가져감에 의한 의도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빠른 스윙을 의도적으로 원한다면, 양손 장갑을 다 끼거나 또는 양쪽 장갑을 다 벗은 채 스윙을 하면 된다.

또 그보다도 스윙을 더 빨리해주려면 왼손 장갑을 끼지 않은 채 오른손 장갑을 끼 보면 얼마나 스윙이 빨라지는 지를 알 수 있다. 그럼 왜 모든 골퍼가 왼

손 장갑만을 끼는가?

그만큼 골프스윙에서는 하체가 강한 골퍼의 느린 스윙이 기준이 되고 스윙을 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애초에 스윙을 배우기 시작할 때에 아예 이렇게 왼손 장갑만을 끼고 해야 되는 것처럼 규정화 되어 버린 것이다. 그렇다고 장갑을 벗고 한다고 해서 룰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므로 하체가 좋은 사람이 스윙을 빨리 해 주기 위해, 양손 장갑 또는 오른손 장갑만을 끼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스윙 방법을 구사하는 것도 방법 중의 방법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을 쓰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방법보다 스윙을 빨리 해주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단지 골퍼들이 왜 장갑을 끼는지 스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는 알고 있어야 한다.



왼손 장갑

골퍼들의 대부분이 왼손 장갑 없는 골퍼는 스윙이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항상 장갑을 착용한다. 골프

장갑이 미치는 스윙의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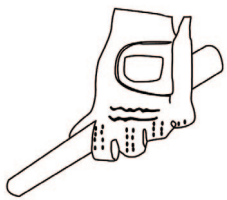
스포츠센터에서 다른 운동 장갑과 비교해보면 장갑자체가 얇고 예민하다. 값을 비교해도 다른 것보다 비싸다. 가죽이 얇고 소프트해서리는 의구심이 간다. 초보자가 처음 연습 시에는 자꾸 구멍이 난다. 이러한 장갑의 사고는 스윙이 늘면서 덜해진다.

자신의 스윙이 만들어 지기 전까지는 스윙은 그립에 무리가 간다. 이로 인해 장갑에 무리가 가해짐으로 쉽게 구멍이 나는 것이다. 스윙의 무리는 장갑뿐만 아니라 손 집에 물집이 생기고 굳은살이 박인다. 스윙테크닉이 늘고 몸에 무리가 안가면서 장갑도 구멍이 안 나면서 오래 쓸 수가 있다.

골프 장갑의 선택은 자신의 손에서 조금 작은 장갑이 그립의 안정감을 준다. 오래된 장갑이나 큰 장갑의 느슨함은 클럽이 손안에서 늘면서 스윙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어느 내기 골퍼의 달인은 항상 내기 골프를 할 때는 골프 샵에서 새 장갑을 사서 낀다고 한다. 장갑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가지고 자신의 스윙을 만들어보도록 한다.

글/임경

최근 <내 몸을 알고 내 몸에 맞는 임박사 골프> 레슨서를 펴냈다.



장갑과 손의 부상

장갑이 골프스윙에 끼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골프 장갑이 스윙에 끼치는 영향은 크다. 왼손 장갑은 스윙을 느리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골프장갑에 있어서도 두꺼운 장갑부터 얇팍하며 소프트한 장갑이 있다. 두꺼운 장갑이 얇팍한 것보다 스윙이 더 느려진다. 꼭 끼우는 장갑이 헐거운 장갑보다 스윙이 더 느려진다.

그 외에도 구멍 난 장갑은 스윙이 더 빨라진다. 장갑이 스윙에 미치는 영향은

그립으로 스윙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굳이 장갑 외에도 손의 부상으로 그립이 달라져도 스윙이 변한다. 왼손의 굳은살을 깎고 스윙을 해보면 알 수 있다. 왼손 그립을 꼭 죄지 못해도 스윙이 달라진다.

물론 오른손 부상도 스윙을 빨리 가져가지 못해 스윙이 달라진다. 이렇게 달라지는 장갑과 손의 부상은 일정한 그립의 강도를 주지 못해서 만들어지는 스윙 차이이다. 여기서 필자가 개발한 왼손타법 파워그립에서 손의 부상과 장갑이 만들어내는 스윙효과를 검토한다. 정상그립에서 왼손 그립을 잡고, 놓아줌으로 만들어내는 왼손타법 파워그립스윙에서의 스윙효과는 배가 된다. 따라서 왼손타법파워그립은 물론 정상그립에

서도 장갑과 손의 부상은 면밀히 검토를 하며 대응해야 한다.

체험골프

초보시절 이런 기사내용을 본적이 있다. 당시 한국골프의 대표적인 골퍼가 손의 굳은살을 조금 깎아냈더니 스윙이 달라지더라는 푸념이다. 당시 본인의 수준으로는 이해가 안 갔다. 그까짓 손의 굳은살 어느 정도를 깎아 냈다고 스윙이 달라진다고 하니 한국골프의 수준을 의심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골프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지금에 와서는 생각이 다르다. 필자 자신이 손의 굳은살로 인해서 달라지는 구질을 직접 체험을 했고 그 역할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손의 굳은살

을 깎아냄으로서 구질이 변한다. 강하게 잡던 경우는 약하게 잡게 되며 약하게 잡던 경우는 더욱이 약하게 잡게 되며 그립의 강도가 달라진다. 손의 부상으로 약하게 잡는 그립에서는 부상정도 만큼 스윙을 느리게 가져가야 한다. 이렇듯 달라지는 손의 부상(굳은살을 깎음)은 본인이 직접 당해보지 않거나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납득이 안 가게 된다. 이 같은 체험습득의 논리는 골프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분야에서도 나타난다. 언젠가는 농사하시는 한분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는다. 농학박사의 이론적 지식 보다는 직접 낫으로 벼를 베며 얻는 체험지식이 실질적 효과를 얻는다고 한다.

■ 골프 웃음학

골프에서 유머감각은 라운드의 윤택유

골프의 속성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골프는 웃으면서 즐긴다는 것, 이렇게 말하면 얼굴을 찡그리고 라운드를 하는 사람도 있나?라고 되물을 수 있다. 물론 있다. 원래 골프 플레이는 즐거움의 상징이다. 인상 쓰고 험악하게 라운드를 하려면 굳이 비싼 돈 들여서 대자연까지 멀리 나와서 시간 허비해 가면서 자신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가. 전쟁도 아니고 말이다.

골프란 참 미묘한 세계가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미학적인 형태와 힘의 강약을 조율하면서 용구의 메커니즘을 감안해야 하는 예술 그 자체다. 아니 삶의 정수가 아닐 수 없다. 한마디로 폭력성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포스 있는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 골프장은 이러한 내공을 갖춘 사람들이 플레이를 하는 곳이다. 그런데 자신의 언짢은 감정을 속속 내밀면 미간이 찌푸러지기 십상이다. 구태여 즐겁게 플레이하는 데까지 와서 제 감정하나 다스리지 못한다는 건 한마디로 말해 소양 부족이다. 그러한 사람과 골프를 함께 해야 하는 동반자의 입장은 어떨까. 그러한 것을 바라보며 함께 해야 하는 그 불편함에 대해 생각이나 하는지. 나이 40, 50살 넘어가면 산전수전 다 겪어 이젠 어떤 일에도 초연할 줄 알고 스스로 감정의 조율 정도는 할 줄 아는 연륜이 아닌가. 감정의 칼날을 세워 씹씹거리면 동반자로선 그야말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내공이 쌓여 어느 정도 자기 인격의 정체성이 잡히고 인생의 폭이 넓어진 사람들이 아직 세상 물정도 모르는 소인배 근성을 가진 험소한 인물과 함께 하는 골프는 정말 돈 아깝고 시간 아깝다는 말 밖에 할말이 없다. 교육이나 감화 차원도 아니고 이런 사람과 함께 공을 친다는 것은 정말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허나 골프를 실수의 게임이라고 하지 않든가? 마음 좋은 사람을 그냥 놓아두지 않는다. 슬금슬금 사람의 심정을 꺾기 시작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면 자기기도 모르고 속에 있던 욕설이나 폭력성이 무의식적으로 표출해 나오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인격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데 문제가 있다. 감정은 쉽게 전이 된다고 하지 않든가. 이때 필요한 것이 웃음이다. 웃음은 이런 자신의 감정을 조율하고 나아가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양념

이 될 수 있다. 웃음을 끌어내는 것이 유머다. 그렇게 되면 다시 분위기는 화기애애하게 돌아가는 인자가 있다. 웃는 자가 우의에 선다는 말이 있듯이 웃는 자가 항시 앞서가기 마련이다. 이를테면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여유 없이는 웃지 못하는 법이다. 하긴 요즘 들어 감정노동자라는 말이 있다. 백화점이나 서비스 업종에서 웃지못할 상황인데도 억지로 웃어야 하는 감정의 혼란 상태를 유발시켜 오히려 자신의 감정의 정체성을 잃고 스트레스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억지웃음은 단박에 눈치 챌 수밖에 없다. 골프에서는 함께 동반하는 입장으로 누가 누구에게 서비스하는 차원이 아니라 스스로의 내면 스스로의 인격을 드러내는 품격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유머에도 질은 있다. 가장 저급한 차원의 유머에서부터 블랙 유머 등 다양한 유머가 있다. 남을 희화화해서 웃기는 것 아니면 그야말로 음담패설적인 이야기 등에서 뭔가를 생각해 하는 유머 또는 풍자 유머까지 골프장에 흘러 다니고 있다. 골퍼가 구사하는 유머들 중에도 상대방이 들으면 괜히 기분 나빠지거나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도 기분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지는 것은 저급한 유머로 분위기를 망쳐 아예 안했으면 하는 유머도 분명 있다. 정말 고차원적인 유머는 들을 땀 쉽게 감응이 안 오더라도 곰곰이 곰씹을수록 은근한 쾌감을 준다. 캐디들 역시 자신들의 실전에서 느낀다고 말한다. 그들은 제대로 인격을 갖춘 골퍼들이며 존경스럽기까지 하다고 한다. 곰씹어 보면 우러나오는 삶의 맛 그리고 인생의 페이스스까지 우러나오는 그런 유머 감각을 지닌 골퍼들이 더러 있다는 말이다. 당연한 말이다. 무조건 상대방에게 전가하거나 각을 세우기보다 유머로서 상황을 격상시킬 수 있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유머의 본질은 분위기를 즐겁게 하자는 의도인만큼 좋게 받아들이며 라운드를 즐거움 분위기로 만드는 역할도 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고 모 캐디는 언급했다. 스윙면에서도 웃음은 명약이다. 실제 경직된 골퍼의 스윙보다는 웃는 골퍼들의 스윙이 더 부드럽고 좋다는 것이다. 웃음은 몸에도 경직을 풀어 주어 원활한 경기를 치를 수 있게 만드는 묘약이 분명 있다. 궁극적으로 볼 때 골프를 하는 이유는 즐거움을 추구

하자는 의도가 아닐까 싶다. 그것도 실수의 게임인 골프에서 실수를 웃음으로 승화시켜서 그를 극복해 내는 자가 더 큰 마음을 닦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골프를 일러 심신수련이라고 하고 골프장을 신사도를 닦고 심신수련을 일구는 도장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웃음은 여유다

당신은 하루에 몇 번이나 웃는가? 다사다난한 삶에 웃을 일이 어디에 있느냐고 받아치면 할 말은 없을 것이다. 서양 격언에 '웃음은 건강의 어머니, 마음의 조깅이라'고 했다. 고대 의사 밀레르수는 '인간의 특성이란 의식'에서 웃음의 어원은 헬레(Hale)이고 그 의미는 건강(Health)이라고 했다. 고대적부터 웃음이 곧 건강이라 했으니 현대 의학에서야 말해 무엇할까.

의학적인 웃음의 작용을 보면 첫째, 웃으면 뇌하수체에서 엔돌핀과 자연 진통제가 분비돼 기분 좋고 흥을 돋운다. 둘째 웃음은 동맥 이완을 도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압을 내리는 효과가 있어 성인병 예방에 일조한다. 셋째 웃음은 스트레스, 분노, 긴장 등을 완화해 신체 리듬이 가벼워져 매사에 생기가 돈다고 한다. 넷째 웃음으로서 상대방에게 호감을 줘 대인관계가 활발해지고 매사에 자신감을 갖게 된다고 한다. 이렇게 좋은 웃음을 우리는 천시하지 않았는지 자문자답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 의학 심리학자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연대 별 웃음의 분포에 있어 나이가 어릴수록 많이 웃는 것으로 보아 웃음이란 순수성의 발로라 생각된다. 생후 3개월 된 유아와 눈 맞추며 웃는 순진한 모습을 상상해 보라.

유아기에는 하루에 400회에서 500회를 웃으며, 소아기에는 200회에서 300회, 청소년기에는 50회에서 100회, 장년기에는 10회에서 20회, 그리고 노년기에는 5회에서 10회 정도 웃는다고 한다. 당신은 과연 하루에 몇 번이나 웃고 있는지?

그렇다면 건강의 바로미터인 웃음을 찾아야 한다. 이같이 중요한 웃음을 어디에서 되찾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골프를 더욱 즐기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운동선수 중에서 프로골퍼의 평균 수명이 가장 길다고 한다. 골프가 직업인데도 다른 운



동에 비해 운동 중 웃을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하물며 취미로 즐기는 아마추어들에게는 다시없는 웃음의 바다라고 생각한다. 18홀 플레이하는데 50회에서 70회 정도 웃을 기회가 있다고 하니 얼마나 철없는 동심의 세계인가. 약간의 내기라도 하는 날이면 상대가 불행에 빠질 때 고소해서 웃고, 자신의 멋진 샷에 만족해서 웃고, 절묘한 샷으로 위기 탈출의 스틸에서 웃고, 유별난 남의 폼을 보면서 웃는 등 웃음의 천지가 바로 골프장인 것이다. 그래서 혹자는 골프란 신이 주신 최고 선물의 운동이라고 말들하고 있다.

더 많이 웃자, 그리고 즐기자, 그러기 위해선 골프를 더욱 사랑하고 아끼자, 공을 잘 치고 못 치고를 떠나 바람 따라 세월 따라 애환을 싣고 도도히 흐르는 저 한강처럼 자연을 벗하며 드넓은 초원의 파스한 햇살 아래 거닐면서 죽일 놈, 살일 놈, 아웅다웅 즐기노라면 건강은 자연히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보면 실수의 게임인 골프에서 웃음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에게 대단한 내공 수업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살만하다. 그러니 한 라운드의 경기를 마친 사람은 그만큼 인격 수양이 되고 품격을 높였다고 말 할 수도 있겠다. 억지라도 웃으면 행복이 온다는 말이 있는데 즐거울 일 반, 짜증 반인 골프에서 억지웃음이라도 끌어낸다면 더욱 골프가 즐거울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라운드에서 유머가 필요한 법이다. 비록 저급의 음담패설이지만 그래도 경직된 분위기를 풀어 주고 긴장을 풀어 주면 분위기를 돌릴 수 있는 한 두 개의 유머는 골프분위기를 바꿔주는 역할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본다.